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信解行證' 하는 삶 속에
행복 가득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법구경〉
바르지 못한 행실은 마음의 때요
탐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행은 이생과 내생의 때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19호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이직률 '심각'

조기룡 교수, '템플스테이 인력 근무환경 연구' 발표

연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 불교문화 사업인 템플스테이, 하지만 실무인력이 채 1년도 못돼 그만두고 있다면?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불교학연구〉 제40호에 실린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109개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웹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근무조건 △복지후생 △보수 △인간관계 △직무자세 △사회적 인식 등 6개 분야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전문인력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2012년 '템플스테이 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 대상군 112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특히 6개월 미만 근무 인력이 32%(35명)에 달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조기룡 교수는 이 원인을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수치화해 분석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간관계 △사회적 인식 △신분보장 및 복지후생 △보수 △직무 자체 △근무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룡 교수는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낮은 보수와 힘든 업무가 이직 요인이지만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경우 인간관계와 사회적인식이 이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특징"이라며 "사찰에서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인관관계와 사회적 인식이 이직의 주요 원인인 점은 조 교수의 자료 중 심층인터뷰에 더욱 더욱 극명히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사찰 특성상 스님들과 일할 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재가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무원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운영인력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적 인식 부분은 템플스테이 업무를 전문직으로 보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기룡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총 6가지 방향에서 개선점을 도출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간관계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 내의 의사소통 교육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기적 대화 장치 마련이 제시됐다. 또 △사회적인식에 있어서는 종단의 템플스테이 운영자격증 제도 도입, △직무 자체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을 합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산학협력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문제로 지적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기룡 교수는 "아직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사회법과 종법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일반직 종무원에 준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사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팀제 구성을 통해 팀장 이하 일반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상근 운영인력의 업무량을 경감시켜 효율을 증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템플스테이의 지속성장은 운영인력의 능력에 달려있다"며 "운영인력을 전문종무원으로 인식하는 풍토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근무인력 재직기간

근무기간	인원	퍼센트
6개월 미만	35명	31.3%
1년 미만	20명	17.9%
2년 미만	21명	18.8%
3년 미만	13명	11.6%
3년 이상	23명	20.5%
합계	112명	100.0%

출처 : 2012년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환경조사'

대상군 112명 평균재직 1년
32%는 6개월 내 이직 시도

인간관계, 가장 큰 이직요인
"불합리해도 재가자라 참아야"
봉사 아닌 '전문직' 인식 제고
정기적 대화 장치 마련 필요



11월 11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공로자를 표창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생명나눔 불사 20년… 불교 장기기증 '새 장'

생명나눔, 11일 20주년 기념식 개최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 새 삶으로 이끄는 희망의 끈을 달아줬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너그러움으로 사회에 헌신해온 20년 역사는 우리 사회의 뜻 깊은 모범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에 널리 실천해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11월 11일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 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등은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해온 장기나눔 행보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7백명의 참석자 역시 본부의 발자취를 기리며 앞날을 축하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장기를 기증하나는 생각조차 못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동안 본부를 거쳐 간 크고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계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자승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동행의 관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해왔다"며 장기기증을 두고 "마음까지 기부하는 뜻 깊은 불사"라고 말했다.

2001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된다"며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 장기기증으로 구한 한 생명은 주변의 수 십명을 기쁘게 한다"며 "장기기증문화가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본부 발전을 위해 힘써온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을 비롯, 홍보대사 아웃사이더 등 7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새 홍보대사도 위촉됐다. 가수 정수라씨와 한영씨는 앞으로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중앙종회 신뢰 회복하고 사부대중에게 희망 줘야"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11일 개원… 의장 성문 스님

부의장 자현 · 오심 스님
사무처장 경우 스님 연임
상임분과위원회도 구성
막말 등 개원부터 '삐그덕'

조계종 제16대 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0차 정기회를 개회하고 16대 종회 원 구성을 진행했다.

80명 의원 중 79명으로 성원된 이날 종회에서는 가장 먼저 16대 종회 원 구성을 처리했다. 이날 중앙종회 의장에는 성문 스님과 명진 스님이 추천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려했으나 명진 스님이 사퇴 의사를 밝혀 철회됐다. 이에 단일 후보로 추천된 성문 스님이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자현 스님과 차석부의장에는 오심 스님이 선출됐다. 함께 후보로 추천됐던 초격 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종회 사무처장에는 15대에 이어 경우 스님이 재임명됐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16대 중앙종회가 개원됐지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개원하면서 좋지 않은 여러 모습이 보였다. 이는 종단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힘겨루기하고 대립하는 사이 역사와 대중들은 흘러가버릴 수 있다"면서 "16대 중앙종회는 종단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중요하다. 16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종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구성이 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임시의장으로 나선 영담 스님이 신상발언을 둘러싸고 결국 불협화음이 벌어졌다.

영담 스님은 "현 종회는 개헌 의석을 확보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죽었다"면서 "종회는 선거과정의 불법에 이어 폭력승을 종회의원으로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현 집행부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시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영담 스님은 총무원 로비에서 참회의 절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장 선출과정에서는 명진 스님의 금품살포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삼화도량으로 일부 스님과 사찰이 금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것이 종도를 대표하는 종회의원들이냐"며 "자리가 돈에 의해 거래되고, 직능을 떠나 직선에서 선출된 스님들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스님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 법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16대 중앙종회는 11일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무행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제200회 정기회는 17일 오전 10시 속회했다. 속회한 종회에서는 △법인관리법 · 승려복지법 · 신도법 개정안 등 종법 제개정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 결의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금 사찰 종정감사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성민 기자

의장 인터뷰·분과위 명단 16·17면



11월 11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200회 정기회에서 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있다.

1019호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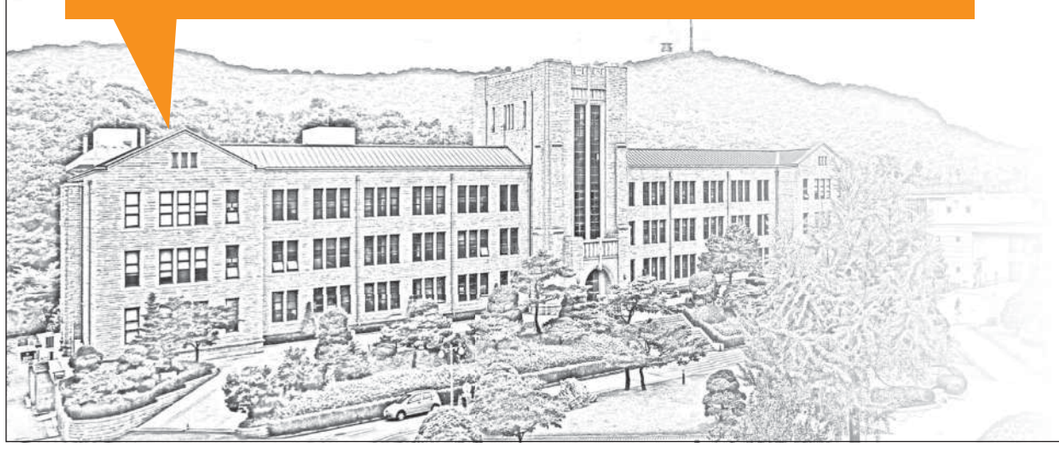
시방세계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 수련회 5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단풍이 아름다운 순창 강천사 12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건학 108주년
변화와 혁신의 동국대학교

| 응모자격 |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서류 |
- 지원서(지정서식) 1부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 접수기간 : 2014.11.20(목)~2014.11.21(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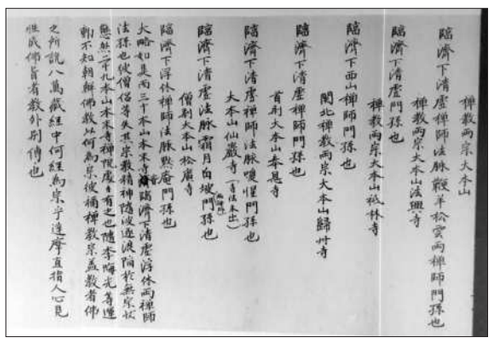
| 접수처 |
-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 기타 |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dongguk UNIVERSITY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33본산의 본말사는 임제 이래 청허·부휴의 법손”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용성 스님 편지 공개



용성 스님이 경성일보사 사장 아베에게 보낸 서간문 다섯통 중 다섯번째 편지. 각사찰의 임제 선맥을 밝히고 있다.

1910년대 일본불교에 맞서 ‘한국불교의 임제종 전통’을 설한 용성 스님의 편지글이 발견됐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용성 스님이 1915년 경성일보사 사장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1862~1936)에게 보낸 서간문 5점을 공개했다. 서간문은 일본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수한 것이다.

용성 스님은 서간문을 통해 선종포교당인 ‘임제파강구소’(臨濟派講究所)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인 임제선법을 피도록 해야 한다며 그 내용을 밝혔다. 1910년 당시 불교계는 왜색불교인 원종과 이에 맞서는 임제종의 갈등이 있었다.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1912년 장사동(현 사간동)에 임제종 포교당을 세웠다. 서한에 나온 장사동의 임제파강구소는 임제종 포교당을 나와 용성 스님이 독자적인 불교 강연을 진행한 곳이다. 여기서 용성 스님이 강연한 내용은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편지들을 통해 공개됐다.

용성 스님은 서간문을 통해 당시 독립운동과 불교전통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저항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불(無佛)’ 거사라는 법명을 받는 등 독실한 불자이며, 당시 일본총독부에 큰 영향을 미치던 아베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됐음이 드러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이번 서간문은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맞서 그 정통성을 밝힌 스님의 면모가 드러나는 자료”라며 “신념과 당당함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용성 스님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간문 중 다섯 번째 편지의 번역문 요약이다.

금일 본산의 주지가 내무지방국에 출두해 이회광과 재판을 하였는데, 관리가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화급하고 신속하니, 원컨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속히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삼십본산의 본말사는 모두 임제선사 이래 청허와 부휴 두 선사의 법손이다. (이회광을 비롯한)저 승려 등은 그 종교의 정신을 잃고서, 세속의 이익과 흐름만을 따라 무종(無宗)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스물아홉 본산의 본말사 선원은 모두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회광이 펼치는 운동을 따른다면 이는 조선의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무엇을 종주로 삼겠는가. 저들이 말하는 선교종(禪敎宗)에서 교(敎)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떤 경을 종주로 삼는가? 달마가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본래 성품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뜻은, 교외 별전이로다.’ **노덕현 기자**

학인 스님들 ‘남한산성 의승’ 애니 다큐 만든다

청암사승가대학 12일 다큐 제작 계획 발표

학인 스님들이 애민 정신으로 남한산성 축조와 수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승군들을 조명하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화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남한산성 장경사가 지원에 나섰다.

김천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한산성 의승군 주제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다.

학인 스님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남한산성의 소리(가칭)’ 으로 6분 분량의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학인 스님들이 남한산성 의승군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발심을 한 것은 학내 강의의 영향이 컸다. 스님들은 학기 중 ‘조선불교탄압사’ 강의를 들으며, 애민 정신으로 남한산성을 축성 · 수비하고 불교의 명맥을 지켜낸 스님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 상덕스님은 “강의 후에 학인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의승군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면서 “그러던 중 학인 스님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의승군들의 발자취를 되짚고 대중에게 알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인 스님들은 전반적인 제작 계획과 업무

제목은 ‘남한산성의 소리(가칭)’
6분 분량 2D 애니메이션 제작
‘조선불교탄압사’ 강의 들으며
학인 스님들 ‘의승 알리기’ 발심
내년 봄 완료… 英 · 中文제작도

파트 분배까지 해놓은 상태다. 시나리오 감독은 2학년 혜범 스님, 그림 감독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1학년 범준 스님이 맡았다. 제작총괄은 율학승가대학원 전문 과정 혜전 스님이 맡아 진행된다.

향후 스님들은 영문과 중문애니메이션도 준비하고 있으며 산성 · 왕릉 수비, 궁중조형 등의 노역을 하고도 주목받지 못한 선조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청암사승가대학에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도 제작비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학장 지형 스님은 “조선시대 의승들의 발자취를 되짚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승가 내부의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사회적으로 불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미디어를 통해 전하는 포교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2일 청암사승가대학에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만원을 후원하고,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 경우스님도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완성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며 “힘들겠지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 승군의 활약상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제는 변화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결사추진본부, 10일 세월호 200일 토론회 개최

세월호 사고와 함께 했던 200여일 간의 불교계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1월 10일 ‘세월호 200일 토론회’를 열고 종단의 활동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본부장 법일 스님은 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지원활동을 소개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주요한 활동들은△국민적 아픔 치유를 위해 노력한 점 △불교계의 활동을 인정받은 점 △지역 본사와 많은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점 등이 성과라고 꼽았다.

또한 그간의 지원활동에서 미흡했던 점 역시 지적했다. 스님은 △자원봉사 인원이 분배가 안됨 △장기간 구호에도 교구본사 참여 미흡 △식당차가 없어 자원 활동에 어려움 등을 꼽았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 불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제언했다.

정 위원장은 고도 위험사회인 한국이 이제부터라도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사회 구조가 급속히 무너지거나 혼돈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공동체 회복 · 복원’에 대한 작업이 세월호 사고 200일 이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불교계가 해야 할 일로 △진실과 화해 △성찰과 전환 △안전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내놨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찰과 불교 공동체들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한다면 불교가 바람직하게 변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시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들부터 세월호 두 번째 기적을 꿈꾸는 장도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南北불교 공동으로 대각국사 다례재 연다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서

남측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11월 6일 개성 민속여관서 만나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서 '영통사 복원 9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및 대각국사 제913주기 열반다례재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천태종에선 실무단장 겸 사회부장인 설혜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국장 성공 스님, 신면관 나누며하나 되기 사무국장이, 조불련에선 차금철 서기장, 홍영일 신도부원, 리현숙 신도부회장과 김철용 신도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남북합동법회에는 남측 불교도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불련도 남측 참가인원을 감안해 북측 신도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법회 후에는 관음사 참배를 비롯해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도 관람키로 했다.

특히 천태종과 조불련은 2015년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앞두고 남북의 화해 모드에 저해되는 부분은 자제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향후 개성 일대의 성지순례길을 다시 열고, 개성 일대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도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천태종은 가능하면 영통사 복원 행사와 대각국사 다례재를 따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 본격 돌입

김희옥 현 총장 · 보광 스님 · 조의연 · 연기영 교수 하마평

동국대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 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장선출에 돌입했다. 총장 후보로는 현 총장인 김희옥 총장과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비롯해 조의연 교수, 연기영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희옥 총장은 정관계, 경제계 등의 폭넓은 인맥과 임기동안 학교발전을 이끈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동국대는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1위를 비롯해 발전기금 모금과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진행 등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원이며 15대 중앙종회 의원인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17대 총장후보로 나온 바 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를 비롯해 종단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의연 교수는 급속한 학교발전이면에 교육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선출일정은 11월 11~21일까지 후보공모에 이어 20~21일 총장 후보 접수, 24일 총장추천위원회 실무위 후보자격 검증, 28일 총추위의 자격 심사, 12월 4일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 및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다. 후보자 추천 후 2주 안으로 이사회가 열리며 제18대 총장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일 열린 총추위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안 스님을 비롯한 25명의 총추위 위원이 선출됐다. 교원대표 12인, 직원대표 4인, 조계종대표 4인, 동문대표 2인, 사회인사대표 3인, 학부대표 1인, 대학원생대표 1인 등으로 구성됐다.

총추위원장 정안 스님은 “제18대 총장 선출은 동국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발전을 이끌 총장을 뽑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도량 보리동산 홍원사

화엄경산림 큰스님 초청법회 및 화엄경 사경

서울 홍원사(회주 동주스님)는 오는 11월 9일부터 ‘화엄경산림 큰스님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화엄경산림법회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구법기를 중심으로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며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을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배우게 된다.

법회는 11월 9일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6일 종범스님, 23일 각성스님의 법문이 이어지고, 11월 30일 회향 대법회가 열린다. 법회기간 중에는 화엄신중예참문에 따른 참회발원과 사경수행이 함께 진행한다.

한편, 홍원사는 이번 화엄산림기간 동안 선재동자가 발심하여 53선지식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 속에서 선지식 스승들의 고구정녕하신 법문과 선재동자의 간절한 구도자세를 본받고자 주지 성오 스님이 3년여 기간 동안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 〈화엄경 입법계품 - 53선지식을 찾아서〉를 일자일배의 정성으로 사경하는 원력도 세웠다.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구도수행이 절실한 이때 선재동자 같이 선지식을 친견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깨달음을 구하자는 염원으로 방대한 화엄경 중 입법계품을 사경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엄경 입법계품 사경은 우리나라 사경유품 중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통일신라 황룡사 연기법사가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한《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을 재현하여 나라의 번영과 만민의 안락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도 함께하고 있다.

■ **화엄경 사경교재 구입방법** :
교재 내용 ▼
● 화엄경 입법계품
● 화엄신중예참 법요집
● 화엄경사경노트 5권

■ **사경교재 셋트 한 벌** : 10만원

■ **사경노트 5권** : 5만원
(우편발송시 배송비 별도)

◆ 연락처 : 홍원사 02)2658-3100

한국불교 고문헌 역주서 대거 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상반기 역주서적 6권 발행

한국불교의 중요한 전적이 대거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최근 〈법계도기총수록〉을 비롯한 총 6권의 한국불교전서 역주서를 발간했다. 불교학술원에서는 12월 발간되는 〈송운대사분충서난록〉(松雲大師奮忠 N難錄) 등 4권을 포함하면 총 10권에 달한다.

ABC사업은 한국불교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서적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경흥 / 한명숙 옮김), 〈법계도기총수록〉(저자 미상 / 해주 스님 옮김), 〈사경지험기〉(성총 / 성재헌 옮김), 〈사명당대사집〉(유정 / 이상현 옮김), 〈의룡집〉(저자 미상 / 김석균 옮김) 〈응운공여대사유망록〉(공여 / 이대형 옮김) 등이다.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은 정토부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로 유식학적 관점에서 경전을 해석한 책이다. 원효(元曉)·의적(義寂) 등과 같은 당대 신라의 정토 계통 저술을 남긴 학자들과 '정성이승(定性二乘)의 왕생'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주목받는다. 정토신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던 신라시대 고승 경흥(憬興) 스님이 찬술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주석서 중 가장 분량이 많다.

〈법계도기총수록〉은 한국화엄의 주석전통을 대표하는 저술로 한국불교의 사자상승(師資相承) 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주석서다. 이 책은 해동화엄의 초조로 숭앙되는 의상(625~702) 스님의 대표저술인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에 대한 신라시대의 주석서인 〈대기〉(大記), 〈법융기〉(法融記), 〈진수기〉(眞秀記) 등과 이와 관련된 인용문헌들을 〈일승법계도〉의 원문과 함께 집성한 것이다.

〈일승법계도〉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인 이 책은 의상 스님의 화엄세계와 의상계 화엄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국화엄의 주석전통을 대표하는 저술로서의 가치는 물론, 한국불교의 사자상승 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점에서도 크게 주목할 만한 사료다.

〈사명당대사집〉은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역동적 삶을 보여주는 시문집으로 사명대사 탄신 470주년에 나온 〈사명당대사집〉의 역주 교감본이다.

이 책은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대사가 입적한 뒤에 그가 남긴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제자들이 수집하여 7권 1책으로 편집 간행한 것이다. 수록된 시문의 형식은 사(辭), 고시(古詩), 율시(律詩)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책에 실린 시문을 통해 대사의 승려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전란에 임하는 장수로서의 풍모, 외교관으로서 특수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역동적인 삶의 여정(旅程)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법계도기총수록〉 등 한국불교전서 6권

신라부터 조선까지 다양한 문헌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쉽게 역주
ABC사업 일환, 아카이브 구축도

〈의룡집〉은 새로 발굴된 19세기 범어사 의룡 체훈(義龍 體訓) 스님의 문집으로 실린 시 138편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사물에 대한 관심을 시적으로 탐구하는 서정적 시인으로서의 일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범어사를 중심으로 동래, 금정산성 등 여러 공간이 시의 소재로 쓰이고, 동래부사 등 지역인사들과 교류한 시가 다수 있어 대사의 문학이 지역적 성격을 지닌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문은 총 28편이 전하는데, 이 가운데 〈범어사폐막조건기〉(梵魚寺弊?條件記)와 〈범어사승군등장〉(梵魚寺僧軍等狀) 두 편의 글은 19세기 후반 범어사가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적 담론으로 주목된다.

〈사경지험기〉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등 네 가지 경전을 사경하고 수지독송하며 간행 유포한 이들의 영험담을 엮은 책이다.

백암 성총(栢庵 性聰) 스님이 청의 주극부(周克復)가 편찬한 〈관세음지험기〉(觀世音持驗紀), 〈역조법화지험기〉(歷朝法華持驗紀) 등 여러 책에서 내용을 발췌해 1686년 간행했다.

〈응운공여대사유망록〉(應雲空如大師遺忘錄)은 도교적 성격이 강한 삼교일치론과 〈화엄경〉을 중시하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산문 위주의 문집으로 당시 폭넓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용암전〉(龍巖傳)은 공여대사의 스승인 용암 혜언(龍巖慧彦)을 입전(立傳)한 것으로 문집이 전하지 않는 용암에 대해 잘 소개한 글로서 특히 가치가 있다.

불교학술원 측은 "이들 문헌은 신라와 조선에 걸쳐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어, 향후 불교학을 연찬하는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필독할 만한 양서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도 교육·제도·조직 '삼박자' 활성화 관건

포교부장 송묵 스님, 김응철 교수 신도 정책 제언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송묵 스님


김응철 교수

송묵 스님 "전국적인 홍보 계획"
김응철 "현실에 맞는 도입부터"

포교원은 1995년 이후 5년간 200만명의 신도등록을 목표로 신도등록사업을 추진해오다 교육화된 신도 양성과 조직 체계화를 위해 2009년 신도품계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3년 경과한 현재, 신도품계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체계와 연계한 품계품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도품계제도가 불교계에 안착화 될 때 진성 신도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불자교육과 신도조직, 신도품계제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움직여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011년 7월 시행령 제정 후 신도품계제도 활성화를 노력 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홍보대사를 위촉해 전국 홍보를 하고 영상·기획광고 등을 통해 품계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5년에는 품계를 기반하는 종단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입법반영을 위한 종합적 진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품계제도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찰과 신도의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품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품계제도는 모든 신도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찰에서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에게 주지 스님이 지위를 부여하듯, 포교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등장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묵 스님은 "모든 신도가 무조건 선혜품계 품서까지 가야되는 것은 아니다. 신도 개인이 좀 더 발전된 수행과 신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해당 교육을 통해 품계를 품수하고 조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종단의 골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신도회-교구신도회-사찰신도회'의 구성원은 분명한 종단 정체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송묵 스님은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에 대한 종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세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한의 요건은 신도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발심 품계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도품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불교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교원은 지리적 여건, 커리큘럼의 부재, 강사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불교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송묵 스님은 "각급 신도회 구성원은 재적사찰을 근본으로 신행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포교사단을 비롯한 각종 자격직 구성원들도 단체소속의 역량활동과 재적사찰의 신도회 소속 신행활동이 병행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응철 교수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불교대학 및 사찰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본교육은 재적사찰에서 주지 스님이 담당하고 불교대학은 거점사찰이 담당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동해 삼화사의 경우 '동해불교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삼화사 신도뿐 아니라 동해·삼척 지역의 불자들도 교육시키고 있다"며 "동해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신도들은 재적사찰을 바꾸는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스님들은 신도들이 동해불교대학에 다니는 것을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교원은 불교대학의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편중현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송묵 스님은 "향후 학사운영 체계를 보다 강화해 지역 및 소속사찰의 경계를 허물고 강사 인력과 검증된 커리큘럼이 공유돼 보다 쉽게 많은 불자들이 교육과정을 거쳐 역량 있는 신도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민족 상징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문화재제자리찾기, 11월 11일 10만 서명운동 발대식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국보70호)을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1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와 우리문화지킴이는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광장에서 '훈민정음 국보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총독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이날 혜문 스님은 "숭례문의 국보1호 지정 배경에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에 진입한 상징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두차례나 해지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화재 이후 보수 비리마저 불거진 숭례문을 지정해제하고, 훈민정음을 1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월 1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문화재청에 이를 접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발대식 이후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보1호 지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중일 불교 '한반도·세계평화' 기원 행진

종단협, 18~19일 한중일대회… DMZ서 기원법회 열어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DMZ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평화기원법회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19일까지 파주 도라산전망대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제 17차 한중일한국대회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주요 종단 총무원장 스님 등 한국대표단 170명과 중국대표단(단장 쉐청 스님) 119명, 일본대표단(단장 다케카쿠 스님) 50여 명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11월 1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9일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 각국의 역사 속에서 평화사상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학술강연회, DMZ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19일 오후 2시 임진각에서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를 열고 통일대교까지 1km 구간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평화행진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비무장지대와 개성공단이 바라보이는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법회'가 열리며 법회에서는 3국 국가별 예불의식과 평화기원 메시지 발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공동선언문에서는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3국 불교도들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다.

종단협 사무처장 각우 스님은 "이번 한국대회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평화기원법회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차주 상보〉



일 주 문



조계사 떡나눔 행사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11월 11일 북인사마당에서 떡나눔 행사 '우리 떡하니 사랑합니다' 를 개최했다.



어르신 위한 종합 예술제

양양군노인복지관장 우성 스님은 '은빛청춘! 꿈의 날개를 펴다' 라는 주제로 11월 14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종합예술제를 실시했다.



불교인권상에 김철관 기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11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수상하는 제20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창재 감독 언론 시사회

불자 이창재 감독은 호스피스 병원 이야기를 담은 다큐 〈목숨〉 언론시사회를 11월 11일 CGV 왕십리에서 개최했다.



남지심 작가 정각원 강의

소설가 남지심 작가는 11월 15일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문학과 나의 인생' 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에 정찬민 작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주최하는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에 정찬민 작가〈사진〉가 선정됐다. 정 작가는 월인석보 팔상도 여덟 장면을 전통 판각 법으로 재현했다.

정찬민 작가는 1958년생으로 철재 전통각자보존회 회원으로 2013년에는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원주전통판화공모전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예종에서 선정한 전통공예 명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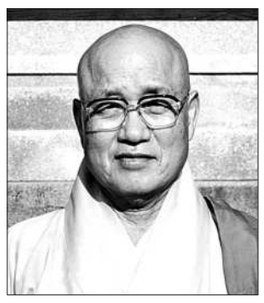
제1회 자비명상 축제 및 마정수기 법회



자비명상(대표 마가)은 11월 8일 안성 굴암사에서 제1회 자비명상 축제 및 마정수기 법회를 열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자비명상 회원들은 보시로 모은 쌀 10Kg 100 포대를 준비해 안성시에게 전달하고 명상 법회를 진행했다. 또한 마가 스님은 28명의 스님들에게 국가등록 민간자격 자비명상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했다. **정혜숙 기자**

자비보시행·생활불교 실천의 산증인

진흥원 제12회 대원상 정련 스님 · 금강경독송회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 수상자 정련 스님(왼쪽 사진)과 재가부문 수상자 금강경독송회(오른쪽 사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수상하는 제12회 대원상 대상에 정련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 동국대 이사장)과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선정됐다.

진흥원은 11월 11~1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포교 부문과 콘텐츠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포교대상 출가부문에는 △대상 정련 스님 △특별상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 부문에는 △대상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특별상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곽명희) △장려상 불교영어도서관(관장 정지원)이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출가부문 대상 수상자인 정련 스님은 '받는 불교' 에서 '주는 불교' 로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포교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학 내 불교정신을 구현한 점과 지난 40여 년간 내원정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교육 시설 13 곳을 운영한 점이 인정받았다.

재가부문 대상을 차지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973년 발족한 이래 2곳의 수행도량과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에 14개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수행단체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회원들 스스로 자급자족 체계를 마련하여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금강경독송과 경전 보급을 통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수상에는 호국불교를 표방하며 한국문화 알리기 책자 보급 및 한식 시식회 등 해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한국 불교 알리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가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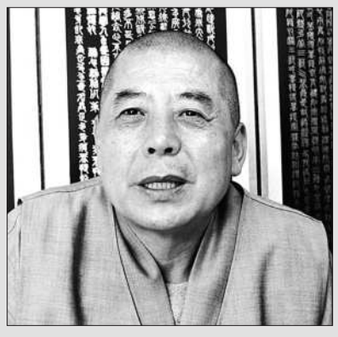
콘텐츠 부문은 대상 수상작이 없으며 △특별상에 숙명여대 송혜진 교수의 가족 음악극 '부처님, 용궁 가시다' △장려상에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원장 이종대)의 모바일 앱 '용궁에서 온 보물' △양경수 작가의 웹툰 '부처님의 10대 제자 THE TEN' 등을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4시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식학 교육 통해 종도교육 질 높이겠다"

제 15대 법상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해월 스님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가 대중화되는 현대사회서 한국불교는 기존의 낡은 포교 방식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다시말해 아직도 만연화된 기복신앙서 탈피해 마음공부와 정신교화를 포교의 핵심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종도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을 근간으로 한 유식 교육에 힘쓸 방침입니다."

11월 12일 대한불교 법상종 제 1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심지 해월 스님〈사진〉은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해월 스님은 "법상종은 각행원만과 자각각타의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만법유식의 진리를 체득하고, 미륵신행을 실천함으로서 업장을 소멸하고 십선운동을 전개해 용화세계를 실현함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종단입니다"라고 종단 소개로 첫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월 스님은 "현재 법맥을 유지하는 대한불교 법상종은 1969년 창종했으며, 280여개의 사찰에 약 300여 스님들이 소속돼 있다"며 "올해는 지역포교 원년의 해로 삼아 전국 각 12개 교구종무원 산하에 종단이 관리하는 포교원을 설치해 도심 포교에 진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법상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총무원 청사 건립이다. 이에 대해 해월 스님은 "3년여 각고의 노력끝에 법상종 총본산인 안성 쌍미륵사 앞 3천여평 부지를 총무원 청사 건립을 위해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수목장과 유골 봉안탑 등 장례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총무원 청사와 종도 교육관, 요양원 등의 시설 불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해월 스님은 종도교육의 중요성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현재 승려를 포함한 종도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3박 4일간 이뤄지고 있다"며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의 소의경전인 유식학 전문학자 및 스님들을 대거 초청해 심도깊은 특강과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월 스님은 종무행정을 총무원 중심의 중앙집권제식으로 재편해 종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할 개념의 종찰을 늘리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구상할 것"이라고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2004년부터 (사)대한불교법상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안성 쌍미륵사 주지, 안성 경찰서 경승위원도 겸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국에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 희망 갖게 되길"

이주여성 위해 달팽이모자원 개원한 진오 스님



한국인 남편과 사별 · 이혼 등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달팽이 모자원이 11월 5일 정식 개관했다. 경북 구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사진〉이 구미시 지산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매입, 관련 시설을 설립한 것이다.

"전국 217곳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들어설 정도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주 여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주여성 7천여명 가운데 1백여명이 이혼했고 90여명이 남편과 사별했다. 현재 달팽이 모자원에 입주해있는 가정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과 아동 등 4명. 앞으로 3가족이 더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25만원씩 공과금을 받지만, 3년뒤 1천만원 자립기금으로 고스란히 돌려준다. 또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담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며 확실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 알선에도 나선다.

진오 스님은 시설마련을 위해 마라톤으로 모은 금액 1억3천만원을 고스란히 털어넣었다. 주택 구입자금 중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대출금으로 마련했다. 당장 운영 인건비 마련도 빠듯한터라 일일이 지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에 나서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구미스마트시티 기부와 삼성 365봉사팀 임직원들이 전기 설비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고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가 이불을 기증하기도 했다. 12월 3일에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임동창 등 여러 출연진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달팽이는 느리다. 그러나 다문화 모자가족도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면 그 나름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고 진오 스님은 말한다. (후원계좌:농협 301-0122-9445-11)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동산반야회 동산인의 밤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상우)은 11월 12일 삼일빌딩에서 '동산반야회 창립 제32주년 기념 및 동산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엄상호 건영육영재단 이사장의 연구비 지원금 전달식과 동산상 및 공로상 수여식, 동산인 화합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봉

仁王山 仁王寺 仁王宗

대한불교인왕종 창종 선포

축

귀의 삼보하옵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석가세존을 교주**로 받들고 **무학대선사를 창종조**로 받들고 **기산 대종사를 종정예하**로 받들어 미래불교 발전과 불법홍포를 위해 선과 교를 봉행 수행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불기 2558(2014)년 4월 7일 대한불교인왕종 창종을 선포**하고 제방에 고합니다.

종정 **기산 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대경**

원로의원 **보문. 대호. 성관**
종회의장 **보문**

총무원장 **대련** 교육원장 **무공** 포교원장 **정각** 감찰원장 **법성** 선원장 **유리광**

총무부장 **학천** 재무부장 **해송** 포교부장 **상품화** 봉사부장 **백련화**
복지부장 **이은경** 문화부장 **이은선** 기획실장 **대경**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2-24 (인왕사) / 전화 02)730-3211 ● 종정예하 주석사찰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2-11 (인왕사) / 전화 737-8283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은 11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한마음 법형제회 수련회 '공생으로 한마음되는 법형제'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촛불재에서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각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의 특강에서 법형제 회원들이 짝을 이루어 마음치유와 소통을 위한 체험을 하고 있다.

거사 불자들 마음의 '보물창고' 열다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 11월 8~9일 수련회 열어

한마음선원 본원 거사 불자 모임 '법형제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공부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다.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은 11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한마음 법형제회 수련회 '공생으로 한마음되는 법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회장 박종수) 회원 250여명과 주지 혜원 스님, 이사장 혜수 스님, 총무 혜목 스님을 비롯한 지도법사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입제식 및 주지스님 환영 법문 △황수경 박사의 주인공 리더십 특강 △한마음 마당놀이 △법형제회 장기자랑 및 발표 △마음밝히기 촛불재 △대행 스님 법문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주지 혜원 스님은 환영 법문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한 거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서 없어서는 안 될 신행단체"라며 "거창한 공부를 해야만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재료이며, 공부는 지극하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법형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법형제회는 많은 수의 거사 불자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한마음선원의 대표적인 신행회"라며 "회원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고 재발심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0대 초반부터 80세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법형제 회원들은 1박 2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반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주인공 리더십 특강 강연자로 나선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은 마음공부를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구글의 임원이었던 차드 멩탄은 가장으로서, 기업의 임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1990년 8월 대행 스님 가르침에 의해 발족
월 1회 법회 열며 선원행사 이끌어
"한 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야 가정 화목"
리더십특강 · 마당놀이 등 열려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면을 찾는 명상과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게 됐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파하고 있다"며 "집안의 가장이자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이제 강한 척, 착한 척, 있는 척 하기 보다는 '나'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대장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 마당놀이 시간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회원들이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배우며 흥을 돋우었으며, 야외에서 팀별로 족구, 축구, 피구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법형제회원들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온 콩트, 7080메들리, 댄스, 장기모음 등을 사부대중에 선보였다.



야외에서 팀별로 족구 축구 피구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회원들.



한마음 마당놀이 시간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회원들이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배우며 흥을 돋우었다.

이어 법형제회원들은 수련회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콩트, 70 · 80메들리, 댄스, 장기모음 등을 사부대중에 선보였다.

평균 연령 68세의 나이를 잊은 회원들이 노래 '닐리리 맘보'에 맞춰 건강체조를 하는가 하면, 40대의 젊은 남성 불자로 구성된 팀은 고쟁이와 빨간 양말에 고무신을 신고 우스꽝스러운 댄스를 선보여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소품을 준비하고 분장까지 준비한 팀들도 있었다. 이들은 '아빠와 아들' '봉숭아 학당'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 등 모 방송사 개그코너를 패러디해 마음공부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촛불재에서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각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대행 스님 영상 법문을 시청하고 지도법사 스님과 담소를 나눈 뒤 회향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김범수(64) 씨는 "도반들과 모여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도 알차고 의미 있었다. 각 팀별로 장기자랑 발표할 때는 환희심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우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는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용우(49) 씨는 "1박 2일 동안 알차게 보낸 것 같다.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익했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 법형제회는 거사 신행단체로서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안양 본원을 포함한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16개 각 지원의 법형제회에 소속된 회원 수만 1,000명에 달한다. 안양 본원 법형제회는 500여 회원이 활동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법형제회는 1990년 8월 "한 가정의 가장이 앞장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발족됐다. 현재까지 월 1회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선원의 각 행사를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고 있다.

본원 법형제회는 정기법회를 비롯해 법형제회 내 24개 신행회에서 담당 법사 스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신행회별 모임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형제 합창단은 매주 합창 연습을 통해 신심을 증가시키고 매년 열리는 연등행렬에 참가해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의 뜻에 따라 구성된 법형제회는 스님이 계실 당시에는 직접 법회를 주도하셔 회원들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원분들이 결속을 다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란다. 향후에도 정기적 수련회를 열고 나아가 각 지원 연합 법형제회 수련회도 기획해 거사님들의 신심이 고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본원 법형제회 회장은 "선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 서 활동하는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의 신행단체 중 단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개최한 것은 5년만이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법형제회가 한마음으로 결집해 마음공부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이나은 기자



신행 소식

시각장애인 위한 불교성전 제작돼

장애인전법단, 11월 9일 불교성전 출판 기념식 열어



장애인전법단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점자 불교성전 출판기념식 및 장애인 축하공연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제작된 수화동영상 법요집이 활용됐다.

시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 보현행원품이 제작 배포 된다.

조계종포교원 산하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2013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동영상제작에 이어 2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불교성전(보현행원품)을 제작했다. 그동안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로 된 불교서적이나 경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전법단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점자 불교성전 출판기념식 및 장애인 축하공연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보현행원품 독송과 지난해 제작된 수화동영상 법요집이 활용됐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승가원 장애아동의 방송댄스, 연화원 시각장애인들의 하모니카 및 피아노 연주, 원심회 수화공연을 비롯해 테너 이준형씨와 지선사 합창단이 다양한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장애인전법단 단장 도륜 스님은 "점자 보현행원품 발간으로 장애로 인해 신행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 시각장애인 단체 및 맹인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불교성전을 보급해 시각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귀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포교원, 불교명상지도자 초청 간담회

11월 25일 분과회의실서…12월 4일 군포교 주제 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교명상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11월 25일 오후2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리며 인경 스님(한국명상상담학회장)이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오원명 교장(간화선 수행학교)이 '간화선 대중화와 불교명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교원은 금강선원 혜거 스님, 봉인사 적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을 비롯해 한마음과학원, 행불선원 등 10~15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지도자로 선정해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은 12월 4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군포교의 지향과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성'을 주제로 제60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군포교 전반을 진단하고 군포교와 대학생 포교의 연계성, 그리고 군 간부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연찬회는 장성화 군종교구 기획실장이 '군포교와 대학생포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정우 군법사 중령이 '군 장교 포교의 중요성과 포교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02)2011-1913

이나은 기자

다문화가족법회로 타향 시름 달래

외국인 위한 법회 전국서 열려

지난 7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귀화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 등 포함)의 수는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당 3명은 외국인 주민인 셈이다. 특히 국제결혼은 연간 2만 6000여 건으로 전체 혼인의 8%에 이른다(통계청).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은 26만 6547가구에 달한다.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가정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대중화된 것이다.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대만의 자녀가 55%, 동남아시아 자녀가 40%를 차지한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에서 온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불교계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국가에서 온 다문화 이주여성 및 가정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불교계 단체가 법회를 열고 타향살이에 지친 이들의 신심을 달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법회를 연다. 베트남, 중국 등에서 온 이주여성과 가족 등 평균 30~40명이 법회에 참여한다. 법회는 〈천수경〉 〈반야심경〉 독송과 함께 도영 스님(중앙승가대)의 법문으로 진행된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자원봉사자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점심을 먹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매년 2회 나들이 가는 행사도 마련한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이옥빈 씨는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법회와 비슷하다. 불교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생활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지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며 "한국어로 법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한 달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좋다"고 말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은 11월 9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500여 베트남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규모의 베트남 불자 법회를 거행했다.

다문화 가족법회 현황

회원단체명	국 가	주 소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스리랑카	경북 구미시 지산동 588-4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캄보디아	경북 구미시 지산동 588-4
마하보디사	스리랑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30-2
몽골법당	몽골	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169번지 2층
부산 미얀마선원	미얀마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아파트 213동 205호 법승센터
부평 담마두따센터	미얀마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34-155 (3, 4층)
부평 미얀마전법선원	미얀마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69-2 (4층)
베트남법회	베트남	국제선센터 매월 법회
싯타수까	미얀마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80-3번지
마하위하라	스리랑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3-44 도원사
법주사	방글라데시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법주사
석왕사	방글라데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산 29-30번지
김포 보타사	방글라데시	김포시 양촌면 구례리 428-13 양지주택A 5동 401호
태국 양주	태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350-66번지 2층
네팔 용수사	네팔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721-3번지 중앙프라자803호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이수찬 소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72안길 13
착한벗들	회일스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154 2층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은 11월 9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500여 베트남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규모의 베트남 불자 법회를 거행했다. 법회에는 베트남에 있는 비엔츄엔뚜 사찰의 텃 티엔 투언 스님이 직접 참석해 베트남 전통 불교의식으로 법회를 열고 베트남 불자들을 격려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이번 베트남 불자 법회는 타국에서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마하보디사**(주지 와치싸라 스님)는 스리랑카 및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로 법회를 연다.

와치싸라 스님은 2003년 관광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내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자리 잡게 됐다. 10여년 동안 스님은 법회를 열고 있으며, 국제포교사회와 협력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글과 컴퓨터교육을 진행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자문도 돕는다.

이밖에 부평에 있는 **미얀마전법선원**은 매주 50~100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찾아 예불을 올리고 있으며, 양주에 있는 태국 법당은 50여명의 태국인 불자들이 모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산본에 위치한 캄보디아 법당도 매주 30~40명의 불자들이 방문해 신행활동을 비롯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평택에 위치한 마하위하라 스리랑카 법당에서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 매주 법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정각원**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정각원 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법회도 열고 있다. 정각원 교법사 자행 스님이 지도 법사로 한국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학생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대학원 교육관 후원의 밤 열린다

11월 2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영)과 불교상담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총재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하 위원회)가 불교상담대학원 및 교육관 설립을 위해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및 교육관 불사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2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후원금 5억원을 목표로 후원자로부터 기증 받은 20여 점의 작품을 경매를 통한 판매, 30여 점의 작품은 전시 판매를 함으로써 불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혜거 스님은 "분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릇된 가치관이 깊은 상실과 고립 속에 불안, 분노, 우울, 자살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추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불교 상담은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소한 아픔까지도 정성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며 불교가 가져야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석·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불교 상담 인재들을 배출해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육관 불사를 계획했다.

혜거 스님은 "하지만 교육부 인가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의 길이 쉽지 많은 않다"며 "교육관과 교원,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불교계의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관 건립을 위한 행사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교육관 불사 취지에 공감한 이들이 많은 작품들을 기증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03년 열반에 든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과 9대 종정 월하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을 회상할 수 있는 글씨가 출품된다. 또한 공주 신원사 조실이었던 벽암 스님과 청화 스님, 석주 스님의 글씨를 비롯해 통칙 스님의 목판화, 설봉 스님의 도자기, 관욱요 김우봉 명장의 도자기, 문경요 천한봉 명장의 찻사발, 현암요 오순택 명장의 다구세트, 이윤길 작가의 동(銅)조각품 등도 선보인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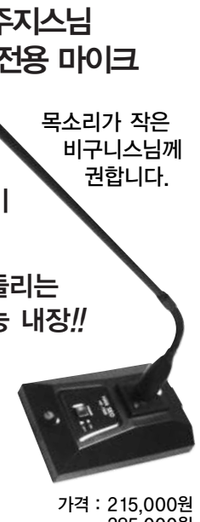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현지 사찰과 파트너 방식의 개발 필요”

불교사회복지대회…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종교 역할’ 포럼



11월 14일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종교역할’ 포럼현장. 사진=박재완 기자

1991년 정토회 산하기관 한국JTS가 인도 둥게스와리에서 불가촉천민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후 관련 사업에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불교단체들은 33개로 늘어났다. 2012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94개 회원단체를 살펴보면 종교기반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76%에 달할 정도다. 국제개발사업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종교계 해외지원활동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1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 종교 · 시민 NGO단체들이 참석해 공론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손혁상 경희대 글로벌거버넌스학 교수는 “구호와 복지에서 시작된 해외NGO사업이 변화를 거듭해 주민운동 지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한국 개발NGO의 경우 전문적 역량개발 미진, 대안적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터스월드 민정희 사무국장 역시 “불교계 해외사업의 경우 대부분 교육, 보건의료, 생활환경개선 분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학교 건립과 식수시설 지원같은 인프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기획 과정에서 후원자 욕구를 지나치게 고려하고 실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현장역시 대부분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불교국가에 한정돼 있다”며 “현지 불교기반단체나 사원 등과 파트너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적 공감대를 갖췄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타종교의 사례도 공유됐다. 민경일 바보의나눔 사무총장은 대표적 가톨릭 개발협력 단체인 한국 까리타스를 예로 들고 “현지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데 있어 세계 165개국의 연합으로 이뤄진 국제 까리타스의 방대한 네트워크

국제NGO 중 종교단체 비중 높아져

전문성 미진 · 대안 발굴 부족 한계도

불교 경우 학교건립 등 인프라 집중

스리랑카, 사르보다야운동 모델 제시

를 활용하고 있다”며 “까리타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내 가톨릭 NGO단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각 NGO단체별로 전문성을 나타내는 분야가 따로 있다”며 “사업별로 국내 단체들끼리 협력한다”고 말했다.

현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성을 낮출수가 있어서다.

포럼 참석자들은 종교계가 주도하는 국제개발사업에서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운동단체인 ODA Watch 한재광 사무총장은 “몇몇 종교의 경우 수혜자들의 영적변화와 개종을 목표로 삼는 등 개발을 개종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기업, 단체 및 정부 자금이 후원자의도와는 달리 활용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국제사업 모금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만 그치는데서 벗어나 자신들의 활동이 종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개발활동에 비해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불교단체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 내용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불교적 가치와 원리에 따라 스리랑카의 재건을 위해 봉사하는 사르보다야 운동과 아시아불교국가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 지역의 자립적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사방승가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방승가운동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기구 붓다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사를 위해 볍씨, 소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립적 마을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는 손혁상 교수, 월드비전 김성태 본부장, 민경일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복지대회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종선 스님을 비롯 총 1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연꽃마을, 베트남 지원기금 마련 음악회

김덕수 · 김영임 · 안숙선 등 출연…11.20 서울 국립극장

국제연꽃마을(회장 각현)이 베트남에 건립중인 종합복지타운 사업의 일환인 ‘세종학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11월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박범훈 국제연꽃마을 총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회로 승무 김묘선, 민요 김영임, 판소리 안숙선, 피리 최경만 명인이 열띤 공연을 선보인다.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도 함께 열린다. 후원티켓은 1좌석당 10만원이다.

국제연꽃마을은 월남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베트남 중부 광남성 지방에 한국형 교육복지타운 건립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원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복지타운 내 청소년 교육기관 세종학당 건립을 시작해 현재 2020년 완공 목표로 공사중이다. 이외에도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 현지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지원, 안면장애아동 무료수술지원, 현지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의료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베트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불교복지인으로서의 삶’ 서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1월 7일 후원사찰 미타사 정수암에서 복지관 부설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의 계사로 진행된 수계법회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기관인 연꽃어린이집, 정수데이케어센터, 서울숲데이케어센터,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등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발원했다. 수계받은 직원들은 앞으로 불교복지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배현진 기자

독거노인 훈훈한 겨울맞이 잇달아

송산노인복지관, 후원물품전달 · 봉사활동


롯데슈퍼 직원들이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노인을 찾아 후원품 전달을 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은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독거노인 어르신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연이어 진행했다.

11월 12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후원으로 의정부 지역 홀몸노인 80명에게 참기름, 김, 참치, 라면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어르신들의 영양결핍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세트였다.

한편 11월 10일에는 롯데슈퍼와 함께 독거노인 4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청소서비스를 실시했다.

롯데슈퍼 직원 20명은 5인 1조로 독거노인 1가정을 찾아 마당 · 화장실 · 집안 청소를 하고 각 가정에 쌀, 라면, 휴지, 담요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고산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평소 무릎 관절염과 허리통증으로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후원물품 전달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찬희 롯데마트 수도권2부문장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따뜻함을 전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오히려 독거노인분들이 봉사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덩달아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대치노인복지센터 개관 3주년 기념 축제

개관 3주년을 맞이한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이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대치2문화센터 다목적공연장(대치2동주민센터 3층)에서 지역사회 축제장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대치노인복지센터에 기여해온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표창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대치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 ‘이음예술제’도 열린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가곡, 라인댄스팀이 참여해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또한 연꽃차 다도시연회와 사찰음식 체험행사도 마련되며 행사 후에는 경품추첨과 기념품 증정도 이뤄진다.

배현진 기자

日 주교단, “지난 상처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한일주교교류모임 11월 10일 나눔의 집 방문 ‘눈길’


11월 10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한일주교단.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끼쳤던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가톨릭 성직자 10명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 주교단이 11월 10일 경기도 퇴촌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한일천주교교류모임 20회를 맞아 방한한 일본 주교단이 첫 일정으로 나눔의 집 방문을 선택한 것이다.

주교단은 나눔의 집 위안부 역사기념관을 둘러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7명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 대교구장 마에다 마요 대주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권과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며 “위안부는 시대의 아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에다 주교는 할머니들과의 만남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쓰우라 고로 보좌주교 역시 “일본 내각 교구가 지난 과오를 고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하겠다” 고 다짐하는가 하면 일본 가톨릭신문 편집장인 세가와 다이지 주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신문에 실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초청받았던 김군자 할머니는 “제가 말은 해도 듣지는 못한다. 위안부 생활할 때 얼굴을 맞아 고막을 다쳤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천주교에서 저희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일주교교류모임은 1996년 공통된 역사 인식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자는 뜻을 모아 발족한 ‘한일 교과서문제 간담회’에서 시작돼 지난 2004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를 펴내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안내

신청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한 : 2014. 12. 31. 까지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 ~ 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우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 · 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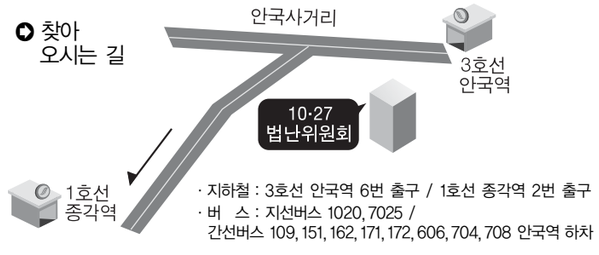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 전화, 방문, 우편제출 등
- 활용계획 : 향후 건립될 기념관 · 전시관 내 전시 및 자료발간 등
-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찾아 오시는 길



·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 버 스 : 지선버스 1020, 7025 / 간선버스 109, 151, 162, 171, 172, 606, 704, 708 안국역 하차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9층

연락처 : 02)738-6210

‘信解行證’ 하는 삶 속에 행복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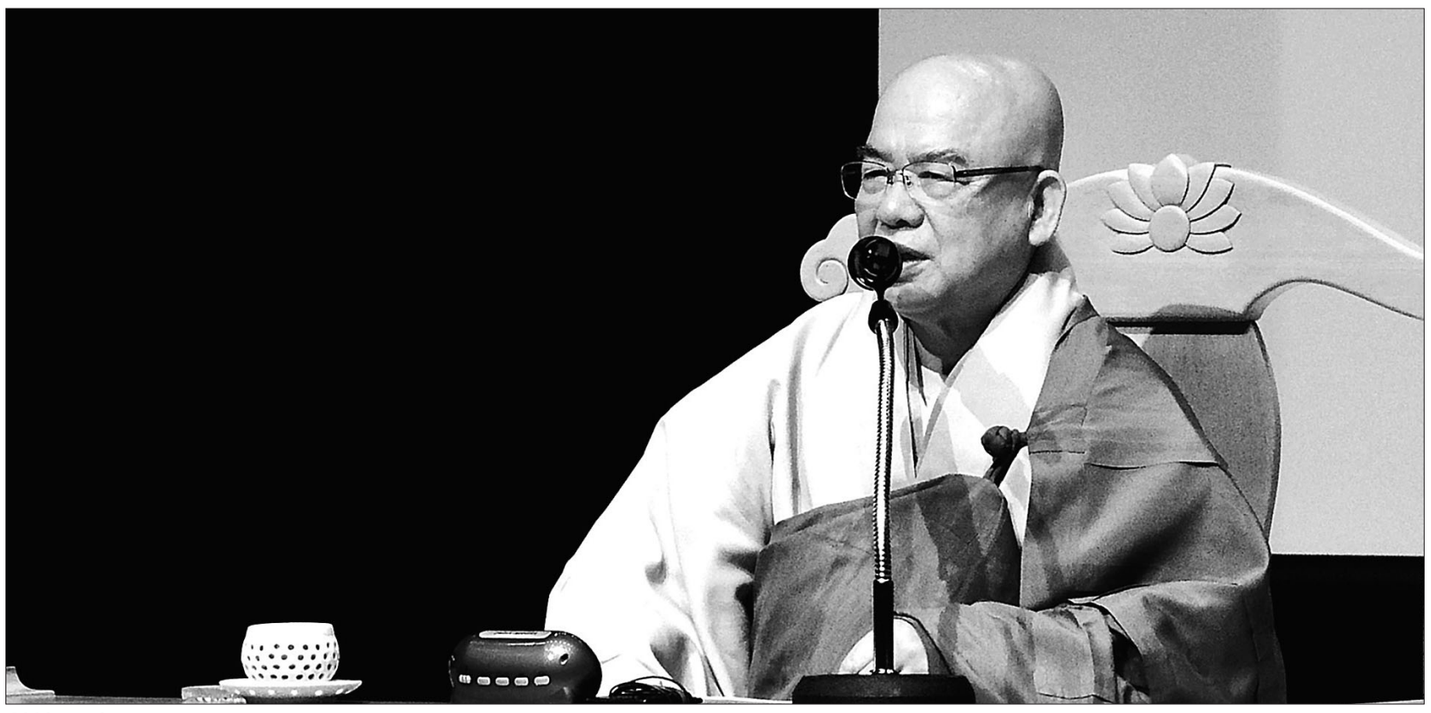
〈신해행증〉

동국대 정각원 법회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아마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걱정에 매일 필요도 없으며 불법을 통해 세상의 진리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월 1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원산 스님의 법문은 행복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이 났다.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때 깨달음 역시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원산 스님은 … 1964년 출가하여 1969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전문 강원에서 수학했으며 극락선원,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7년여 수선 안거를 마쳤다. 직지사, 통도사 강주와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통도사 백련정사 무문관에서 3년 결사 정진을 했다. 현재 통도사 주지다.

모든 종교, 고통 탈출법 제시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당나귀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하고 같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둘 다 나무에 기어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든 생명체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도 같습니다. 새나 물고기나 온갖 중생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하는 목적에서 출발됐습니다. 경제 역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인간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를 고통이라 보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고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산고를 느끼고 아이도 고통을 느끼기에 고함을 지릅니다. 이후에도 점차 늙어가다 병들어서 죽어야 합니다. 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전부 고통입니다. 이처럼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좋다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살다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는데 이들과는 서로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명예도, 돈 버는 것도 뜻대로 안돼요.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고뇌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죠. 전부 괴로워요. 생사의 고통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제일이라 하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왕자자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설산에서 4년간 고행하고 보리수 아래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나고 죽는 이치를 깨달은 이를 말합니다. 우주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시기가 오고 자연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나 춘하추동의 이치는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가르침입니다.

해탈의 자리, 그것이 최고행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이성간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 이성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난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먼저 찾아간 이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다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날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였죠. 그러더니 자신보다는 벼슬 높은 이에게 가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명예를 얻은 이도 자신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많은 경쟁자를 물리쳤으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보다는 예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미인과 함께 사는 이도 함께 사는 즐거움은 며칠 뿐, 자신은 부인을 지키는 종에 불과하다며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10대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중노릇을 해왔지만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명예가 없으니 떨어질 일도 없죠.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해도 이는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일 뿐이니까요. 자식이 없으니 학비 걱정도 없으며 패션도 안 바뀌니 옷도 10년씩 입어도 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오직 불도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경지는 무아증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사 고통없이 해탈에 이르는 행복을 찾아야합니다. 해탈의 자리, 그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나도 알아 행복해지는 거죠.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불교는 윤리 · 도덕 부각된 율장 존재

우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믿음을 두고 진리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체가 믿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생사의 애착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위없는 진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 짓는데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하듯 신앙을 갖되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것은 미신이라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이치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인 진리를 알았을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물건이 있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골라봐야만 이 물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듯, 불교를 알려면 기독교 천주교 유교도 알아야 합니다.

최고 행복의 경지 ‘무아증득’
믿음이란 집짓기 위한 주춧돌
실천 담보될 때 깨달음 얻어

불교 가르침은 경율론 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신앙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참선, 염불,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윤리, 도덕적 측면이 부각된 율장이 존재합니다. 불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율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계 중 첫번째인 살생금지도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어느 성인도 모든 생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말한 분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불교는 포교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타종교는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며 전쟁을 일으키죠.

이어 오계에서는 내가 내 몸과 재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훔치지 말고 베풀어 보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사음하지 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도 합니다. 2천 5백년전부터 부처님은 음주단속을 하신 것입니다. 술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로 인해 내 마음의 지혜종자가 없어지고 술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율장 다음으로 논장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가 개인의 길흉화복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니라 단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모든 일이 생성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론이죠. 〈화엄경〉의 근본이치는 일체가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몸과 우주는 둘이 아니라 하나

말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나요? 만약 그렇다면 시체도 귀가 있으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덥다, 춥다 느끼는 것 모두 전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이 몸뚱이는 그날부터 송장입니다. 이처럼 세계도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셨기 때문에 피, 물, 침이 땀이 생기는 것이고 음식을 먹었기에 육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우주공간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우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육체는 가짜 나이지만 마음자리는 몸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늙지도 젊지도 아니합니다. 불생불멸이라 하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닙니다. 소녀시절 마음이나 할머니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사없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은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자리 찾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찾으면 부처님이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수행을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주력, 사경을 하든 근본목표는 마음자리 찾는 것입니다.

중국에 조과선사는 불법을 묻는 백거이에게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고 답했습니다. 백거이는 실망했죠. 조과선사는 다시 말합니다. “열 살 먹은 아이가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백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요.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주일가…인류 행복 담긴 단어

부처님 가르침보다 위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중생의 생각은 온갖 생명이 따로 있다는데서 머물지만 부처님은 일체 생명은 하나라고 말하십니다. 동해는 하나지만 그 속에는 파도가 수없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합니다. 만약 파도가 다 떠나버리면 바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파도와 저 파도가 따로 있다 생각하면 거기서 차별, 분열, 갈등, 시비, 논쟁, 전쟁이 생깁니다. 바다가 파도요 파도가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일가(一家), 한 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내 우주, 네 우주 따로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우주가 내 집입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아무리 호흡한다해도 누구도 왜 공기를 마시느냐 타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디든 마음 내키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주가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요. 길 위에 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보기 싫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와 우주는 둘이 아닌 하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이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이 같고 나와 한 몸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은 물론 전쟁, 다툼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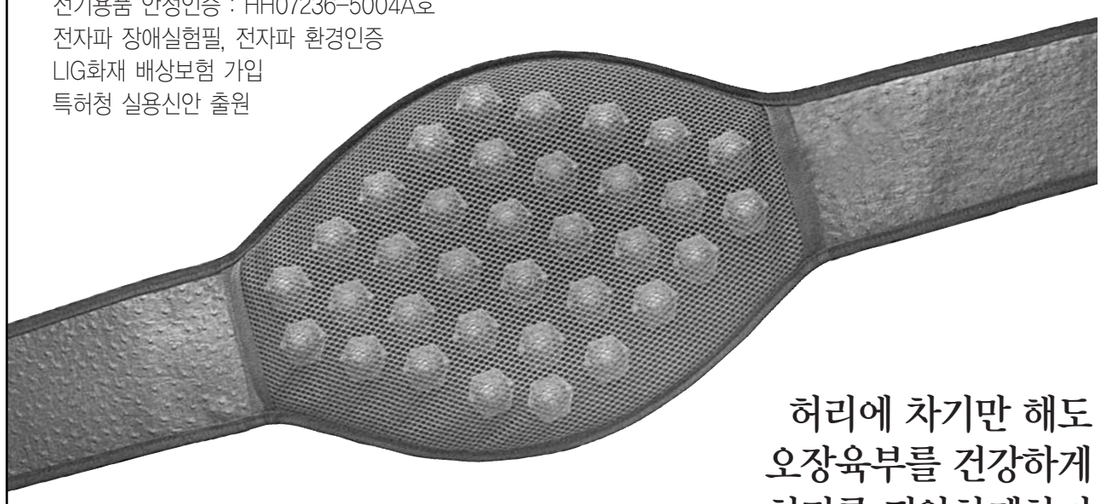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인도철학’ 50년 학문업적 돌아보다

인도철학회, 동국대 인철과 개설 50년 맞아 학술세미나 열어

50년 전 근대불교학의 연구가 막 시작될 무렵, 그 원류인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생소할 뿐이었다. 다양한 인도의 철학을 연구하는 이 분야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인도철학과’와 함께 그 뿌리를 내렸다. 1964년 설립된 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종래 한문문헌을 바탕으로 한 불교연구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인도철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가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한국 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계 원로학자들과 신진학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승석 인도철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김선근 동국대 이사가 축사를 하며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기조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이호근 강릉원주대 교수 및 주명철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정호영 충북대 교수의 ‘불연(不然) 이기영 선생에 대한 회상’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원의범 교수의 업적과 불교논리학’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성: 향운(香雲) 정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이기영 · 원의범 등 학자 사상 조명

태혁 박사’ △황용식 박사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의 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인도철학의 성립과 하라탄잔의 역할’ 등 초기 인도철학을 개척한 학자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인도철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담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조명되는 원로학자들은 국내 인도철학계의 1세대들로 이기영 교수는 불교의 원의(原義)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인도 사상 전반에 접근했으며, 정태혁 교수는 요가 · 명상 · 밀교 등의 폭넓은 접근법을 통해 인도철학을 소개했다.고대 불교의 독보적 존재로서 활동했었다.



인도철학회는 한국불교계에 인도철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여는 계기가 된 동국대 인도철학과 설립 50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의 노력에 이어 학술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인도철학학회가 1988년에 창립됐다. 인도철학회는 교수 30명, 석 · 박사 과정의 전공자 60명, 인터넷 회원 4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두 번의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인도철학’도 발행중이다.

정승석 인도철학회장은 “동국대에 인도철학과가 신설된 지 50주년을 맞아 인도철학회는 지난 50년을 돌이켜보고 향후 인도철학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에서는 50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선학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동시에 후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깨달음’ 수행의 목표인가? 과정인가?

밝은사람들연구소, 11월 29일 ‘깨달음’ 학술연찬회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일까? 목표일까?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불교사적인 재조명이 이뤄진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와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13회 학술연찬회를 연다.

이날 학술연찬회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는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각각 조명한다.

기조강연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이 맡는다. 수불 스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심전심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분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는 법 등을 설할 예정이다.

수불 스님은 조계종 대표 참선 수행처인 안국선원 선원장과 동국대 국세선센터 센터장을 맡아 간화선 대중화와 선수행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초기불교),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선불교),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깨달아 감과 깨달음 그리고 깨달아 마침’(불교학), 성해영 서울대 교수의 ‘깨달음 체험과 완성의 의미’(비교종교학), 윤호균 가톨릭대 교수의 ‘온마음 상담과 불교적 성찰’(상담심리학)이 발표된다.

특히 윤호균 교수는 한국 불교상담심리의 1세대로서 2000년대 들어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을 시도해 온 이다. 윤 교수는 한국형 상담의 발달 이면에 불교의 연기론적 관점이 있음을 제시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불교수행의 과정으로서의 깨달음과 궁극으로서의 깨달음의 시대별 의미를 살펴봄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최근에 연구자료 또한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연찬회 발표논문은 모아져 12월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운주사)로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사고본 일제 강탈 ‘재확인’

종걸 스님, 입수한 석존사리탑찬앙회 취지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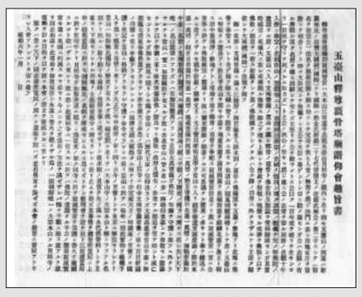
2006년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의 일제 침탈을 재확인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최근 경매를 통해 입수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과 ‘발기인 명단’ 등을 본지에 공개했다.

취지서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강탈 경위에 대해 ‘1914년, 정부(총독부)의 명(命)에 의해 동경으로 이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은 〈월정사 사적기〉에도 그대로 기록돼 있다.

〈월정사 사적기〉에 의하면 “1914년 3월 3일, 총독부 소속 관원 및 평창군 서무주임 오케구치(桶口) 그리고 고용원 조병선(趙秉璇) 등이 와서 본사(월정사)에 머무르며 사고와 선원보각에 있던 사책(史冊) 150 짐을 강릉군 주문진으로 운반하여 동경제국대학으로 직행시켰다. 그때 간평리의 다섯 동민이 동원됐는데, 3일에 시작하여 11일에 역사(役事)를 끝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종걸 스님은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 취지문’.

1914년 총독부 命으로 동경 이송
진신사리탑 정비 역사도 확인 의미
한암 스님부터 당시 유명 인사들
진신사리탑 정비 불사 나서 ‘눈길’

사의 인근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주문진 선착장까지 등짐과 달구지로 운반한 뒤 배로 실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 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혜문 스님은 “환수 당시 발견됐다면 일제 강탈의 주요한 증거가 됐을 것”이라며 “이를 재확인하는 면에서는 서지학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 변화 양상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이 취지서의 큰 의미이다. 취지서에 따르면 ‘석존정골사리탑묘찬앙회’는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오대산 월정사 중대(사자암)에 모셔진 진신사리탑을 정비하기 위해 1932년 1월 결성된 단체이다. 찬앙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는 월정사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찬앙회취지서는 본 회의 취지(趣旨), 규약, 발기인, 찬성자 명단, 역원(役員,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석전은 발기인에 ‘교정 박한영’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발기인은 교정 방한암 외 53인, 역원은 회장에 중추원부의장 후작 박영효, 법주에 교정 방한암, 평의원에 용주사 주지 강대련 등 총 45인이다.

취지서 찬성자는 조선총독 자작 재등실(齋藤實)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육당 최남선, 중추원 참의 남작 박기양, 평남지사 원전관(園田寬) 등 138인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에서 부터 정?재계, 학계, 언론계, 불교계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 불복장 의식’ 조명 첫 학술대회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찰에서 비밀리에 행해저온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을 조명하는 첫 학술행사가 열린다.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1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최학 불교문화재연구소 미술연구팀장의 ‘전통 불복방의식 및 점안의식의 설행’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의 ‘중국 불상의 성물 봉안’, △정은우 동아대 교수의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미등 스님의 ‘불복장 의식의 의미와 현대적 가치’가 발표된다 이어 정은우 교수를 좌장으로 ‘불교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복장 의식과 점안의식의 의미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다양한 시각으로 ‘대장경의 모든 것’ 조명

티벳대장경역경원, ‘세계 대장경 역경’ 학술대회 개최

전세계에 분포된 각국의 대장경을 역경하는 과정을 살피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11월 28~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여는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장경 역경’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의 특징은 세계 각국이 대장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첫 국제학술대회라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티베트, 스리랑카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조연설은 티베트 티베트학 중앙대학 총장 게셰 나왕 삼뗀 스님과 불교경전번역연구원장 정우 스님이 진행한다.

이어 △오가와 이치죠 前일본 오타니대학장의 ‘신국역대장경의 제문제’ △빼빠도제 티베트학 중앙대학 교수의 ‘해외에서의 티베트대장경 역경 사례’ △담마프렌즈 담마끼띠 스님의 ‘스리랑카에서의 삼장 보존과 현대화 과정’ △박종린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의 ‘한국에서의 고려대장경 번역’ 등이 발표된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IJBTC’ 23집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최근 불교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23집을 펴냈다.

이번 호에는 △Buddhist and Confucian Attitudes toward Life: A Comparative Study(GuangX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fold Training of Buddhism and the Three Stages of Resurrection of the Unification Church(JaeYoung Lee) △Dialogue between Buddhism and Won-Buddh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Won-Buddhisms Buddhist Reformation(YongSang Won)

‘IJBTC’(편집위원장 김용표)는 2002년 7월 창립된 이후 매년 2회 발간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로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 및 학술기관 150여 곳에 발송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전북불교 희망의 씨 뿌리는데 힘모으자”

대중공사 ‘붓다로 살자와 전북불교’ 금산사서 열려

전북지역 불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중공사가 열렸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와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1월 9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금산사 교구 대중공사– 붓다로 살자와 전북불교’를 개최했다.

도법스님과 성우 스님, 결사총괄본부장 덕산스님을 비롯해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신행단체 관계자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 김성권 전북불교청년회장, 이상봉 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지월 스님은 ‘전북불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불교의 현황을 통계로 분석하고 포교정책의 부재, 도심 포교당 개원 및 포교인력 발굴, 신행 프로그램의 개발, 포교인프라 부족 해결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지월 스님이 발표한 전북지역 종교인구 분포에 따르면 불교는 1985년 8.1%(179,019명)에서 2005년 12.8%(227,364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동안 가톨릭은 1985년 3.5%(77,426명)에서 11.4%(202,918명)으로, 원불교는 1.3%(28,352명)에서 2.3%(41,596명)으로 늘었다.

현황 짚는 지역 대중공사로 첫 개최

영유아 · 청소년 포교 미흡 드러나

보육 지원, 어린이법회 활성화 제시

특히 9세 이하 종교에서 개신교가 29.4%로 불교의 6.4%에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지월 스님은 이와 같은 지역불교 현실을 감안해 전북지역의 대중공사는 의미가 크다고 진단하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 불교계 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될때 전북불교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 지월 스님은 ‘전북불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불교의 현황을 통계로 분석 신행 프로그램의 개발, 포교인프라 부족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성권 전북불교청년회장은 ‘불교의 지역사회 역할’, 이상봉 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왜 붓다로 살자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에서 스님들과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포교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롯해 포교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안 등 다양한 입장이 개진됐다.

성우 스님은 “취임 후 교구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포교 노력에 다소 아쉬운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포교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포교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교구별로 이러한 대중공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전북지역의 금산사, 선운사 양본사가 전북의 희망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스님은 “전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대중공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단풍축제 및 가사불사 회향법회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에서 단풍축제와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1월 7일 백양사 가사불사회향법회에 이어 8일 광주MBC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특별전시회로 방장 지선스님의 ‘오백나한전’으로 이어졌다.

가사불사회향법회에서는 백양사 본·말사 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단불공, 가사점안식, 가사이운, 퇴수(착복식), 법문이 진행됐다.

율주 혜권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가사란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을 상징하는 법복으로 경전에 의하면 무상복전(無上福田)이라고 한다”며 “오늘 가사불사에 동참한 모든 신도분들이 이와같은 복전으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든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현숙, 추가열, 오승근, 박구윤, 박강수, 금잔디 등이 출연했다. 또 별도행사로 방장 지선 스님이 10여개 국가에서 수집한 달마석과 사유석 등을 수석 550여 점이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군산 성흥사는 11월 12일 군산시 성산면에 새롭게 마련한 약 8,200㎡의 대지에 들어설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논산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 진안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송월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웅전 건립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성흥사를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형태로 건립될 성흥사 대웅전은 내년 3월까지 공사와 도량 정비를 마치고 낙성될 예정이다.



한편, 성흥사는 앞으로 시민선방 건립, 종각등의 불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서부지역의 전법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직장 내 다문화 차별, 한국말로 풀어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언어소통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한국사회를 보다 이해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불교계 기관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1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근로자 여성이 함께 하는 ‘제1회 외국인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9개국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본선에는 20명이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말하기 주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담, 재미있는 사연, 직장생활이야기에 대한 3가지로 3분 이내 발표로 진행됐다.

시상은 캄보디아에서 온 산넷이 대상을 수상 부상으로 노트북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에는 여성근로자인 태국 싹송 게수, 우수상에는 네팔 엄니스와 인도네시아 운퉁, 네팔 뉴파네씨가 수상했다. 그외 참가상으로 15명이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산넷은 캄보디아와 한국의 생활에 대해 “프롬펜의 사학브러티바카 대학교 출신이며 한국에서 래핑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캄보디아로 언젠가 돌아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초대 손님으로 인도네시아 보컬그룹 ‘모기’와 해뜨는복지센터 다문화어린이 난타, 네팔·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기타공연 등이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진안 4대종단 지도자 이웃돕기 나서



전북 진안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단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센터, 사회봉사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약 3,000kg을 담갔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나누우리 자원봉사단 20여명은 11월 10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동참해 관내 3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나누우리 탑사 봉사단들이 한데 모여서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말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나누우리 총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종단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데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다” 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는 이날 약 3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30세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이와 별도로 각 세대별로 자비의 쌀 40kg을 전달했다.

한편 김장김치 담그기에 앞서 이날 진안군청에서 열린 자원봉사대회에서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종교를 초월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벼수매현장 자원봉사활동

스님들이 추수를 맞아 수고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는 11월 5일과 13일 쌀 수매현장에서 구례군 농민회와 함께 나락가마니를 옮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엄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구례군농민회와 통일쌀 공동경작,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 27일 통일쌀 공동경작 벼베기에 동참해 경작에 참여한 화엄사는 노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이 벼 수매시 나락 가마니를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구례군 농민회와 공동으로 산동면 벼 수매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한신앙 융성지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조선시대 나한신앙의 융성지로 꼽히는 무등산에서 ‘오백나한대재’가 봉행됐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10일 오백나한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 무등산에는 증심사를 비롯한 화순 만연사 등에 다양한 나한신앙 관련 문화재들이 많다. 이날 대재가 열린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제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 복원한 것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나한전 만은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신앙의 현대적 해석은 나눔의 실천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나한신앙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五戒 지키면 학교생활이 즐거워요”

오계

금정중학교 수계법회 40년째…불교인재 양성 산실

금정총림 범어사 설립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는 올해로 40회를 맞은 수계법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생활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젊은 불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나란다축제 교리경시대회 대상 수상자 배출 등 불자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는 금정중학교 불교 교육 과정을 살펴봤다.

10월 28일 학내 명정관에서 봉행된 2014년 수계식에는 1학년 전교생을 포함 총 180명이 마정수기를 받았다. 이로써 금정중학교에서 계를 받은 학생은 총 1만 2847명이 됐다. 이날 전계대화상에는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홍선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대원사 주지 오산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장 스님, 범어사 율원 환응 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나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처음으로 계를 받은 김용호 학생(14)은 “학교에서 봉행된 수계식으로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금정중학교 수계법회는 1975년 광덕 스님을 계사로 첫 봉행됐다. 수계식이 40년 동안 금정중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의 오계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청소년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금정중학교만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불살생은 살생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학우에게 폭력 및 왕따에 대한 부당성을 일러주고 불망어는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욕설과 험담에 대한 자제심을 길러준다. 또한 불사음을 당부함으로써 단정한 몸가짐을 일러준다. 불음주는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며 불투도는 죄책감 없이

75년 광덕 스님 계사로 첫 실시
수계자 1만 3천여 명 배출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 운영
나란다축제 대상 수상 등 쾌거

흔히 행하는 절도를 경계하게끔 한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교재를 주인의 동의 없이 서로 들고가는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지도교사들이 당부하는 계목이기도 하다. 또한, 수계식은 불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다.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수계식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으로서 알맞은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다짐한다.



금정중학교는 지난 40년 간 총 1만 2847명의 수계자 배출 등 불교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혼자서 지키기 어려운 계목을 학우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속함으로써 결의를 다질 수 있다.

수계식 외에도 금정중학교 곳곳에는 생활불교가 스며들어 있다. 학내 반야당에서의 자발적인 아침 예불, 이석언 지도법사와 함께하는 차담시간 등이 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108배 및 부모은중경 사경, 촛불명상 등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금정중 학생들은 예선과 합숙을 거칠 만큼 교리경시대회 준비 · 출전에 열정적이다. 올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제6회 나란다 축제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는 대상 1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금정중 학생들이 경시대회의 모든 상을 휩쓰는 성과를 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비불자 학생들에게도 금정중학교의 불교 교육은 호응이 높다. 금정중 내 부산 파라미타와 보이스카웃 불교연맹 범어수효단은 템플스테이, 캠프 등으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리인 해오름연극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연극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향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자타이행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금정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인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 다라니경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2호인 조선시대 석조여래좌상을 보존하고 있어 부산불교 역사의 증명이기도 하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서도 달라이라마 방한 촉구

11월 10일 부산 KBS홀서



11월 10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부산지역 선포식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부산지역 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목종)는 11월 10일 부산 KBS홀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와 전법도량, 신행단체 및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선포식에서는 부산지역집행위원장 목종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부산지역준비위원장 심산 스님의 환영사,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의 격려사로 진행됐다. 이어 강수대 부산지역포교사단장과 신정옥 전법도량 총무의 결의문 낭독으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그동안 서명 받은 서명지를 불단에 봉헌하고 사홍서원으로 선포식을 마무리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정목 스님의 진행으로 금강스님, 마가 스님, 월호 스님이 출연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지역집행위원장 목종 스님은 “시대적 아픔을 돌아보고 생명존중과 자비의 상징인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성사돼야 한다”며 “종교와 정치를 초월한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여 국민적 고통을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이 땅에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원력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선포식은 지난 7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작, 9월 14일 울산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됐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범국민적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여론을 확산 2016년에 방한을 성사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청도 운문사 보살계수계법회 봉행

사부대중 140여 명 참석



운문사 보살계 수계법회

청도 운문사는 11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는 주지 일진 스님을 계사법사로 사부대중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엄반 4학년 학인스님들과 운문사 산내 암자 사리암의 봉사자 및 운문유치원 담당 선생님 등이 수계를 받았다.

일진 스님은 “계는 악업을 소멸하고 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사윤회와 해탈을 벗어나는 지름길과 터전을 닦고자 갈구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넉넉한 보시행을 하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화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만등불사 및 청정음악회도



봉화 축서사 청정음악회 장면

제 3회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및 만등불사와 청정음악회가 11월 8일 경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율사 전계대화상 연담 종진 스님, 갈마아사리 금곡 무여 스님, 교수아사리 태허 무관 스님 등이 참여했다.

만등불사와 청정음악회에는 동국대 정각원 음악법사이자 동국대음악원 찬불가 힐링스쿨 강사 정행 스님이 공연했다.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은 “보살계 수계법회와 만등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바란다. 보살계는 불자라면 누구나 받아야할 의식이다. 계율은 악을 경계하고 선을 가르치는 불교도덕으로 행위 기준이며 생활의 규범이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교적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계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천성산 습지 특성 살린 산림복원 절실”

11월 12일 천성산 관련 토론회… 지율 스님 등 발제

양산시 산림공원과, 내원사 그리고 천성산의 친구들은 11월 12일 양산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천성산 산림복원 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원대 자연지리학과 오경섭 명예교수는 “천성산은 세계가 주목할 고원 습지이며 이런 특성에 맞게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율 스님은 “양산시가 생태고리를 무시하고 산림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한다”며 “그동안 군부대가 사용했던 땅 3분의 2가 내원사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으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멈추고 습지가 자연 그대로 복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더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산림공원과 김종열 과장은 복원 방향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습지로 확인 된 부분은 훼손할 생각이 없고 군부대 철수 후 남은 폐타이어, 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원사의 의견을 듣고 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산시는 문화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천성산 산림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성산 산림복원 지역은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40여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사업 면적 9.6ha 중 내원사의 사유지가 52%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양산시는 토사면 고르기, 노면 고르기 등의 토지 공사와 구조물 공사, 식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 차인연합회 7대 회장 보혜 스님

제1회 청량차 문화 축제로 취임식 대체… 장학금 전달

“혼탁한 이 시대를 치료하는 맑고 향기로운 차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차인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부산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스님은 11월 9일 제1회 청량차 문화 축제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한국청옥문학예술인협회에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부산 차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예술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청량사에서 차 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지역 불교 문인들과 차인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고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혜 스님은 부산시인협회 이사, 부산 차인대학 총장, 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 및 기장 불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도 문화예술장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문화예술장학회는 2년 전부터 부산 기장 불교연합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장학금 및 예술인들의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문화예술장학회는 이날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에 장학금 5백만원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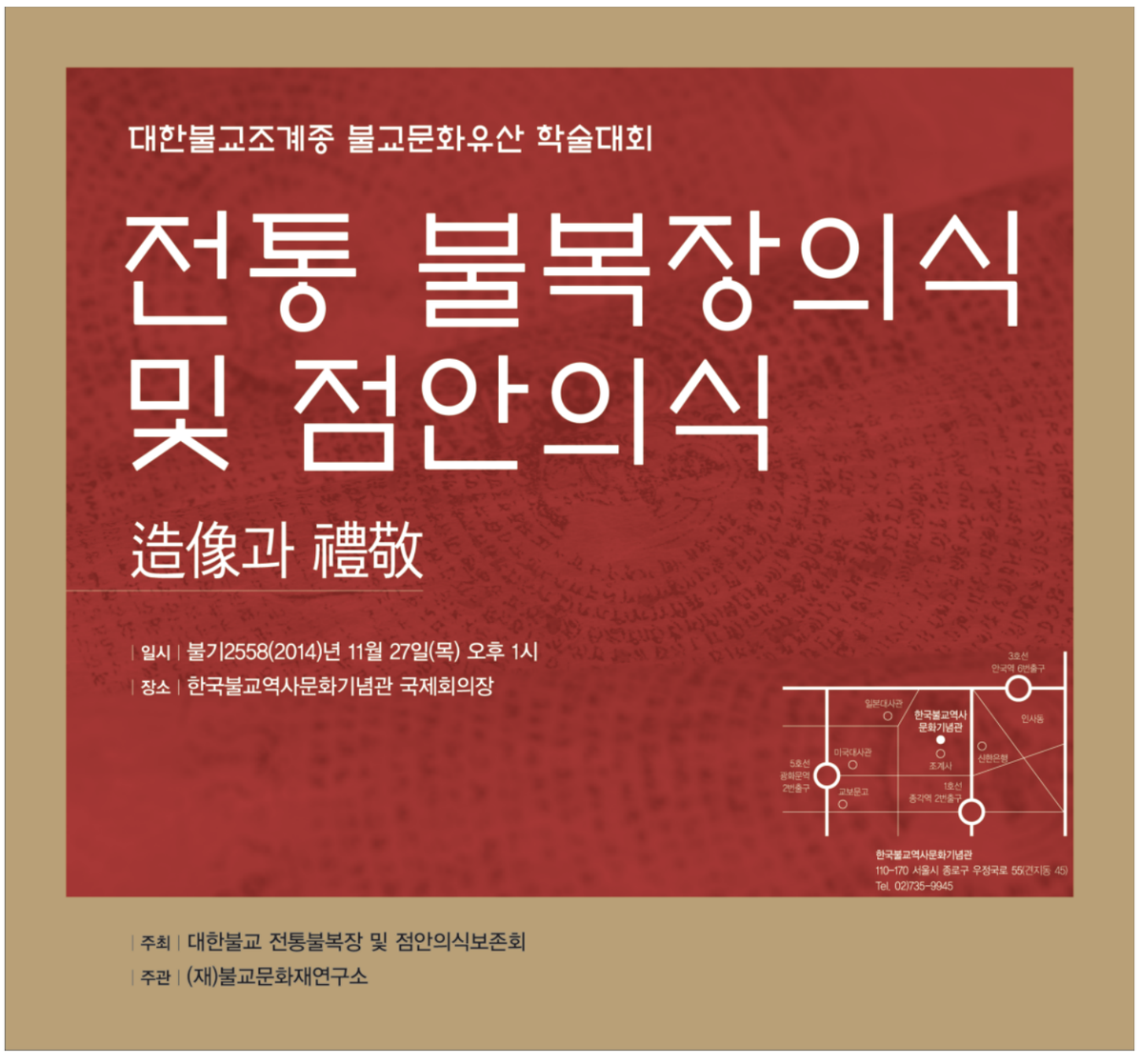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동명대-대만 불광대 MOU 체결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 불교문화콘테츠학과와 대만 불광대(총장 양조상)불교학과는 11월 12일 동명대 경영관에서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2+2 복수 학위제’를 시행한다.

‘2+2 복수 학위제’는 동명대서 2년 수학 후 대만 불광대에서 나머지 2년 동안 학업을 하면 두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학업 중 학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명대 설동근 총장, 박재현 불교문화콘텐츠학과장, 장재인 교수 및 대만 불광대 양조상 총장, 석영동 불교연구학과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가했다.

하성기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온 산 붉은 색동옷, 도량도 곱게 물드네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서

③ 순창 강천사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순창 강천사의 대웅전. 내장사와 백양사 단풍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곱다. 또한 강천사는 고추장과 더불어 순창의 2대 자랑거리로 꼽힌다.



강천사 가는 길은 모래길로 걷는 재미가 있다.



강천산의 두봉우리를 연결한 구름다리 모습

기봉, 괴석 어우러진 단풍 명소

전북 순창 강천사의 가을 단풍은 내장사, 백양사 단풍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곱다.

단풍 중에서도 척박한 땅에서 자란 단풍이 아름답다 했는데 바위틈에 힘겹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은 강천산의 단풍도 바위틈에서 자라 그런지 붉은 빛이 뚜렷하다.

강천산(584m)은 고추장과 함께 순창의 2대 자랑거리다. 순창읍에서 10km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이지만 도처에 기봉이 솟아 있고 수많은 계곡과 기암괴석, 봉우리가 첩첩하게 어우러져있다.

계절마다 다른 산새를 볼 수 있고 크고 작은 수많은 바위 사이로 폭포를 만날 수 있어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강천사를 가려면 아침 일찍 길을 나서야 한다. 아침이슬을 가득 머금고 있는 단풍의 진면목을 보려면 아침 햇살이 퍼지기전이 제격이라서다. 강천산은 매표소를 지나면서 자동차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칫 관광객이라도 밀려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2km 정도 아래 도로에 주차하고 걸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매표소를 지나면 이런 수고로움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산이 높지 않으니 동네 뒷산을 산책하듯 걷다보면 계곡의 맑은 물과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다.

강천사 가는 길은 고운 모래를 깔아놓아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다. 길을 걷다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자면 피라미의 발 간지럽힘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가는 길 중간 중간에 만나는 폭포를 만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가장 큰 병풍폭포는 자연폭포지만 물을 인공으로 끌어올려 사시사철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 4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으로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병풍폭포를 지나 초록빛 메타세쿼이아 터널을 지나면 강천문을 지나 바로 강천사가 시야에 들어온다.

승려 600명의 대찰 흔적 곳곳에

강천사는 신라 51대 진성여왕 원년(887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강천사는 한때 승려가 500~600여 명에 이르고, 암자도 12개나 있을 정도로 크게 번창했던 절이었다.

이후 고려 충숙왕 3년(1316년) 덕현 선사가 오층석탑을 세우고 중창한 이후 번창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임진란 때(1596년) 사찰 당우와 연대암을 비롯한 12개 암자가 소실되었다 한다.

척박한 땅에 자라 더욱 고운 색채
순창의 2대 자랑거리 강천산 풍경
신라 887년 창건… 암자 12채 있던 대찰
용이 승천하는 지세로 용천사라고도 불려

페허가 된 지 8년이 지난 선조 37년(1604년) 소요대사가 다시 사찰을 재건했지만 구한말 강천산이 동학혁명군의 토벌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각들도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본거지로 사용되면서 토벌대와의 치열한 교전으로 모두 소실되고 현재 건물들은 1959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친 복원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5층 석탑, 1316년 중창때 건립

지방유형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천사 5층석탑은 충숙왕3년(1316)에 덕현선사가 절을 중창할 때 세운 것이라고 하며, 현재2,3,4층의 옥개석이 부서진 채 대웅전 앞에 자리하고 있다.

강천사는 원래 복천사 혹은 주변의 산세가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할 형상이라 하여 용천사라고 불렀으나, 선조 때 성리학자이며 조선 8대 문장가로 알려진 구봉 송익필(1534-1599) 선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숙(宿) 강천사' 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것이 연유돼 강천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한다.

강천사를 창건한 도선국사의 "머리와 수염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사찰이 발전하고 도량이 정화된다"는 말에 따라 예부터 비구승보다 비구니스님들이 많이 머물렀다고 전한다. 원래 강천산 일대가 모두 강천사의 소유였지만 광복이후 스님들의 사업자금으로 강천사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면서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고 현재 강천사 사찰 부지만 불하받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강천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구름다리는 강천사와 함께 또다른 명물로 부각되고 있다. 1980년 완공된 구름다리는 강천산의 두 봉우리를 연결한 다리로 높이 40m, 길이 76m에 달한다.

강천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변 가볼만 한 곳

▲순창 전통고추장 마을

순창읍 서쪽 끝에 자리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은 순창의 얼굴이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한 순창고추장의 명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류박물관과 장류 체험관도 있어 맛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063)653-0703

▲순창 메타세쿼이아길

793번 2차선 지방도 양옆으로 늘어서 봄부터 초가을까지 녹색 터널을 만들어 준다. 숲길아래 맥문동 꽃이 피는 초여름과 황금빛 단풍이 드는 가을 풍광이 압권이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보다 훨씬 길고 아름답다. 순창 전통민속마을을 지나 강천산을 향하는 길에 만날 수 있다.

▲구암사

구암사는 원래 624년(백제무왕 35년) 숭제법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노령산맥의 주봉 영구산(현재의 도집산 해발720m) 중턱에 위치한다. 1392년 학운선사(學雲禪師)가 중창하였다. 구암사라 함은 사찰 동편 지점에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어 그 이름을 따라 구암사라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예부터 유명한 대종사들이 주석하였던 곳으로 조선 영조때 화엄종주 설파대사(雪波大師)가 거주한 곳이며, 이로부터 100여년간 우리나라 불교계의 화엄종맥의 법계가 계승된 사찰이다



순창 메타세쿼이아길

조선 헌종때는 유명한 명유인 노사 기정진 (奇正鎭)선생과 백파스님,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등이 이곳에서 동거하면서 친교 수학하였다. 백파대종사(白派大宗師)의 설법으로 입산수도한 승려가 각처에서 운집하여 단문중흥조라 불렀고 그 법맥이 선운사와 내장사, 백양사에 전법되었다.

구한말 양제(良薺)田愚선생이 설유(雪乳)스님과 동거하며 교리해석 등을 연구하였으며 대한불교의 지도자인 영호 박한영 스님이 이곳에서 불학을 닦으며 근세 불교개혁을 위해 연구를 하였던 역사적 산실이기도 하다. (063)653-7641

▲만일사

384년(백제 침류왕 원년)에 창건 되었다고 하나,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673년(백제무왕)대 건립되었다고 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조선 초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 나옹선사와 그의 제자인 무학대사에 의해 중창됐다.

1596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지홍대사와 원충대사가 다시 중창하였으나 6 · 25동란으로 완전 소실됐다. 1954년 청신여사 김인숙의 시주와 그의 신도들의 도움으로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채를 건립했다.

만일사라는 명칭은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자 만일동안 이곳에서 기도를 하였다는데서 유래됐다. 원래 무학 대사가 중창한 만일사는 현사찰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200여 미터 올라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나 1954년 중건할 때 현 위치로 옮겨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063)653-5283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천혜 협곡에 그려진 佛畵의 파노라마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④ 안서 유림굴

허허벌판에 차를 세워 내렸다. 조금을 걸어가니 날카로운 협곡이 눈에 들어온다. 깊게 패어진 골짜기 사이로 기암괴석의 절벽이 펼쳐진다. 구석구석 조그마하게 석굴들의 존재가 보인다. 협곡의 이름은 '만불협(萬佛峽)'. 만불이 존재하는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곳에 '유림굴(榆林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림굴은 감숙성 안서현에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돈황의 막고굴, 서천불동과 함께 실크로드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석굴로 평가받고 있다.

하서주랑(河西走廊)의 서부에 있는 유림굴은 그 위치적으로도 중요하다. 하서주랑이란 동쪽 오령(烏嶺)에서 시작해 서쪽 옥문관(玉門關)에 이르는 약 900㎞ 구간의 좁고 긴 평지다. 서한(西漢)시기 장건(張騫)이 서역을 개척한 이후 하서주랑은 실크로드상에서 중원과 서역을 연결하는 육로 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실크로드 길목에 있는 유림굴도 구법의 한 루트였을 것으로 보인다.

맥적산과 병령사도 그랬듯이 중국의 석굴은 강이나 하천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절벽 위의 석굴에서 수행과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원(水源)은 필수였기 때문이다. 안서의 유림굴도 기련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내려 생성된 유림 하천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됐다.

언제부터 이 협곡에 석굴들이 조성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석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당나라 시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를 이어 송 · 위구르 · 서하 · 원 시기까지 중수와 조성이 반복됐다. 이후 청나라 시기에는 보수작업이 이뤄졌는데 이 때문에 많은 소조불상의 원형이 훼손됐다.

유림굴은 동서의 양 협곡 사이의 절벽에 조성돼 있다. 동쪽 절벽에는 30여개의 굴이 서쪽 절벽에는 11개, 모두 40여 개의 굴이 들어서 있다. 석굴에는 소조 불상 100여 구와 불화가 5,650㎡에 걸쳐 그려져 있다. 현재는 동쪽 절벽의 감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단이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됐다. 3층에 걸친 감실 앞에 콘크리트로 계단과 난간을 만들고 출입문을 설치해 관람객이 임의대로 보지 못하도록 했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관림시에만 문을 열어준다. 또한 입구의 벽면이 무른 것과 달리 굴의 외벽 표면에 경화 처리해 훼손을 막고 있다. 이런 유적 보존과 운영 방식은 돈황과 투르판의 석굴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앞서 답사한 맥적산과 병령사 석굴은 불상 중심이었다면 유림굴은 불화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청나라 시기 대규모 보수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굴의 소조불상들이 대부분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형상이 둔중하고 색채 역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림굴에 있는 불교 예술의 주요 발전 시기를 티베트 점령기, 조씨 귀의군 정권시기 등을 꼽는다. 특히 조씨 일가의 정권 시기에 유림굴은 집중적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해 최태만 서울산업대 조형예술과 교수는 '유림 제25굴의 도상 고찰'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티베트로부터 이 지역을 수복해 당의 조정에 바친 장의조에 이어 조씨 일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에 굴착되거나 중수한 굴이 유림굴에 28개가 있다. 막고굴까지 합치면 70여 개에 이른다"면서 "이런 까닭에 조시 귀의군 정권하에 특별히 불교문화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조씨 가문은 별도의 화원(畵院)을 둬 유림굴과 막고굴 벽화는 물론 비단 그림, 판화, 사경 등을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唐부터 淸까지 꾸준히 조성돼
曹氏 귀의군 시기에 집중 발전
동서 절벽에 40여 석굴 존재
조성 양식, 돈황 천불동과 유사

5000여㎡ 걸쳐 펼쳐진 불화들
조성 시기 정치 · 문화 사료로 중요
수월관음 등 미적 가치도 높아

당대(唐代) 장의조부터 조씨 귀의군 시기에 집중적인 숭불 정책은 돈황 등 지역에 불교문화의 융성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유림굴과 돈황 막고굴은 그 조성 형식이 유사하다.

석굴 형식으로 보면 △중심탑주형(中心塔柱形, 주실의 중앙에 방형의 탑주가 있는 형식) △중심불단형(中心佛壇形, 주실을 평면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파들어간 석굴 형식) △대상형(大像形, 평면 또는 타원형의 굴)이 주되다. 이는 유림과 돈황 막고굴에 모두 나타는 것들이다.

유림굴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11굴이다. 청대에 최종적으로 개착한 굴로 서하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18나한상의 생동감이 인상적이다.

11굴 옆 12굴은 5대 10국시기 조성됐지만 유림굴 중 벽화가 가장 보존이 잘돼 있다고 평가 받는다. 천장에는 천불을 묘사한 불화가 있는 데 막고굴의 천불 불화보다 색채의 탈락이 훨씬 덜하다. 굴 남쪽 벽 아랫부분을 보면 가족들이 나들이를 하는 '출행도(出行圖)'가 있다. 이는 200년 동안 이 지역 지배했던 모용(慕容) 가문의 모습으로 알려졌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표지판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유명 석굴은 25굴과 2굴이다.

특히 25굴은 티베트 점령기 당시 벽화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보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굴 주실 남벽에는 '관무량수경변상도'가 북벽에는 '미륵경변상도', 동벽의 '팔대보살만다라경변상' 등의 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당시 예술 수준과 건축, 의복, 음악, 풍속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호굴은 서하 시기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다. 남측과 북측에는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다. 사진으로 보여준 북측 수월관음은 비스듬히 기대어 조각달을 보고 있다. 이 그림들은 당나라 때 화가 주방(周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으로 봤지만 '고려 수월관음도의 원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체가 매우 유려하다.

유림굴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6굴이었다. 굴 입구부터 화엄법계(華嚴法界)란 현판이 걸려있었다. 이곳에는 유림굴에서 가장 큰 미륵대불이 있었다. 높이만 24.7m에 이른다. 동행한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6굴은 규모가 커서 예불굴로도 이용됐고, 그 만큼 훼손이 많았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당대(唐代)이다. 이 시대 미륵불은 측천무후가 많이 조성했는데 본인이 황제가 되기 위한 발원을 많이 담았다고 한다. 또한 불상이 여성성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한 것도 측천무후 시기부터라고 유 연구원은 설명했다.

6굴에서 잠시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단 스님들이 '미륵존불'을 염송하고 있다. 미륵 부처는 미래에 오실 부처이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중생은 미륵의 도래를 기원한다. 이는 온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험준한 구법의 길에 올랐던 구법승들도 불국정토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걸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오늘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안서 유림굴 25굴 남측에 그려진 '관무량수경변상도'. 티베트 점령당시 그려진 것으로 원형 상태가 잘 보존돼 있는 작품이다.


3굴에 그려진 보현보살도. 서하시기의 작품이다.


안서 유림굴 전경. 협곡의 동서 절벽에 40여 개의 석굴이 있다.


2굴 북측에 그려진 수월관음도. 그림체가 매우 유려하다.

관음태교는 유대인 태교법 등 세계의 어떠한 태교법과도 차원이 다른 영혼체 중심 영재태교법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을 제안한다 – 3,40년 후면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세계를 제패하는 유대인

태교(胎敎)가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예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이 유태인의 태교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관음태교 교육개강식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또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자녀들의 영유아교육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비결이 태교와 영유아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유태인 태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1) 닛다 임신법

① 생리 첫 날부터 5일간, 생리가 끝난 후 7일간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간은 금욕기간입니다. ② 생리 시작후 12일째 밤이 되면 '미크바'라는 욕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은 대개 배란일 하루나 이틀전 정도로 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닛다 임신법은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해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계획 임신법입니다.

2) 태담(胎談)태교

유태인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때 부터 꾸준히 탈무드(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나 구약성서(토라)를 태아에게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도 지혜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태교를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며 랍비(유대교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신경쓴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관음태교의 우수성

그러나 아무리 유태인 태교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불교 고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유태인 태교법은 근본적으로 영혼체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행복과 불행의 원인인 업(業)과 과보에 대한 통찰이 없어 금생 한 생을 잘 살기 위한 육체 중심의 태중교육에 그칩니다. 그래서 출생 후의 지능 및 재능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태아의 본체인 영혼체의 존재와 업과 과보의 행복논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한 영혼체 중심의, 심성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인 태교법입니다. 또 유태인 태교법은 부모 중심의 자력태교로서 훌륭한 배우자나 태아영혼체와의 인연 선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업장소멸이 가능하지 않아 출생 후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중심의 타력태교법으로서 결혼전부터 태교가 시작되어 좋은 인연의 배우자와 태아영혼체와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태아의 업장소멸을 통해 미래의 불행을 소멸하거나 완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간절하게 소리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 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낙태(落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계10선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 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염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관음태교인재 10만명을 양성하자 – 3,40년 후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관음태교는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함께 갖춘 전인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국가와 인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인재양성 태교법입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재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유대민족이 태교와 영유아교육 등 교육을 통해 세계적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오늘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예술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음태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0만명 정도의 관음태교 인재를 양성한다면 향후 30~40년 후에는 지금의 유대인을 훨씬 능가하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8〉 지리산 천은사 극락보전

연꽃, 모란, 쌍학, 범자의 깊은 우물



천정에 두루 나타나는 문양을 결집했다. 연화, 모란, 선학, 범자문양이 저마다 아름답다. 연화는 꽃다발 묶음이라 독특하다. 내소사, 미황사, 대원사 등에서 비슷한 문양이 나타난다.



극락보전 천정장엄과 닫집.



아미타후불탱의 대표적인 명작 천은사 아미타후불탱 부분



사방포벽 위 장여에 장엄된 범자와 법당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수달형상.

아미타후불탱중 대표적인 명작

박물관마다 저마다의 대표적 명품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명품은 다빈치의 〈모나리자〉이고, 우피치미술관의 명품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며,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의 명품은 〈반가사유상〉일 것이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찰의 여러 아미타후불탱중 대표적인 명작을 들라면 단연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후불벽에 걸려있는 아미타후불탱이 손꼽힐 것이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이 20여년에 걸쳐 전국사찰의 불화조사를 완료하여 〈한국의 불화〉 40권을 펴낸 후,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발행한 〈한국의 불화 명품선집〉에서도 아미타후불탱의 대표명작으로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을 수록하고 있다. 산은 지리산이요, 고려 13세기 '남방제일선원' 은 천은사이고, 천은사의 명품은 아미타후불탱이다. 극락보전에 희유의 명작이 보장되어 있으니 천정장엄도 그에 걸맞게 두루 구색을 갖추었다.

〈천은사 법당 상량문〉 목판기록에 따르면 극락보전은 1774년 혜암선사가 남원부사의 도움을 받아 2년여에 걸쳐 중건한 18세기 건물이다. 아미타후불탱은 극락보전 중건을 완료한 무렵인 1776년에 금어 신암스님 등 13명의 화승이 그려 봉안하였다. 후불탱의 최상단은 범자 아홉자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팔대보살과 사천왕, 아라한이 둘러서있고, 하단에는 사리불이 법을 구하고 있는 도상이다. 불보살과 사천왕상에 방제를 마련해서 존명을 낱낱이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팔대보살은 밀교경전인 〈8대보살만다라경〉 등에서 근거하는 바, 천정에 8엽연화문을 장엄하고, 우물반자에 밀교적 범자종자불(梵字種字佛)을 새긴 것은 내부장엄의 일관된 상응으로 보여진다. 중앙천정에 8엽연화문의 한 가운데에 아미타불의 범자종자인 '흐리' 字가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것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이 둘러서있는 팔대보살도를 고도로 압축시킨 기호상징일 터이다.

불전-불상-후불탱-범자체계 연구절실

사찰장엄에서 범자장엄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티벳과 우리나라뿐이고, 직지사 대웅전이나 무위사 극락보전, 미황사 대웅보전, 봉정사 대웅전 등의 천정에서 천정전면, 혹은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범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상징체계일 것인데 고대범자에 대한 연구가 미약해서 상징전모를 알기에는 역부족이다. 불전-불상-후불탱-천정장엄 범자체계가 전란 등으로 혼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긴밀한 체계로 서로 상응하며 배치되어졌을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무위사 극락보전 천정에서 흐리字와 육자대명왕진언이 나타나는 바, 그 범자종자불은 아미타불과 협시불인 관음보살에 각각 상응해서 불전-불상-후불벽화-천정장엄이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소사, 미황사, 대원사 천정과 닮아

천은사 극락보전 천정은 문양의 섬세함과 뛰어난 구도처리, 탁월한 색감처리로 하나하나가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전체적 장엄문양은 서남해안지역의 내소사 대웅보전과 미황사 대웅보전, 대원사 극락전 등의 천정장엄과 닮은 데가 있다. 주요 문양이 연화문과 모란문, 선학(쌍학), 범자문으로 그 모티브가 동일하다. 극락보전 천정(天井)은 연꽃, 모란, 쌍학, 범자의 깊은 우물이다. 천은사 극락보전 천정에서는 연꽃 조형이 특히 관상학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연꽃은 연잎줄기와 함께 묶음 다발로 표현해서 이채롭다. 이같은 연꽃 묶음 양식의 표현은 통도사 응진전 빗반자에 벽화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문 사례다. 연꽃 묶음은 정물화처럼 매우 우아하며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묻어난다. 흰색의 초빛을 입히고 붉은 색으로 바림한 꽃잎이 옹기종기 모여 너울대는 듯 해서 어둠 너머의 촛불을 연상시킨다. 동여 맨 묶음에서 어딘가에 꽃을 올리는 마음의 의지가 엿보인다. 일종의 꽃다발이다. 그것은 부처님 전에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꽃을 헌화하는 꽃공양의 표징이다. 꽃묶음에서 마음의 순결함과 기쁨의 신심이 흐른다.

연화문에 아미타불 종자인 '흐리' 字
연꽃묶음 정물화처럼 현대적 우아미
쌍학문, 문관관복의 흉배문을 연상
수달, 기둥타고 물고기 물고 내려와

모란꽃은 씨방부분의 묘사가 눈길을 끈다. 모란이 활짝 피어 씨방부분이 노출되었는데 그 세부묘사에 세심한 주의를 쏟은 흔적이 엿보인다. 꽃 봉오리는 세 송이로 단순하지만, 크고 작음의 입체적 대소와 개화상태가 저마다 다른 시간적 차별성이 동시에 조화롭게 표현되었다. 꽃잎은 해안가의 코흐곡선처럼 율동적인 곡선으로 사실감 있게 훌륭하게 처리했고, 붉은 꽃잎의 그라데이션이 곡선의 율동과 함께 부드러움을 이끈다. 검은 바탕에 초록의 잎, 붉은 꽃잎이 색채의 선연함으로 부각되지만 실상은 다정하고 맑운 기운이 앞서 감지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도의 색채운영 능력 덕분이다. 모란의 채색기법은 내소사, 미황사 대웅전에서 보이는 기법과 아주 유사하다. 특히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장엄과는 우물반자에 내접하는 몽글몽글한 원형의 소란반자 틀까지도 흡사해서 시선을 끈다. 은해사 괘불과 산청 율곡사 괘불에서는 이같은 모란의 꽃다지들이 우화의 상서를 이루기도 하고, 진주 청곡사 괘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습에 세심하게 베풀어져 나타나기도 한다.

쌍학의 날개짓 태극구도의 美

천정장엄에 나타나는 선학(仙鶴)의 아름다운 율동에도 눈길이 오래 머문다. 선학은 단학과 쌍학의 형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날개를 편 선학의 형상은 초승달 모양 판박이로 우아하다. 흔히들 불로초라 부르는 영적인 꽃가지를 입에 물고 신령한 기운이 불꽃처럼 뻗치는 보주를 취하고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연상케 하는 보주가 원의 중심처럼 조형구도의 중심을 이룬다. 쌍학의 우아한 날개짓과 어울려 태극 구도의 조화로움이 빼어나다. 작고 단순한 조형세계임에도 부드러우며 완벽한 원융의 아름다움이 우러나온다. 조형은 쌍학의 날개가 만드는 타원의 장축이 비스듬하게 뻗은 사선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다. 사선의 중심축은 벌써 대칭의 엄격함을 일정하게 와해시킨다. 서양의 엄격한 유클리드적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적 요소로 약간 흐트러진, 따라서 숨 돌리고 긴장을 풀 수 있는 비유클리드적 특이성을 몸에 익은 자연스러움으로 구사했다. 지구본의 축처럼 살짝 기운 중심축이 수직이나 수평의 경직감을 완화시키고 운동의 자생력을 불어넣고 있다. 게다가 몇 되지 않는 선으로 대상을 훌륭하게 소묘한 능력과 더 이상 조금도 손 댈 수 없는 구도 운용능력, 생명력이 흐르는 색채 조합능력까지 두루 탄복할만 하다. 쌍학문양은 당상관 이상 문관의 관복에 장식하던 흉배문양과도 영락없다. 당대의 인문적 소양은 조선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를 넘나들며 재해석되고 응용 되었을 것이다.

범자, 지물의 삼매야형 대신한 종자불

케네스 클라크는 〈명작이란 무엇인가?〉에서 명작은 두가지 특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하나의 생각을 형성하는 기억과 감정의 일치이고, 둘째는 예술가가 자신의 시대를 표현하되 과거의 전통양식을 재탄생시키는 힘을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전통사찰은 하나하나가 명작이다. 특히 절집천정은 적어도 이삼백년 동안 적은 빛의 세계에서 시선의 중심에서 벗어나 고요히 전승해온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이다. 동시에 성스러운 뜻이 함장된 적멸의 공간이다. 숱한 불보살과 아라한, 진리의 말씀을 대지의 초목처럼 심어 두었다. 언어학자 소쉬르는 인간의 언어를 기호(sign)로 파악하고, 기호를 기표(記標)와 기의(記意)의 결합체라 설명했다.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은 기호의 외형이고, 기의(시니피에: signifie)는 기호 내부에 담긴 의미이다. 예를 들어 卍자는 '만' 의 기표이지만, 기의는 석가모니 불의 법계다. 숭고하고 위대한 명작인 사찰천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스러운 조형기호는 범자다. 사찰천정은 대체로 범자종자불의 밭이자, 거대한 만다라다. 종자자를 천정에 장엄한 것은 꽃을 피우려 대지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칸칸이 불보살의 세계이고, 진리 법의 당처다. 불보살께서 갖추시는 지물, 수결 등의 삼매야형의 표현 대신 문자기호를 장엄한 것이다. 천은사 극락보전은 후불탱 상단과 천정, 내4출목의 장여 등 곳곳이 범자세계다. 사방 벽면공포 칸칸의 장여에는 신령의 기운이 초록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검은 바탕의 원이 나오고, 그 안에 문자불, 혹은 진언을 베풀었다. 질서정연한 사방 공포벽면의 범자조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천정 곳곳은 8엽 주화문 한가운데 범자가 심어진 종자불의 심인처다. '옴' 은 비로자나불을, '아흐' 는 불공성취여래의 종자불이고, '흐리' 는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바, 결국 천정은 그 자체가 거룩한 불보살의 법계다. 그 엄숙함의 자리에 수달처럼 생긴 짐승이 법당 기둥을 타고 물고기를 문 채 내려오고 있다. 그 반대편 기둥에는 용처럼 몸에 신령의 기운이 흐르는 서수가 동태를 두루 살피고 있다. 긴장을 풀고 맺는 방식에 걸림이 없다. 현대적인 건축기법인 '비대칭의 대칭' 이 태연하다. 기호상징 너머엔 자비의 감로가 충만하고, 천은사의 옛이름이 그제서야 감로사임을 알겠다. 천은사 일주문 편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물고기 물 속에서는 물 고마운 줄 몰라

마음씨 타령 ③

이 말마디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본다 내가 쓰는 건 그겁니다. 마조대사가 이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론을 다는데 있어서는 마조대사가 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신 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니라.

아 어찌 열반이 급함입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편안하다든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해야 아, 그렇구나 할 건데 급함이니라 했거든요. 이거하고 연결 시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에, 좋은 일로 급할 때도 있겠고 나쁜 일로 급할 때도 있겠어요. 급하다는 것은 나쁘다든지 좋은 일을 떠나서 급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열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급하다는 이 말마디부터 알아야 됩니다. 급하다 해도 좋고 늦다 해도 좋은데 말마디는 틀림없이 말마디거든요.

그 말마디는 이거 불가사의한 거라. 이거 쇠꽃에서 나온 거여.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성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마디가. 그러하면 말마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보리상입니다. 보리상, 보리는 깨달은 각자에요. 보리상, 보리의 모습입니다. 실에 있어서는. 좋은 말로 하나 나쁜 말로 하나 그것은 보리의 모습이거든요.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무슨 말을 했든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 무정물인 혓바닥을 굴려서, 혓바닥은 성품이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생각하는 대로 혓바닥을 굴려서 말마디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한 자립니다. 이 말마디가. 그러니까 말마디는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은 진리의 나툼이라 해도 좋습니다. 지도리의 나툼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리 하면 가리(진리의 반대)가 있으니까 상대성이라 말이죠. 상대성을 떠나서 지도리라 해도 좋습니다. 상대성을 진리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의 나툼입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살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서로 싸우고 잘 못 쓴다 뿐이지 실은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진리를 잘 못 쓴다 그 뿐이지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함이니라 벌써 말마디 하나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나툼으로 이 말마디가 하나 떨어지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대화하는데 있어서 시절이 다르다 말이죠. 경우가 달라. 장소가 달라. 하기 때문에 더욱 말마디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급하다 해놨으니 보리상은 보리상이라. 말마디야 좋게 했든지 나쁘게 했든지 보리의 모습은 보리의 모습이라. 진리의 나툼은 틀림없이 진리의 나툼이라.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참 진리의 나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고마운 줄을 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의 고마운 줄을 몰라. 그러나 말마디는 하나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진리의 나툼. 다시 말하자면 보리상이거든요. 보리의 모습, 보리의 모습은

> **우리는 진리 속에 살면서도**
> **진리의 고마움을 몰라**
> **진리의 나툼은 '열반묘심'**
> **'보리' 모습은 자리에 얽매지 않아**
> **화두참선 이치와 바로 똑같아**

무엇이냐. 열반묘심… 보리 이 자리를 곧 열반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하니 급하다. 마 대사의 혓바닥을 빌려서 뚝 떨어졌어. 이거 진리의 나툼이라 말이지. 보리의 모습이라 말이여. 보리의 모습은 바로 그 자리가 열반자리거든. 어떻든지 무슨 지견을 세워서 거기 얽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리상이다 보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딱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진리다 뭣이다 그런 생각 없이 급하다 할 때 어떤 것이 여기 갖추어져 있느냐. 평상시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잡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하다는 생각 하나뿐이지 잡념은 하나도 안 없어져. 화두 가지고 참선하는 이치가 그 이치입니다.

이것이 뭣꼬 하면 그래도 잡념이 생겨. 잡념 생기더라도 거기 상관하지 말고 이것이 뭣꼬 하고 들어가면 말이죠 일념이 돼버려요. 잡념이 저절로 죽어 나가. 급한 일이 탁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이걸 어쩔고 저걸 어쩔고 하겠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잡념이 탁 하게 없어져 버려. 그런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 급하든지 뭣이든지, 급하긴 급한 일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 일으키는 것이 한결같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급한 일 있으면 다른 일, 어쩔 땐 집안일도 생각 안 나죠? 급한 일 있으면 그것만 딱 생각해서 쫓아간다든지 급한 일 있을 때 그것만 자꾸 생각해. 그때 다른 잡념이 없어져 버려. 마조대사가 그리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리 생각해요. 마조 대사는 다른 의미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급하다. 화두를 가져. 화두를 턱 가지면 다른 생각이 나타나질 않아. 꼭 급한 거나 한가집니다. 무엇인고, 이것이 뭣꼬. 아무래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생사를 초월하겠는데, 이것이 뭣꼬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급해. 급한 일이 있어.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다른 생각이 싹 없어져버려.

그러니 중이 물을 수밖에. 급하다 해놓았으니 고요적적한 자리라든지 휘영청한 자리라든지 무색 무상한 자리라든지 가고 오는 것이 없다든지 열반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급함이니라 해놨으니 중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물을 봐라. 물을 봐도 그걸 들여다보지 말고 잠깐 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물의 공덕을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마조대사도 뜻이, 물의 공덕을 말하면 책이라도 한 권 될 거요. 농사도 짓고 사람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걸레도 빨고 그 공덕으로 말하자면 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조대사의 자리에서는 화와 복을 뛰어넘은 자립니다. 공덕이니 뭣이니 다 뛰어넘은 자립니다.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에 가서는 시절을 만나서 그걸 굴릴지언정 그걸 뛰어넘은 자리거든요. 물을 봐라 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위로 '보리' 구하고 아래로 중생제도

16-2 사홍서원(四弘誓願)

예술이라도 그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의 배경을 갖고, 또 현실을 조형하는 것이라야 진정한 예술이지 그렇지 않다면, 부질없는 환각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닐까? 또 현실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현실 자체에서 유리되어 있다든지 정치철학의 이념을 상실하였다든지, 문화일반의 교양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나쁜 의미에서 직업화되어 있고 부질없는 전문의식과 딴 분야에서 담을 쌓고 서로 벽창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육안이나 법안이나 혜안이나 천안이나 그 때 경우에 따라서 이들을 자재로이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창조해 가지는 것 그것은 불안이다.

그러므로 진정 자유자재하고 툭 트인, 간이 트인 사람이라고 하는 지경이며 완성된 인격의 소유자로서 숭고한 행동을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로 보리를 구한다는 상구보리라는 것이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지경에서 모든 사람을 접해 나가는 것을 하화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주체가 되려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뭇 사람을 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필경 우리의 눈이나 귀라 해도 되고 아무 것이라 해도 상관없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이런 것을 융통 무애하게 잘 가지면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며 바른 행동이 되고 이런 확신이야말로 알뜰한 것이고 이를 얻은 다음에는 위로 어떤 지위라도 구하여 판단 할 수 있고 아래로 어떠한 부류, 어떠한 사회 계층이라도 섭수하고 교화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지경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여기 행원례(行願禮)의 마지막으로 회향게(回向偈)를 얘기할 차례가 되었다.

17. 회향게(回向偈)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회향(回向)에 대한 것은 앞에 나온 그 대목에서 많은 것을 얘기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게송만 설명한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우리가 육시행원례(六時行願禮)에 의한 일상생활을 해 오면서, 이를테면 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으로부터 사홍서원(四弘誓願)에 이르기까지, 독경 지송(持誦)하는 이런 공덕으로서.

'일체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여' 우리가 아직 깨친 것은 아니지만 이 잠시 동안의 공덕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뭇 사람에 영향이 미치도록 펴뜨린다.

우리는 뭇 사람들과 더불어 안태한 극락의 나라로 가야한다. 우리와 뭇 사람들은 다 함께 마땅히 안태한 극락세계로 가서 삶을 영위한다. 아미타불을 함께 보아, 우리 다 부처님의 대도(大道)를 이룩한다.

> **육안 · 천안 · 혜안 · 법안 · 불안**
> **융통 무애하게 잘 가지면**
>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된다**
> **위로는 어떤 지위라도**
> **구하여 판단할 수 있고**
> **아래로는 어떠한 부류,**
> **어떠한 사회 계층이라도**
> **섭수하고 교화해 나갈 수 있다.**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아미타불을 우리와 뭇 사람들이 다 함께 뵈옵고 똑같이 대사회(大社會)의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거나, 대자대비의 사랑을 깨치고 나서 무상대도(無上大道)를 증득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자가 되자.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의 대도를 성취하기 바란다. 대강 이런 뜻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엔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지 그런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보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로 안다.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희열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희열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간단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염불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으로 육시행원례참문의 강을 일단 다 끝낸 셈이다.

좀 더 여러 가지 하고 싶었으나 못 다한 얘기도 있고 두서없는 말이 엉성하게 나열되었지만 그런데로 정삼업진언에서 시작하여 회향게(回向偈)의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에 이르기까지 모자라는 설명으로나마 가까스로 이끌어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강이 모자라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밑바닥에 흐르는 진의는 표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설사 완전한 해설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무엇 할 것인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 한들 결국엔 내버려지고 마는 것이다. 이 언덕에서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다다른 다음에는 제 아무리 좋은 배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고 그냥 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 아무런 애착도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이 강을 듣는 동안에 제가끔 어떤 확신이 서고, 발심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한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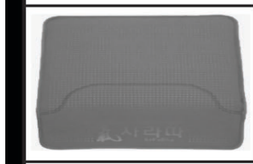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부처님 가르침 거울삼아 직무 수행 전력”

“대화·합의로 종회 이끌겠다”

인터뷰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중앙종회의장, 대단한 직책 아닌 의정활동 보조하는 심부름꾼

집행부 비판, 필요하면 해야지만 승려복지·성역화 등 협력해야

“시대·상황 맞는 종헌 개정 필요”

“조계종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종회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건강한 종책을 위한 토론과 의원 스님들의 흔들림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종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성문 스님은 11월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종회 운영방안과 종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명진 스님의 사퇴로 만장일치로 종회의장으로 선출됐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다. 임시의장으로 나선 영담 스님의 신상발언부터 명진 스님의 폭로,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거친 언행까지 16대 중앙종회는 개원부터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개원부터 ‘삐그덕’ 된 16대 중앙종회에 대해 성문 스님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제가 종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때와 지금은 인적 구성부터 환경까지 달라져 있어 생소함이 많았습니다. 종책 모임까지 나뉘어져 소통과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개원종회에서 보여줬습니다. 예전보다 의원 스님들이 종헌종법에 밝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언어적 표현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회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 종회의장으로서 성문 스님이 밝힌 운영원칙은 종회 근본정신을 살려 종헌종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계파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회의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종회의장은 81명 의원들이 종회 안에서 활발히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견제, 비판할 수 있게 보호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사실 수행공동체에서 여야, 계파라는 표현이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마지막에는 표결에 부쳐야겠지만 이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가공동체에서 바른 법에 의지해서 바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중은 수긍할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부분은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실제 성문 스님은 의장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종회는 입법 견제 기능도 있지만 집행부가 잘 하도록 협력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집행부가 성공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그대로 내비쳤다.

“현재 집행부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승려복지, 조계사 성역화 사업 등은 종회도 충분히 협력해야할 사안입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선학원 갈등, 종헌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있게 피력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선거인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선거인단을 넓혀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구조에서 직선제는 종단을 크게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종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종헌 개정에 대해서 성문 스님은 한 가지의 개정이 아닌 전반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종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헌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종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행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 장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해 종헌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관리법으로 인한 선학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밝혔다.

“법인관리법의 사찰보유법인은 재산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상황이 진행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선학원은 범어사 등 종단 사찰에서 출자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같은 갈등에서 종단이 지혜롭게 풀었으면 합니다.”

1994년 징계자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종단이 부담을 안고갈 일이 아니다”며 종단의 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구니 참정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15대 중앙종회에서 있었던 만큼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봤다.

성문 스님은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의 2년이 중요하다 짧게 말했다. 2년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이며 종도들의 협력에 대한 당부였다.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을 위해서 앞으로의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겨루기하고 대립하는 사이 역사와 대중들은 흘러 가버릴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원 구성 확정

조계종 16대 중앙종회는 11월 11일 개원과 200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선서하고 회의를 통해 16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본지는 16대 중앙종회 원 구성된 80명의 명단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수석 부의장



자현 스님(사회분과)

차석 부의장



오심 스님(포교분과)

총무분과(15명)



함결스님(위원장)



지홍스님



지현스님



진화스님



경우스님



법상스님



종민스님



제정스님



선광스님



동산스님



태효스님



환적스님



덕현스님



우봉스님



지홍스님(비구니)



종헌 ·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중앙종회위원 개원 선서中〉

교육분과(9명)


심우스님(위원장)


원행스님


범해스님


삼혜스님


정인스님


각림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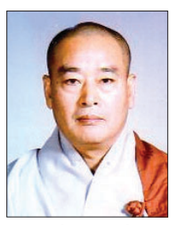

원경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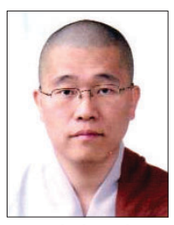

법원스님(직할)


혜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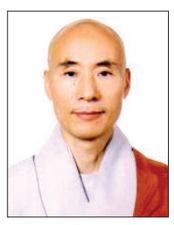
포교분과(9명) 오심스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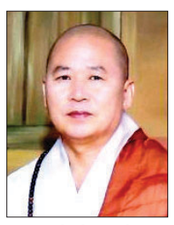

계환스님(위원장)


정도스님


정범스님


진성스님


등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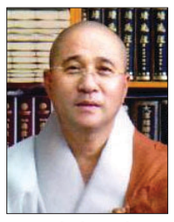

혜자스님


현민스님


혜범스님

법제분과(8명)


만당스님(위원장)


영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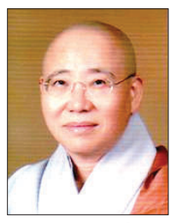

법보스님


초격스님


적광스님


혜초스님


광전스님


묘주스님

사회분과(12명) 자현스님 포함


무관스님(위원장)


명진스님


정산스님


수암스님


정수스님


덕산스님


호산스님


진각스님


지원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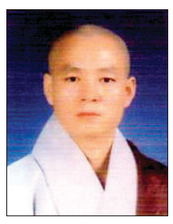

명준스님


희유스님

재정분과(15명)


주경스님(위원장)


영배스님


종삼스님


월우스님

원타스님

덕조스님

성행스님

성무스님

도현스님

정덕스님

연광스님

설암스님

법원스님(22교구)

삼조스님

지성스님

호법분과(11명)

태관스님(위원장)

장명스님

정념스님

정오스님

자공스님

환풍스님

선일스님

탄원스님

도견스님

제민스님

도수스님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이천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원
이천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cm × 70cm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650원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450원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 × 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아세안 정상회의에 등장한 불교 벽화

미얀마, 각국 정상에 불교 벽화 복제본 증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 12세기 불교 벽화가 세계 각국의 언론 앞에 등장했다.

〈Asahi Shimbun〉 지는 "미얀마에서 발견된 12세기 벽화의 복제본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에게 선물로 증정됐다"며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 국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불교로 소통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증정된 복제본의 원본인 12세기 불교 벽화는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꼽히는 미얀마 바간(Bagan)에서 지난 6월 발견되어, 미얀마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복제본은 일본 도쿄대대학원 미야사코(Miyasako) 교수가 제작했다.

"군무를 비롯해 불교축제의 다채로운 장면들을 담은 벽화로 예술성도 높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벽화"라고 설명한 미야사코 교수는 "일본의 문화재 복존 기술이 12세기 벽화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세계 정상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일본 도쿄대대학원 미야사코(Miyasako · 사진 오른쪽) 교수가 11월 5일 미얀마 산다 킨(Sanda Khin, Myanmar's deputy minister for culture) 장관에게 지난 9월 미얀마 정부에 의뢰 받은 불교 벽화 본제본을 건네고 있다.

미얀마서 발견된 12C 불화 복제
일본 미야사코 교수가 담당
미얀마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군무 · 불교축제 벽화에 담겨

복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문화재 보존기술을 면밀히 평가하고 미야사코 교수를 선정, '벽화의 질감과 색감을 모두 재현' 한 복제본 제작을 의뢰했다.

"벽화의 본제본 25점을 지난 5일 미야사코 교수에게 받았다"고 밝힌 산다 킨(Sanda Khin, Myanmar's deputy minister for culture) 장관은 "고대의 벽화를 원형 그대로 복제한 미야사코 교수에게 감사한다"며 "불교축제의 한 장면을 담고 있는 벽화처럼,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sahi Shimbun〉 지에 따르면 12세기 불교 벽화의 복제 과정에는 도쿄대대학원 문화재 복원 학과 재학생 15명을 중심으로 '벽화 복원팀(이하 복원팀)' 을 결성, 2개월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당시 바간을 방문한 복원팀은 초정밀 카메라로 벽화를 촬영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한편 벽화의 재질과 안료 성분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미지에 원본 재질의 질감과 원본 안료의 색감을 그래도 복원해 61㎝×90㎝ 크기의 복제본을 완성했다.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정상들이 불교라는 정신문화에 힘입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이 결성되길 복제 과정 내내 기원했다"는 미야사코 교수는 "지금까지 '문화외교' 는 선진국형 외교 방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미얀마에서 이를 과감히 채택, 실행에 옮긴 것에서 미얀마의 염원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도쿄대대학원 문화재 복원기술이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12일부터 양일간 미얀마 네파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내년 12월 말까지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공동체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아세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상들이 모여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얀마는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말레이시아에 의장국 지위를 넘겼다.

오종욱 편집위원

틱낫한, 뇌출혈로 집중치료중

플럼빌리지 11월 12일 홈페이지 통해 공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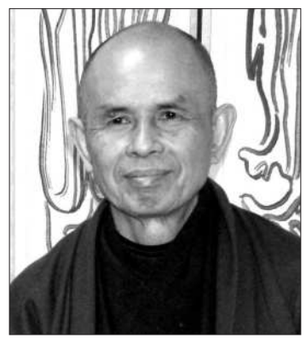
세계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88) 스님이 심각한 뇌출혈로 현재 프랑스의 병원에서 집중 치료(intensive care)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 세운 불교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제자들인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지난 11일부터 그를 24시간 집중 치료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현재 치료에 반응을 보이며 손과 발, 눈 등을 움직일 수 있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틱낫한 스님은 노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11월 1일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베트남 출신인 그는 23세에 승려가 돼 시인, 학자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등의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며 티베트의



세계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88) 스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녔다.

한국 내에도 〈화〉, 〈오늘도 두려움 없이〉 등 저서 다수가 출판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호주 불교 고등학교 자선 무도회 개최

첫 불교 사립고…지역 주민 참여 유도



호주에 처음 문을 연 불교 고등학교인 'Pal School' 의 학생들.

호주 첫 불교 고등학교의 활동이 활발하다.

〈Champion〉 지는 "호주의 첫 불교 고등학교로 문을 연 PAL 고등학교가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 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AL 고등학교는 2년 전 자비와 연민을 교훈으로 삼아, 시드니 캔리 베일(Canley Vale)에서 문을 열었다.

"2년 전 17명의 학생으로 문을 연 PAL 고등학교에는 현재 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팔 판하(Pal Panha · 50) 교장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 을 기획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PAL 불교 고등학교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학생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AL 고등학교의 인지도는 시드니의 다른 사립 중 · 고등학교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전제한 〈Champion〉 지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최근 실시한 공 · 사립 중고등학교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비불자라도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드니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PAL 고등학교의 자선 무도회는 시드니에서 불교 고등학교의 존재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AL 고등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이스(Joyce Nguyen) 교사는 "종교 철학 수업에서 불교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PAL 고등학교가 불교계 학교이기는 하지만, 교육 내용은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에 대해 관용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PAL 고등학교의 자선 무도회 'King Ashoka's Ball' 에서는 학생,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극, 노래, 춤 등의 무대 공연이 마련된다. 또한 무도회 말미에 진행될 추점의 당첨자에게는 Miss Charity Australia를 만나는 기회도 주어진다.

오종욱 편집위원

도심 동물에게도 '자비' 를

캐나다 문라이트 재단, 버팔로랜드 동물원 관리 맡아
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동물들…자비행으로 살찌우다

캐나다 킹스 카운티(Kings County)의 애물단지 버팔로랜드(Buffaloland) 공원이 불교 공익재단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Amherst News〉 지는 "문라이트(Moon Light) 법인이 지난 4월부터 관리 · 운영해온 버팔로랜드 공원이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버팔로랜드는 들소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도심 속 동물들의 안식처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버팔로랜드 공원은 킹스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공공 동물원으로, 한때 킹스 카운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관리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게 되자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Amherst News〉 지에 따르면 버팔로랜드 공원의 매달 관리비는 2년 전 1만 천 달러에서 올해 초 6만 달러(약 5천 9백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킹스 카운티 위원회는 버팔로랜드 공원을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동물원의 수익성이 낮아 버팔로랜드 공원의 매각 공고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 기업은 없었다. 이때 문라이트 법인이 기존의 예산을 편성 · 지원한다면 '동물원 관리' 만을 맡겠다고 제안했다.

버팔로랜드 공원의 동물원은 들소 105마리, 말 50마리, 라마 10마리 외에도 오리, 개, 고양이 등을 방목하고 있다.

"킹스 카운티 예산의 한계로 동물원 내 180여 개체의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처님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자비를 실천하라 하셨는데, 문라이트 재단이 그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 문라이트 재단의 피츠페트릭(Fitzpatrick) 대변인은 "지난 8개월간 울타리 등 버팔로랜드 동물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동물의 건강을 검정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기존 동물 외에도 도심에서 버림받은 동물의 안식처로도 동물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킹스 카운티에 있는 버팔로랜드 공원에는 들소, 말, 라마 등을 방목하고 있다.

문라이트 법인은 지난 2010년 캐나다 세인트로렌스 남부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주의 불교계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현재 국제적인 조직망을 다지며 캐나다 안팎에서 도움을 손길을 뻗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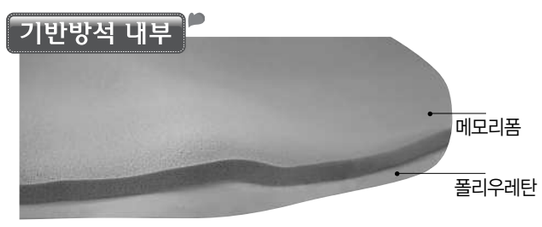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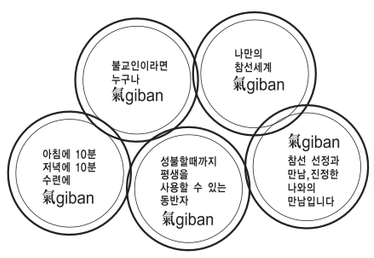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조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부'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 용왕. 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 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불탑의 나라 – 미얀마 ★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2/16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 꽃보다 청춘~ 라오스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5일 요금문의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자비 수행 과정 담긴 팔리어 게송 선율에 실어

정목 스님 낭독 더해진 이미 우이의 '자비송' 스페셜 앨범 발매



이미우이 자비송 앨범 표지

"저를 위험과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마음과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부모님과 스승 친척과 벗들,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모두가 미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게 하소서."

이미 우이(Imee Ooi)의 '자비송'이 정목 스님의 낭독을 가미해 새롭게 탄생했다. 불교명상음악의 대표 음반 중 하나인 자비송은 사랑과 자비의 수행 과정이 담긴 팔리어 게송을 음성으로 듣는 자애관(慈愛觀) 수행서다.

불교의 만트라를 하나의 음악장르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이 음반은 '최신 스페셜 한국판'으로, 오리지널 앨범에 '정목 스님의 우리말 낭송 자비송'이 더해져 주목된다. 이미 우이는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가수이자 작곡가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자비송에 담았다.

팔리어로 쓰여진 가사는 위빠사나 명상수행자인 수지와(Ven. Sujiva) 스님이 '자애경(慈愛經)' 등을 바탕으로 작사 했다.

런닝 타임이 무려 80여분에 달하며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첫번째 곡은 이미 우이의 목소리로 팔리어로 된 자비송을 노래한다. 2번째 곡은 서양에 불교의 자애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비송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영어로 번역한 자비송이 낭송된다.

3번째 곡은 스페셜 트랙으로 '유나방송' 대표 김재진 시인이 가사를 가다듬고, 정목 스님이 낭독해 깊은 울림을 준다.

〈자애경〉 등을 중심으로 작사
팔리어 · 영어 · 한국어로 독음
런닝타임 80여분, 3개 트랙 구성
정목 스님 한국어 낭독 '주목'

유려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정목 스님의 목소리가 가미되어 가슴속 깊이 따스한 사랑과 자비심을 일깨우고, 끝없는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켜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비송은 솔향기 내음이 바람결을 따라 세상으로 퍼지듯이 가슴속 깊이 번져온다. 아름다운 챈팅과 음악선율은 마음의 안정과 힐링,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들게 한다. 그래서 자비송은 명상, 요가, 테라피 음악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원 등에서까지 널리 사용되어 치유 음악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010-5415-179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어로 자비송을 낭독한 정목 스님


말레이시아 화교계 불자가수 이미 우이

만트라를 새 음악장르로 정립시킨 불자 뮤지션 '이미 우이'는?

이미 우이(Imee Ooi)는 서부 말레이지아에 있는 광산도시인 타이핑(Taiping)에서 태어났다. 한자 이름은 황혜음(黃慧音, Huang Huiyin)으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다.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등을 가사로 작곡과 편곡하고 노래하는 뮤지션이자 뮤직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북경어, 광동어, 영어 등의 7개 국어로 노래하며, 지금까지 자비송, 금강경, 범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옴 마니 반메 훔 등 5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했다.

'불교의 챈트를 현대화하여 만트라를 새로운 음악장르로 발전시키고 그 반열에 올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전세계 불교명상음악계에서 찬사와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이미 우이는 말레이지아 최고 뮤지컬 싯다르타, 문성공주, 보름달 위에서 등의 음악을 작곡하고 연출했다. 중국,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미우이는 불교전통의 경전, 만트라, 다라니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순수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다.

흙 속에서 보살의 미소를 찾다

허경혜 개인전 11월 18일~24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허경혜 작가의 나한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한과 동자승 등 옻칠 토기 42점을 선보인다.

허경혜 작가가 11월 18일~24일 '흙 속에 보살의 미소'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나한과 동자승 등 옻칠 토기 작품 42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10여년 머릿속에 그려오던 나한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냈다고 말한다. "2002년 조계사에 동자승을 주제로 전시를 연 이후 나한을 주제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한들을 흙으로 빚어내었습니다."

허 작가는 한국인의 얼굴을 주제로 작품을 이어오다가 1999년 절에서 3개월 산 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부터 불교 관련 작품에 정성을 쏟고 있다. "나한은 신앙의 대상이고 깨달은 이들이니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랜 작업을 하며 위엄의 얼굴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 자연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작업 전에 향을 피워 기도하기도 했고 현실 생활 속에서도 주력을 놓치지 않으며 작업에 임했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한 동자승 이외에도 다구 등 옻칠 작품들을 선보인다. 앞으로 허 씨는 부산 기장 청량사에 500나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054)941-0371

정혜숙 기자

불교방송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11월 15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개 팀 참가

BBS 불교방송이 11월 15일 제 5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동요제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찬불동요제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 △부처님 미소처럼 △템플스테이에서 △보리수 그늘아래 △석가모니 △부처님 되자 △바라밀 △산사로 오세요 △오계를 지켜요 △연등을 들고 △연잎에 비 내리면 등으로 음성공양을 펼쳤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백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백만원, 우수상 2명과 노랫말상에는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찬불동요 창작의 산실 불교방송 찬불 동요제는 201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열렸다.

정혜숙 기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 11월 26일~1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 전을 11월 26일~12월 9일 아라아트센터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작가의 작품은 물론, 불교적 사상과 색채가 담긴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2012년부터 매년 공모전으로 시행해오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미술대전 출신 작가의 육성뿐 아니라 불교미술계 진흥의 방법까지 모색, 보다 굳건한 불교미술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22명이 참여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자 전시에서는 △조각에 김광열, 김성기, 류종상, 민승기, 이인호, 이재순. 이진형, 조병현, 허길량 △회화에 김의식, 손연칠, 신진환, 이수예, 일오 스님, 전연호 △공예에 김승렬, 명천 스님, 안명선, 오해균, 이경숙, 이지연, 정찬민이 참여한다. 또한 불교미술 관련 초대작가는 5명으로 김양동, 김영희, 성각 스님, 송근영, 최종태가 참여한다.

김광열 작가의 '관세음보살'은 한쪽 다리는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려뜨린 자세인 유희좌의 관세음보살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류종상 작가는 황토와 모시, 삼베 등을 이용해 흙의 내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기법의 보살상을 보여준다. 허길량 작가는 연잎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과 과거불이며 법신불이기도 한 '비로자나불'을 표현했다.

또한 신진환 작가는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서 반환된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모사했다. 이수예 작가는 보물 1552호 대흥사 괘불탱의 우협시보살을 원본크기로 재구성한 '관불'을 선보인다.

전시개막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에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3층에서 개최된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핑크붓다 '맥의 맥을 짚다'

11월 30일까지 문화공간 라임서

불자 미술인들의 모임 핑크붓다의 '맥(脈)의 맥을 짚다'가 11월 30일까지 종로구 옥인동 문화공간 라임에서 열린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전공자 8명의 작가가 총 20여점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공예, 패션, 시, 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인다. 작가로는 윤유나, 이명아, 이정은, 전경희, 정윤영. 유리정. 조수연, 허효진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허효진 작가는 "우리 주변의 맥을 짚어보고자 기획된 전시다.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맥의 흐름과 순환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통해 이해해 보고 이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허 작가는 "혈맥(血脈), 맥박(脈搏)과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맥, 혹은 전통의 맥(脈), 맥락(脈絡)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역할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맥(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010-6260-0574

정혜숙 기자

신비한 '만사대길부' 친견하세요

특허출원번호 30-2014-0051973호

"하는 일 마다 무언가 가로막는 느낌이고, 풀릴 듯 안 풀리는 일들을 만사대길부가 해결해주는 신비함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회사 경영 | 취직 문제 | 결혼 문제 | 가정 문제 | 질병 문제



용도
- 학생책상에(머리가 맑아진다)
- 자동차운전석에(안전운전에 도움)
- 화장대에(가정에 액운을 막아준다)
- 회사 사무실 및 생산공장 안전에 도움

※ 주문에 의해 18K도금으로도 제작 가능함
※ 특별 보급가
· 대 : 60,000만원
크기 - 가로 14㎝ × 세로 15㎝
· 소 : 40,000만원
크기 - 가로 11㎝ × 세로 12㎝
※ 재질 : 원목 위에 금속판을 불로 구워서 경명주사로 애칭한 작품

사찰 주지스님의 신도에게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사대길부

시 · 도별 지사(총판) 모집

계좌번호 : (우체국 010017-02-614770 김필성) | 상담전화 : 010-2962-011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문화

긴 시간 도보와 오랜 관찰 …사념 사라진 그 순간 포착

불교성지 앵글에 담는 오철만 명상 사진작가


오철만 작가는 사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걷고 관찰하기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유학 포기하고 사진작가로 변신
인도, 캄보디아 등 17년 순례
7월 '인도, 히말라야' 전 열기도
12월 24~29일 가나아트 초대전

"들고나는 그 순간을 담는 도구가 사진기이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 도구도 사진기죠. 풍경도 사진도 경계의 선상에서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도보와 오랜 관찰을 통해 얻은 직관의 세계가 곧 제 작업의 결과물이죠."

오철만 작가(44)는 1997년부터 인도와 네팔 티베트 캄보디아 등을 돌면서 불교성지와 주변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그 결실은 지난 7월 '영혼의 땅 인도 히말라야, 잔스카르와 라닥전' 에서 선보였다. 또한 오 작가는 자신이 17년간 작업한 일부 작품을 10월 12일~12월 29일까지 열리는 천태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전에 기증하기도 했다. 명문대 경영학도였던 그가 사진을 만나게 된 것은 불가의 인연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딱 한 달의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 인도에 살던 누나의 권유로 인도 여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히말라야를 오르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어요. 그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았죠."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유학을 가기로 한 날짜는 이미 지나버렸다. 인도에서 인연이 된 청전스님의 권유로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했고 바라나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지나간 시간을 정리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의 삶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던 삶이라는 걸 알았죠. 예술 계통의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림은 자신이 없었고 기계를 잘 다루니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은 직관의 작업이잖아요. 선과도 연관되어 있죠. 저와 잘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진을 공부했죠. 돈을 모아 인도를 오가며 그곳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경계의 안과 밖으로 나뉘어 설명한다. 초반기 작업을 경계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후 경계의 밖으로 나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지금은 경계의 선상에서 객관화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2월 24일~29일 가나아트스페이스 기획초대전으로 열리는 '에이션트 앙코르' 는 그의 이런 시각이 잘 반영된 전시다. "한 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앙코르와트 사원과 주변의 도시를 수십차례 찾으며 관찰했죠. 천상의 여신 압사라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봐달라며 서 있는 거 같았고, 거리의 화가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며 존재의 의미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죠. 그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앙코르와트를 통해 시간을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앙코르와트의 풍경도 사람도 또 형상들도 그 어떤 것에도 연민하거나 도취되지 않는다. 다만 바라볼 뿐이다. 경계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자리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다.

"감정에 경도되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상태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걷고 오랜 시간 대상을 관찰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순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셔터를 누르면 그 상태가 바로 선이고 명상이 되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전업 작가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이 순간을 세상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니 계속 사진기를 들 수 있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사념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지 않았다면 셔터를 누를 때가 아니다" 오철만 작가는 오늘도 그 순간과 만나기 위해 명상에 잠긴다. 그렇게 진리의 세계를 향해가는 길 위에서 그는 가슴에 사진기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나무 사이로 올라오는 풀처럼 불법이 잘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올라 보겠는가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㊺ 장성 백양사 (上)




백양사 주변경치와 어울려 기묘한 풍광을 자아내는 쌍계루. 단풍에 물든 모습이 아름답다.

깊은 역사와 빼어난 경치

"산은 장성군 북쪽 30리에 있는데 그 이름을 백암(白巖)이라 하였으니 암석이 모두 흰 색깔이라서 그렇게 이름 하였다 한다. 석벽은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중첩하여 그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이 실로 이 지역의 명승지가 될 만하므로 신라 때의 어떤 이승(異僧)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면서 이름을 백암사(白巖寺)라 하였다."

삼봉 정도전(1337~1398)이 지은 〈백암산정토사교류기〉의 일부다. 오늘날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연원이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절경 속의 명찰이란 백양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듯, 백양사는 그 역사와 입지적 여건이 빼어나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왔고 가작(佳作)들을 남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백양사는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쌍계루라는 2층 누각이 주변 경치와 어울려 기묘한 풍광을 자아낸다. 그래서 백양사 관련 옛 시들의 대부분이 바로 쌍계루를 읊고 있다.

"사찰의 사면을 에워싼 산들이 모두 높고 가파르기만 해서, 찌는 듯이 더운 여름철에도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람을 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다 터를 정하고 누각을 세우게 되었는데, 왼쪽 시냇물 위에 걸터앉아서 오른쪽 시냇물을 아래로 굽어보고 있노라면,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에서 서로 비춰 주는 등 실로 보기 드문 승경(勝景)을 이루고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지은 기문 〈장성현백암사쌍계루기〉의 일부다. 이 기문에 따르면 쌍계루라는 누각의 이름은 이색이 지었다. 그리고 쌍계루 자리에 누각을 처음 지은 사람은 각엄존자(覺儼尊者 1270~1355)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각엄존자는 고려 충정왕과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스님인데 승보사찰 송광사의 16국사 중 13세 국사다. 각엄존자는 1355년에 노구를 이끌고 백암사로 와서 입적했는데 그로인해 절이 상당히 확장됐다. 그 때 지어진 것이 오늘의 쌍계루 원형인 셈이다.

구시금견백암승(求詩今見白巖僧)
파필침음괴미능(把筆沈吟愧未能)
청수기루명시중(淸 起樓名始重)
목옹작기가환증(牧翁作記價還增)
연광표묘모산자(烟光 暮山紫)
월영배회추수징(月影徘徊秋水澄)
구향인간번열뇌(久向人間煩熱惱)
불의하일공군등(拂衣何日共君登)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니
붓 잡고 생각에 잠겨도
능히 읊지 못해 부끄럽네.
청수 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이름이 더욱 중후하고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 가치 도리어 빛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흘러 돌아가니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거니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 보겠는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0337~1392)의 이 시는 오늘날까지 쌍계루 시의 '원조' 로 전해지고 있다.《포은선생문집》 제2권에 실린 〈장성백암사쌍계기제(長城白 Ⅴ寺雙溪寄題)〉라는 작품이다. 쌍계루 기문을 쓴 이색의 제자인 정몽주는 이 시에 누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수 스님의 중수와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은 것으로 누각이 번듯하게 서 있음을 칭송하고 저녁 풍경을 읊음으로 쌍계루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쌍계루 아래 정몽주의 시를 소개한 안내판에는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거니/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 더불어 올라 보겠는가"라는 대목을 두고 고려 말의 혼란한 시대상을 가슴 아파하며 관직을 버리고 임금과 더불어 쌍계루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여 두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선죽교에서 테러를 당해 죽은 정몽주이고 보면 이런 해석도 억지는 아니겠지만, 시의 흐름을 볼 때 '군(君)' 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친한 벗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여기서의 친한 벗이란 시를 부탁하는 백암사의 스님일 확률이 높다. 세상사에 시달리던 정몽주는 관복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 스님과 함께 쌍계루에 올라 노닐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언젠가 꼭 가고 싶은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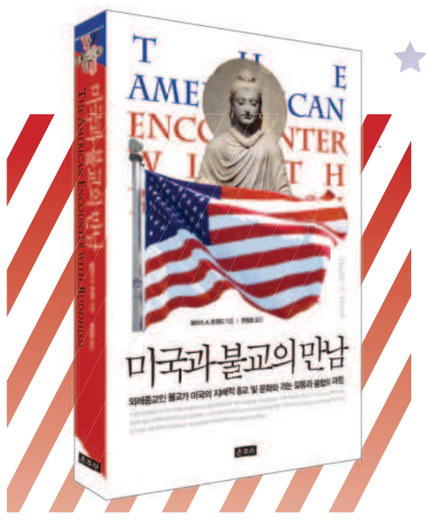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도암(道庵)이라는 백암사 스님과 교분이 두터웠다. 경기도 양주에 별업을 두고 잇던 서거정은 그곳 출신의 승려인 도암과 50여 년이나 친분을 맺었다. 서거정은 도암 스님이 양주 흥천사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백암사로 돌아갈 때 절구 5수를 써주었다. 그 중 첫 번째 시를 보자.

남국명람시백암(南國名藍是白庵)
루대다소간청람(樓臺多少間晴嵐)
하시혜말심사거(何時鞋襪尋師去)
명월쌍계공연담(明月雙溪共軟談)

남국에 가장 이름난 절이 바로 백암사라
수많은 누대 사이엔 남기가 어우러졌는데
언제나 짚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밝은 달밤 쌍계에서 종용히 담론해볼꼬.

서거정《사가시집》제45권에 〈송도암상인환백암사〉라는 재목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언제나 짚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밝은 달밤 쌍계에서 종용히 담론해볼꼬' 라는 대목은 곧바로 정몽주의 시를 연상시킨다. '짚신 버선 차림' 이란 다름 아닌 관료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벗어난 자유로운 몸을 말한다. 서거정은 지금 도암 스님에게 "나도 얼른 퇴직하고 스님 계신 절에 가서 달밤에 그 유명한 쌍계루에 올라 밤새 이야기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라는 동양 종교에 매혹된
초기 미국인들의 이야기



토마스A. 트위드지음
한창호옮김
신국판/440쪽
값20,000원

미국과 불교의 만남

외래종교인불교가미국의지배적종교및문화와겪는
갈등과융합의과정을철저히추적하여고증

불보살님의자비와가피를함축하고있는진언(다라니)!
진언의공덕을온전하게받을수있는진언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 ~ 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백일법문 (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5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6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7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리셋	월호	마음의숲
10	11일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빤딧짜	법승담마야나



다시 결집한 성철 스님 〈백일법문〉

성철 스님 백일법문 상·중·하 3권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펴냄 | 1만5천원



성철 스님의 법문집 〈백일법문〉의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1992년 출간 이래 20만 권 넘게 판매된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후 그해 첫 동안거를 맞이하여 백일동안 상당법문과는 별도로 대중들을 위해 불교를 총체적으로 강설한 것을 묶은 것이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법문하는 성철 스님

〈백일법문〉 22년 만에 증보판 나와
초판본 보강, 누락 법문 추가해 세 권으로
근본불교 · 돈오점수 등 좀 더 자세히 다뤄
원택 스님, "돈오점수 비판 '오해' 있어,
보조국사의 진의 제대로 보라는 뜻"

당시 화제를 불러일으킨 법문(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의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 이라고 하는데, 팔만사천법문으로 펼쳐지는 방대한 불교교설 가운데 근본이 되는 내용만을 골라 경론과 조사어록 등을 인용하여 간명하게 설명하고, 불교의 핵심인 중도사상으로 선(禪)과 교(敎)를 회통하여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된 증보판 〈백일법문〉은 3권(상 · 중 · 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992년 발간된 것보다 한 권 분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증보판은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초판본에 사용된 녹음 테이프를 다시 녹취하고, 초판본에서 누락된 테이프를 찾아 녹취, 정리하여 펴낸 것으로, 초판본의 내용이 보강되고, 새로운 법문이 추가됐다.

상권에는 불교의 본질, 중도사상, 근본불교, 인도 대승경론의 중도, 중관, 유식을 정리한 인도불교편을 담았다. 중도사상 이후는 절(節)과 항(項)에서 제목은 같으나 순서가 전보다 많이 바뀌어 있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불교사상에는 이미 천태, 화엄, 유식의 모든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전의 〈백일법문〉에는 이 부분이 많이 생략됐다.

중권에 들어간 화엄종, 삼론종의 중도사상 순서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본래 법상종의 중도사상에 있던 인도의 유식사상은 상권으로 옮겼다. 그러나 천태종의 중도사상은 절의 제목,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의 중도사상을 강설한 중권의 내용은 이전 보다 자세하고 폭이 넓어졌다.

하권에는 중국 선사들이 밝힌 중도의 뜻과 어록이 실려 있으며, 특히 대주혜해 선사의 〈돈오입도요문론〉의 법문이 많이 실려 있다. 중도사상, 선종의 본질,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 등이 들어 있는 하권은 내용상으로는 증보가 많으나 순서상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1992년에 발간된 〈백일법문〉과 비교해 보면, 증보된 내용 이외 절의 순서들이 바뀌고 구어체를 되도록 문어체로 바꾼 것이 증보판의 큰 특징이다. 또 이전 초판본은 교리발달 순서로 편집됐고, 이번 책은 가능한 성철 스님이 법문한 순서에 따라 원음을 최대한 복원했다.

흔히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에서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국사 말년의 〈간화결의론〉에 드러난 돈오돈수 사상을 살피지 않고 20대 중반에 저술한 〈수심결〉과 〈정혜결사문〉 그리고 규봉종밀의 돈오점수론에 빠져 보조국사의 진의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되는 선방수좌들을 경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번 〈백일법문〉에 드러나 있다. 즉 보조국사가 젊은 시절과 달리 말년에 사상적으로 변화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초기의 돈오점수에만 매달리는 일부 선방 수좌들을 질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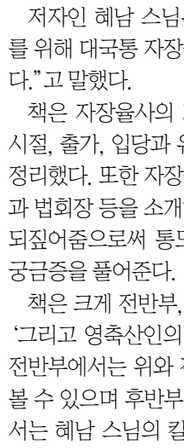
이번 개정증보판 발간과 관련해 원택 스님은 "1967년 동안거 때 하신 법문을 25년 만에 정리해 1992년 〈백일법문〉 상 · 하 2권으로 출간했고, 이제 다시 법문을 정밀 녹취해 '개정증보판 백일법문' 이라는 마음으로 47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지금, 감개무량함에 앞서 성철 큰스님께 크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보조국사가 열반에 드신 지 6년 만에 제자인 진각 국사가 유고(遺稿)를 정리해 〈간화결의론〉을 출간, 보조사상을 총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스님이 법문하신 지 50여년 만에야 겨우 형태를 갖춘 〈백일법문〉을 출간하게 됐으니 큰스님께 어떤 참회를 올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큰스님께서 '부처님 밥값 했다' 고 표현하신 〈본지풍광〉, 〈선문정로〉의 사상을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고 전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고 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예전에 〈백일법문〉 초판본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에게는 "증보판은 이전 서술방식을 따르는 동시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 증보한 책이다." 며 앞서 발행된 〈백일법문〉의 가치와 의미에 의심을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원택 스님은 이번 개정증보판 출간에 즈음해 선종사상이 정리된 〈백일법문〉 하권 2500권을 동안거 결제를 진행하는 전국 선원에 법보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조계종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2월 11일부터 2015년 3월까지 '백일법문 특별강좌' 를 진행한다. (문의 1661-1108)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자장율사의 업적과 세간을 향한 율사의 한담

대국통 자장율사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

혜남 스님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3천원



"내 차라리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파계하고 백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계를 목숨보다 중시했던 신라 대국통이자 대표적 율사인 자장율사의 업적을 기린 책으로, 저자는 통도사 전계사이자 율주인 중산 혜남 스님이다.

백골관을 닦아 수행하는 힘이 가피로 드러난 자장 스님은 대중의 신망을 얻어 재상의 물망에 올랐다. 왕이 자주 스님을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자 왕이 크게 진노하여 조칙으로 스님의 목을 칼로 베려했다. 자장 스님이 위와 같이 말하니 사자가 감히 스님을 베지 못하고 임금께 아뢰었다. 왕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장 스님의 신심에 감복하여 도업을 도왔다 했다.

자장 스님은 엄격하게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은 율사로 알려 있다.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을 교화하여 당태종의 존경을 받았고, 귀국한 다음에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웠고,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설립하여 호국, 호법에 노력하여 승단 내부로는 교단을 정화하고 승규를 쇄신하여 승니의 기강을 확립했다.

저자인 혜남 스님은 "통도사 사격의 바른 이해를 위해 대국통 자장율사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했다." 고 말했다.

책은 자장율사의 가계와 출생, 생몰연대, 어린 시절, 출가, 입당과 유학 등 자세히 스님의 생애를 정리했다. 또한 자장율사가 조성한 통도사의 계단과 법회장 등을 소개하며 통도사의 의미와 유래를 되짚어줌으로써 통도사와 자장율사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책은 크게 전반부, '대국통 자장율사' 와 후반부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위와 같이 자장율사의 생애를 만나볼 수 있으며 후반부 '그리고 영축산인의 한담' 에서는 혜남 스님의 칼럼을 만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축산인 한담' 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혜남 스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했던 칼럼이 실려 있는데 2009년 미국의 월가 금융사기 사건, 추기경의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2010년 아이티 지진, 2012년 총림지정 등 불교계의 소식은 물론 세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혜남 스님의 의견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근본불교의 비구니 계율 경전 첫 한글 번역서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한역 의정 | 보운 스님 국역 | 혜안 펴냄 | 3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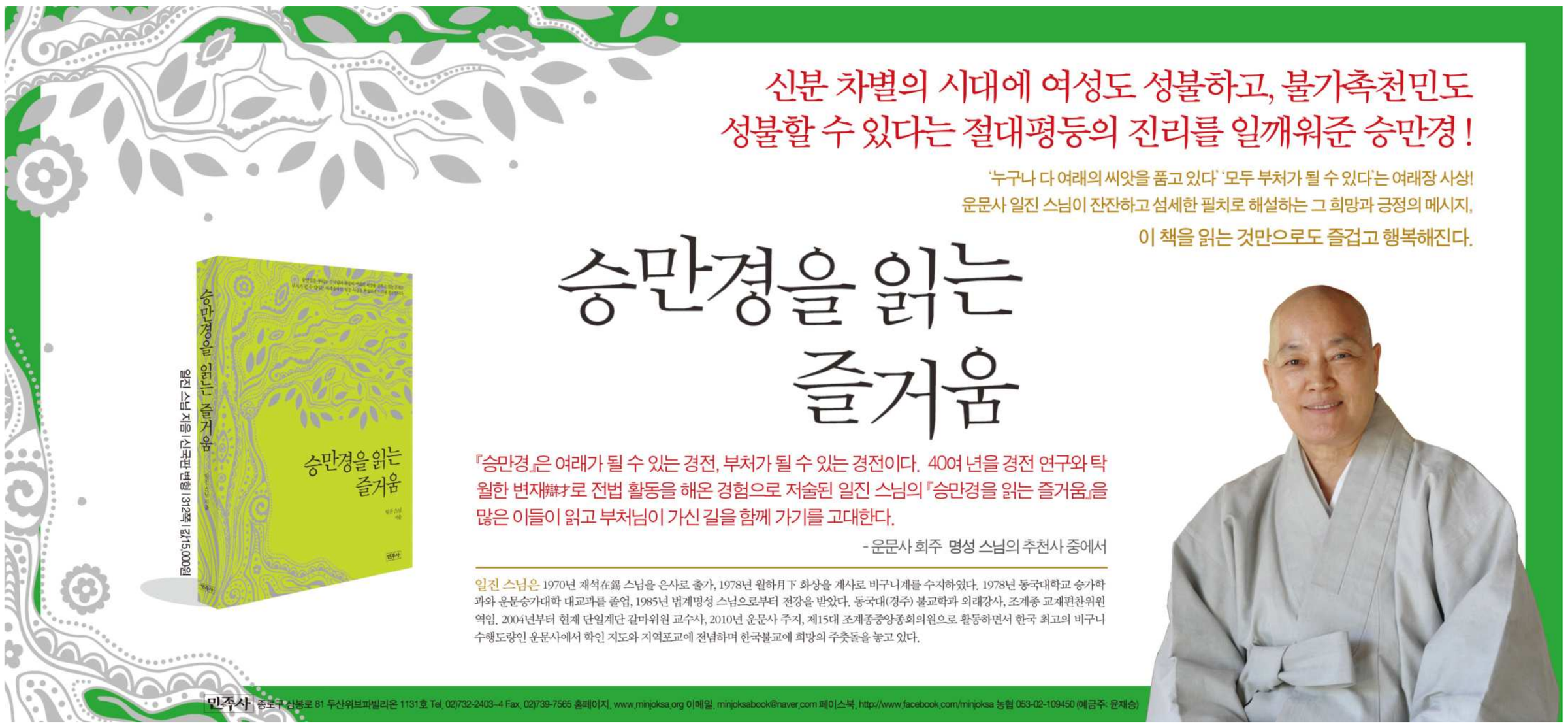
책은 인도 근본불교에서 비구니 승단이 지켜야 할 계율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필추니' 는 '비구니' 를 가리키는 용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불교의 율장 중에서 이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는 독립적으로 비구니 율장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을 포함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는 인도불교의 유파인 설일체유부가 새로운 사상을 정립한 뒤에 완성된 율장으로서,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부파불교에서 수지 · 수행하며 연구했던 율장이다. 이것을 중국 당나라 의정(義淨) 삼장법사가 한역(漢譯)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필추의 바라제목차인 〈근본설일체유부필추비나야〉 50권과 필추니의 바라제목인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20권, 건도는 〈출가사〉 4권, 〈안거사〉 1권, 〈수의사〉 1권, 〈피혁사〉 2권, 〈갈치나의사〉 1권, 〈약사〉 18권, 〈잡사〉 40권, 〈파승사〉 20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다시 갈마본인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10권과 바라제목차를 간추린 〈근본설일체유부계경〉 1권,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 1권 등이 더해지고, 율장의 해설서인 〈근본일체유부니타나목득가〉 10권 등과 게송을 간추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니타나목득가섭송〉 1권, 〈근본설일체유부약비나야잡사섭송〉 1권, 〈근본설일체유부미나야송〉 3권 등 전체 183권으로 구성된 율장이다.

'제1권' 에서는 율장이 삼장(三藏) 중에서 으뜸으로, 계율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최상의 복락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가섭의 출생과 출가, 세존과의 만남과 수행을 서술함으로써, 대가섭을 통해 부처님 법맥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권' 에서는 여덟 가지의 바라시가법 가운데 음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3권' 에서는 투도, '제4권' 에서는 살인과 대망어에 대하여, '제5권' 과 '제6권' 에서는 20승가벌시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7권' 부터 '제11권' 까지는 서른세 가지 니살기바일저가법에 대하여, '제12권' 에서 '제17권' 까지는 180바일저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17권에서 제19권' 까지는 필추니의 바라제목차를 해석하고 있으며, '제20권' 에서는 바일저제사니법과 중학법, 그리고 7멸쟁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책은 필추니승가의 율법에 대한 한역서로, 필추니들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조항을 따라서 실천하여야 수행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필수의 조건이 율장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혼탁한 세상 탈출구는?… 간절한 염불 등

내 이름을 부르는 이 누구나 건너리

인광대사 지음 | 각산 정원규 옮김 | 불광 펴냄
1만5천원



1백여 년 전 혼돈에 빠졌던 근세 중국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진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 불리던 중국 정토종의 13대 조사 인광(印光) 대사는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염불 수행법을 널리 펼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희망을 지켜냈다. 이 책은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염불수행의 구체적인 실천 행법과 수행의 요체에 대한 인광 대사 법문의 정수를 엄선한 것이다.

청나라 말엽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의 근대 중국은 말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운 때였다. 봉건과 근대를 대표하는 동양과 서양이 부딪히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사람이 행해야 하는 선(善)을 지키기보다 당장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지 않으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인광 대사는 인과의 도리와 윤회의 가르침, 정토 염불법문을 널리 펼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었다. 대사의 가르침은 탈속(脫俗)의 고매한 경지가 아니라 수태와 출생, 가정교육, 치병, 임종 등 일상적 삶의 모든 모습을 포괄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태교는 어떻게 해야 하며, 출산을 할 때 왜 염불을 해야 하는지, 자녀교육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왜 여성이 잘 배워야 하는지, 병이 들었을 때 염불하는 방법,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볼 때의 염불 방법, 임종을 맞았을 때 조념염불하는 법 등 실제 생활서 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상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인광 대사는 아미타불 염불만 권장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 염불과 대비주의 염송 이익에 대해서도 널리 설했다. 실제로 대사는 대비주(大悲呪: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송해 만든 대비수로 병을 치료하고 해충 구제를 하며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했다. 대비수의 영험은 불가사의해 많은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지금도 중국에서는 대비수를 치병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인광 대사는 인과의 도리에 대해 널리 주창했지만, 그 깊이는 남다른 것이었다. 오역십악(五逆十惡)의 중죄인이어서 장차 아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열 번 혹은 몇 마디의 염불을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의 접인(接引: 부처님이 중생을 정토로 이끄는 것)을 받아서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는 〈관무량수경〉 가르침을 거듭 되풀이했다. 그 말씀은 간절한 믿음과 발원이 있으면 누구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인 것이다.

또한 "천하가 혼란스러운 데는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착수처가 바로 인과의 도리를 바로 아는 것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원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해 염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에 괴로운 과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대사의 바람이었다.

정토종 13대조사 인광대사 법문집
염불수행 실천법 구체적 제시
십념법, 섭심염불 등 소개해
저자 법문 문답식 구성해 수록

인광 대사는 도움을 원하거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길을 일러주며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에 이르는 염불수행법을 설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염불하는 방법, 잡념이 강할 때 행하는 십념기수법(十念記數法),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십념법(十念法), 육근(六根)을 섭수하여 일심불란(一心不亂)에 이르는 섭심염불(攝心念佛)의 방법 등 재가수행자들이 착실하게 수행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염불수행법의 핵심을 상세히 일러줬다.

중국의 절에 가 보면, 법보시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책이 인광 대사의 〈인광대사문초〉와 〈인광대사가언록〉 이다. 오랫동안 염불수행을 해온 각산 정원규 거사는 이 두 책에 실린 대사의 수많은 법문 중에서 이와 같은 긴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우리나라의 불자들에게도 소개했다. 대사가 체득한 염불수행의 요체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가 실생활서 주의해야 할 염불수행법 및 대비수를 이용한 치병법과 해충구제법 등 주요 내용을 선별해 실었다. 또한 마지막에는 대사의 법문을 문답식으로 구성해 정토법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인광대사는?

인광 대사(1861~1940)는 청말 민국 초기에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법의 쇠퇴가 극심한 상황에서, 염불 수행으로 중생 교화와 불법 홍포에 헌신했다. 중국에서는 대세지보살의 화신으로 믿으며 정토종 제13대 조사로 추앙한다. 평생 출가제자는 한 명도 받지 않고, 재가 신자들에게 주로 서신으로 설법했는데, 한결같이 믿음과 발원으로 염불해 극락왕생을 구하라고 권했다. 대사의 법문은 양계초(梁啓超)가 '문자삼매(文字三昧)' 로 칭송할 정도로 말마다 진리를 드러내고 글자마다 종지(宗旨)로 귀결되며,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마음에 들어맞으며, 선종과 정토의 오묘한 법문을 떨치면서 그 사이의 쉽고 어려움을 잘 가려내어, 실로 이전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곳을 훤히 파헤쳤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팔만대장경서 행복 위한 삶의 지혜 찾는다

당신은 고민하며 사는가

진현종 엮음 | 청아출판사 펴냄 | 1만 8천원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담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다.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6년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은 1,514종의 경전으로 이뤄져 있다.

한자에 익숙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읽어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겨우 완독할 수 있으며, 경판을 쌓아 올린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다고 한다. 〈삼국사기〉 저자인 이규보는 〈팔만대장경〉을 '나라의 큰 보물' 이라 했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래되는 국보'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힘쓴다. 그러나 오늘날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요행을 바라며 슬기로움과 지혜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현재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면, 그 원인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고민하며 살아간다.

이런 고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에서 뽑은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서 벗어나는 지혜를 골라 모았다.

1장 '후회해도 소용없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2장 '마음먹은 대로 이룬다' 에서는 세상 만물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3장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에서는 모든 일의 주체와 객체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한다.

어리석음서 벗어나는 지혜 글 가득
〈중아함경〉 〈잡아함경〉 등서 발췌

4장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에서는 성과를 보고자 한다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일깨우고, 5장 '늘 좋은 마음으로' 에서는 세상만사는 마음가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 장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해 줄 것이다.

이 책에 인용된 이야기는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육도집경, 사분율, 중아함경, 잡아함경, 분별공덕론, 경률이상, 법원주림, 법구비유경, 묘법연화경, 대장엄론경, 현우경 등 경전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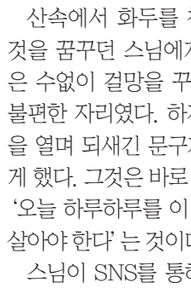
이는 동국대 역경원서 완역한 한글대장경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와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종교와 나라를 떠나 한글을 아는 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시대에 맞는 재해석과 윤문 그리고 재구성을 통해 이뤄졌다. 재미있고 쉬우며, 깨달음을 주는 〈고려 팔만대장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 고민하는 삶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아침마다 SNS에 실어 보내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

글 원허 스님 | 일러스트 이문 |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SNS(소셜 네크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된 요즘, 매일 아침 모바일 SNS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이 있다.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이다. 스님도 "산속에서 수행할 때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에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의 수행 방편이 되다 보니 '밴드' 를 통해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한다. 스님이 날마다 부처님 말씀과 자신의 수행 일상을 전하는 '밴드' 이름은 '원허 스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다. 밴드 회원들의 유쾌한 아침을 책임지는 스님은 오늘도 "예전에 보았던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밑줄 치면서 읽었던 글들도 찾아본다"고 전한다. 이 책은 그간 스님이 밴드에 올린 글을 정리하고 보완해 엮은 것이다.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원허 스님

산속에서 화두를 참구하며 선승이 될 것을 꿈꾸던 스님에게 도심의 사찰 생활은 수없이 걸망을 꾸려야 했던 고단하고 불편한 자리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되새긴 문구가 스님 자신을 여물게 했다. 그것은 바로 〈벽암록〉의 한 구절.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는 것이다.

스님이 SNS를 통해 매일 아침 전하는 이야기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녹아 있다. 취직을 못해서, 직장 상사와 맞지 않아서, 아이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등등. 지금 여러 문제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위로 받고 또 하루를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

원허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실로 짧다. 누구나 아침 출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법구경〉 〈잡아함경〉 〈숫타니파타〉등 경전의 바다서 길어 올린 구절은 시구처럼 간결하다. 그리고 참 쉽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렬하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 이를테면 다음 같은 구절이다.

'단점을 정확히 말해 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 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 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법구경〉中에서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큰 바다의 물은 소리는 내지 않고 흐른다.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찬 연못과 같으니라.' 〈숫타니파타〉中에서

경전 구절과 함께 실린 스님의 짧은 이야기는 현재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오늘이 나에게 전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알았습니다. 토굴에 혼자 있는데도 화가 난다는 사실을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화내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 모두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밤에 마당을 서성이며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자 '아름다운 세상…' 밴드 운영
경전구절과 함께 짧은 해설도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생의 진리를 스님 자신의 경험과 일상을 통해 친근하게 깨우쳐 준다. 매일 아침 출근길 또는 잠들기 전에 스님의 이야기를 한 편씩 읽으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수행자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기회

원허 스님은 평소 도반들 사이에서 지계가 철저하기로 이름난 율사다. 책 서문에서도 스님은 "계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어지러운 세상서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동안 수행자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고 적었다.

책에는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충실한 스님의 모습도 담겨 있다. 주지 스님인데도 여전히 자신의 방 청소를 스스로 하는 모습이나 오래전 해인사 학인 시절 '소고기라면' 을 먹고 3천배를 올린 일 등이 그것이다. 스님은 2013년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혜원정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혜원 대표이사, (재)고산장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포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법도량' 의 회장도 겸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유교와 불교 원융한 '판타지'를 그리다

불교로 읽는 古典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시대와 불화했던 천재 김시습

'시대와 불화' 란 천재의 숙명인가, 이 땅의 모순인가. 단군 이래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지만, 천재들은 대개 불행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기보다 이를 무시하거나 매도하기에 골몰하고, 집단은 학연, 지연, 당파에 얽매여 적으로 공격하고, 위정자들은 이를 키워주기보다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여 탄압하고, 시대는 너무나 앞선 재주와 능력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흘러갔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처럼 불행한 천재도 없다. 그의 가문 자체가 비극을 안고 있었다. 그는 신라의 왕족 김주원(周元)의 후손이다. 김주원은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알천의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자 이틈을 노려 상대등 김경신이 원성왕에 올라 김주원과 그 후손을 탄압한다. 그 후 원성왕계가 소성왕, 헌덕왕, 흥덕왕, 애장왕, 민애왕, 신무왕, 헌안왕, 희강왕 등 8대에 걸쳐 왕위를 장악한 반면, 주원계는 단 한명도 왕위를 되찾지 못한 채, 그 아래서 벼슬살이를 하거나 원성왕계와 맞서다가 죽음을 당한다. 그 와중에 그 후손인 김흔은 신라 5교 9산 가운데 성주산파를 개창한다. 설잠(雪岑) 김시습의 반골, 방외인(方外人)으로서 숙명과 불교와 인연은 가문의 유전자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듯, 세종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장차 크게 쓸 재목이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비단을 하사하며 5세라는 별호를 주었다. 그는 이미 5세 때에 왕도 놀랄 정도의 한시를 짓고 〈중용〉과 〈대학〉을 배웠으며, 13세에 〈맹자〉·〈시경〉·〈서경〉을 배우고 이해했다. 하지만, 21세 때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자 보던 책들을 불사른 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온 장안 사람들이 세조의 전제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거리에서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랑에 주섬주섬 담아다가 노량진 가에 임시 매장하였다. 그 후 그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시를 남겼다. 31세인 1465년 봄에 경주로 내려가 경주의 남산인 금오산(金鰲山)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칩거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

최초의 한국 소설, 금오신화

〈수이전〉 과 〈태평한화(太平閑話)〉를 효시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어느 정도 소설의 꼴을 갖춘 것은 〈금오신화〉이니, 이를 한국 최초의 소설로 규정해도 크게 이의가 없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등 다섯 편의 서사가 수록돼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에도시대에 유통되며 조선간본(朝鮮刊本, 1549년)에서 오스카(大塚本, 188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판본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본의 소설 〈도키보오코(伽婢子)〉나 〈죠루리모노가타리(淨琉璃物語)〉에도 번안이 되거나 영향을 미쳤다. 최남선이 오스카본을 일본에서 다시 가져와서 〈계명(啓明)〉 19호에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명나라 구우(瞿佑, 1341-1427)의 〈전등신화〉의 형식을 모방하였지만, 내용은 독창적이다. 필자는 전등신화에서 서사의 대강을 시사 받은 후 자신의 선조인 김흔과 관련이 있는 조신(調信)의 설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귀교환(人鬼交歡) 설화, 당대의 정치현실과 사건, 자신의 삶과 처지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재질서하여 시간을 넘나들며 조선의 공간에 형상화하여 창작하였으리라 추정한다. 공자는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서는 말하자 말라고 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전등신화〉는 금서로 지목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런 분류의 책들을 석실에 숨겨야 했다. 반면에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괴력난신보다 작품의 교훈성에 초점을 맞추어 허용하였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 유행하여 일본판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온 인생유전의 근인이다.

'심유천불(心儒踐佛)' 이나 '불적이유행(佛跡而儒行)' 이라 할 정도로 김시습의 사상에 유교와 불교가 융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정도(正道)인 유교 안에서 사도(邪道)인 불교를 포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신귀설(神鬼說)', '태극설(太極說)', '천형(天形)' 등의 글에서 불교와 도교의 신비론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현실론을 폈다. 〈금오신화〉 또한 패도정치를 종식시키고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는 그의 이상과 유교적 합리주의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전을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업의 원리를 보다 '만복사저포기'

우선 〈만복사저포기〉를 보자. 양생(梁生)은 일찍 부모를 잃고 결혼도 못한 채 만복사 동쪽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고독한 심사를 읊는 시를 읊자, 공중에서 "그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다면 어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걱정하느냐?"라는 말이 들린다. 이에 그는 나무로 된 주사위인 저포를 가지고 불전에 나아가 "제가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여 볼까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포를 던져 이긴다.

그 후 어여쁜 아가씨가 불전으로 와서 배필을 얻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그 처녀는 왜구의 침략으로 부모와 친척을 모두 잃었음은 물론, 자신도 절개를 지키려다 죽은 여성이다. 다음 날 개녕동에 있는 처녀의 집에 가서 3일을 함께 지내고 이별한다. 그 이튿날 처녀의 부모를 만나 보련사에서 장례를 치른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천도재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라고 말한다. 양생은 그 뒤에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매월당 김시습(1435 ~ 1493)의 진영. 그는 31세인 1465년 봄에 경주로 내려가 남산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칩거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창작했다.

정치에 실망한 매월당 김시습
산에 칩거하며 '금오신화' 집필
儒·佛 만남의 세계관 보여줘

日 에도시대 유행한 '한류 원조'
"시대 맞게 새롭게 창작되길 기대"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몽 설화와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다. 세달사의 승려 조신은 당시 태수였던 김흔의 딸인 김랑과 인연을 맺어달라고 관음전 앞에서 빌어 김랑과 부부가 된다. 그 후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말년에 가난하게 되어 굶주려 죽은 아이를 묻은 후 서로 이별하며 피눈물을 흘리다 보니, 꿈이었다.

두 이야기가 공통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제행은 무상한 것이며, 사람의 삶은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 〈금오신화〉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팔정도에 따라 정업을 짓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깨우쳐야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는.

선업이 맺은 인연 '이생규장전'

송도에 사는 이생(李生)은 최 씨 처녀를 보고 단번에 사랑에 빠져 밤마다 그 집의 담을 넘어 처녀와 몰래 사랑을 나누었다. 이생의 부모가 뒤늦게 이를 알고 이생을 울주로 보내버려 서로 애를 태우다가 상사병에 걸린 최씨 처녀의 노력 끝에 양가 부모의 허락을 얻어 혼인하고 이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략으로 피난을 가다가 최 씨는 겁탈하려는 도적에 항거하다 죽고 이생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최 씨의 집에서 이생과 최 씨는 재회하여 수 년 동안 오직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낸다. 그 뒤 환생의 기한이 차서 최 씨는 사라지고, 이생은 처녀의 뼈를 찾아 묻어준 이후 병을 얻어서 죽는다.

줄거리만 보면 불교와 연관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다시 헤어짐을 슬퍼하는 이생에게 최씨는 말한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잠시라도 시름을 풀게 해주었었지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죽은 후에도 다시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서도 아무런 죄를 지지 않은 채 선업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살아 있는 두 사람이 맺어진 것도, 최씨가 죽은 후에 다시 재회한 것도, 최씨가 아예 저승세계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선업에 따라 맺어진 인연이다. 그러니, 이생은 이승에서의 재회를 확신하며 최씨의 뼈를 찾아 묻어준 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실을 세간, 비현실을 출세간으로 보면, 이 작품을 세간에서 고통을 끊고 행복을 누리다가 최 씨가 죽자 출세간에서 다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어서 출출세간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열반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포기와 실존의 변증법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는 역설이 가능하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다시 출출세간으로 이행하게 하는 동력은 바로 사랑의 보살행이다. 이런 해석은 〈금오신화〉에 실린 다른 소설에서도 가능하다.

불교의 유교적 수용 '남염부주지'

'남염부주지' 는 박생(朴生)이라는 선비가 염부주(炎浮洲)에 가서 염왕과 담론을 벌이는 내용이다. 염왕은 그의 지혜에 탄복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위문(禪位文)을 썼는데, 그 후 꿈에서 깬 박생은 얼마 뒤 병이 든 뒤 죽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네 이웃집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알레고리로 읽으면, 세조의 패도정치와 김시습이 방외인으로 사는 삶은 박생이 박생이 뛰어나고 올곧은 선비임에도 연이은 낙방으로 앙앙불락(怏怏不樂)한 삶을 사는 현실과 통한다. 여기서 염왕은 천리를 따르는 지도자이며, 염부주는 왕도정치의 이상이 구현되는 곳이다.

전체 내용은 패도정치를 종식하고 왕도정치의 구현하자는 것이고, 담론 내내 유교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귀신, 천국과 지옥, 특히 기복적 불교를 비판한다. 박생의 질문에 염왕은 "부처님은 청정(淸淨)하다는 뜻이고, 임금은 존엄하다는 칭호입니다. 어찌 청정한 신이 인간 세상의 공양을 받고, 존엄한 임금이 죄인의 뇌물을 받으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사이의 형벌을 용서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이어 박생이 윤회에 대해 묻자, "정령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윤회가 있을 듯하지만, 오래 되면 흩어져 소멸되지요"라고 답한다. 유학관에 따르면 귀신과 윤회설을 부정해야 한다. 불교를 따르면 열반에 이르지 않는 자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시습은 이 대립을 정령의 흩어짐과 아님으로 해결한다. 곧, 정령이 흩어지기 전에는 윤회를 되풀이하지만, 정령이 흩어지면 혼과 백, 육체가 모두 사라졌으므로 윤회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금오신화〉는 유교의 합리주의의 틀 안에서 불교를 원융(圓融)한 15세기의 판타지 소설이다. 츠베탕 토도로프는 판타지를 '망설임' 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였다. 현실과 비현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망설이며, 자아가 어떻게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고 있는가를 해석하면서 유교와 불교 사이를 오고 가다 보면 많은 깨달음이 따르리라.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붐을 타고 극 중에 주인공인 천송이(전지현 분)가 〈구운몽〉을 읽고 있는 장면을 계기로 중국에서 이 소설이 인기라 한다. 일본의 에도시대에 많은 대중을 사로잡았던 〈금오신화〉가 다시 동아시아에서 사랑을 받기를. 현실성이 부족하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양상이 치열하지 못한 점 등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작품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2014년도 12월 10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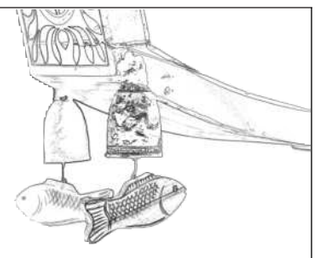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도를 닦아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 영원히 남는 것과 같다.

- 사십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야 콘 판 매

당도와 맛 우수함
사찰음식과 건강식품
활용 용이함.
5kg, 10kg 쥬스
011-9503-4848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원 관음사)
063-620-9201
010-5065-48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3770-5313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부전 기도 공양주 소개

사찰 포교원 안내 창립
포교원 할 분.
서울 화곡동 위치
코너 남향2층 최고적지
010-5381-1419

방생포교에 원력스님 처사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840-8277 노스님

부전자리 원합니다

(비구, 세수 57)
010-8955-9485

국제 신통력 전문 교육센터

- 의통(질병,건강치유사)
*식이요법,심리요법,염력요법
(티벳밀교법:염력,원력,기력수련법)
- 도통(삼매,명상지도사)
*산만,집중,혼미,정신장애,우울증,
스트레스,노이로제,컴플렉스,공포증
(치유사,지도사,전문교육양성)
건강회복센터,명상치유센터개설할 분
공익법인 삼보 010-4905-0575

조계종 단풍깃든 산사수려한 사찰옆에 정진할 만한 토굴이 있으니 정진할 비구니스님이 토굴을 원하시면 여기오시어 정진하시기 바람. 그리고 환경 깨끗하고 힘있는 도량에서 무보시로 자기기도 하실 보살님 환영합니다. 비구니스님과 보살님이 뜻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예천 내원암 (큰절위에)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천 등 · 번 개 · 벼 락

-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수한 비술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 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 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단 한번으로 해결해드리며 제사 묘지 백중 필요없음.
신병의 원인은 수백여년 긴 세월 동안내려온 조상업으로 지금 그 환자까지 줄사탕 같이 연결되어 있음.
가까운 조상 천도 빙의퇴마 기치료 최면술은 완치되지 않는다.
가정 우환 해결해 드리며 상담요망
금 강 사 010-5152-1222

어깨부터 발목까지 관절에 대하여 치료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는 스님이나 보살님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0-3359-8897

천도재 보조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급여 180만원.
상담 후 결정)
011-202-391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봉 은 불 교 미 술 원

불화 (탱화) 제작 전문
괘불, 후불 (영산 회상도), 칠성, 신중, 산신,
나한 (오백나한), 감로탱화
종합 (무속탱화), 종류별 불화...
홈페이지 주소 / 봉은 불교 미술원 (불화 자료 보실수 있읍니다)
불모 오 재 택 (가암)
(온양) 010- 8237- 3545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복사
- 대표자 : 김필순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8-15
(현주소 : 수색동 22길 2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불기 2558년 11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11월 21일 (금) 오후 2시 ~ 4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포함)
영 가 특 강 반 (포교원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주.기문학

과목: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풍수지리, 타로카드

◆2014년 최대 이변 이정현 국회의원 적중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3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4년 국운 분석 현재까지 적중 (세월호사건등)
◆2014년 박지성 선수 은퇴 月까지 적중
◆2013년 국운 분석 90% 적중
◆2012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2년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 외9명 모두 적중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월 까지 적중
◆2009년 노무현 대통령 4~5월 事故數(예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적중
◆학생들 공부 잘할 지 못할지 여부 등 집중적 분석.

※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실전문제 풀이반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
위 내용 홈페이지에 있음 060 상담하실분 환영.

공개강좌 : 11월15(토), 16(일) ,17(월) 14~16시 (1회만 오세요)
※특전 : 공부 하는 분께 인당사주프로그램(130만원) 무료 드림.

●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인당명리" 로 검색하면 된다.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홈페이지 참조)
지방에 있는 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제작했으며 USB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했다. 현재 많은 분들이 USB로 공부하고 있다.
◆사주 초급, 중급 + 기문 초급 ,중급 = 150만원(사주프로그램 130만원 무료 드림)

■인당학원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층
인당역학연구소 (사주감정 받을 분 전화주세요) 02) 929-631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어서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 금강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계곡이 흐르고 건물 3동
- 토지1700㎡
- 물과 산과어우러진 조용한 암자
- 양도금액 : 3억3천만원

010-5479-5779 (창건주)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4439-44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220평 ◎ 부지 : 30평
◎ 법당 : 50평 ◎ 인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시내토굴
◎ 양도 : 6억8천 ◎ 양도 : 3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기 양평(급) 사찰 양도
* 법당 42㎡. 요사채 60㎡. 토지 약 1500㎡
* 주변이 산과전원주택. 추천사찰
* (급)양도금액 : 3억(실인수가 2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목조주택, 인법당
- 대지 100평, 건평 25평
- 실평수 35평정도
- 동남향 마을끝집 옆길 있음
- 개인토굴 장만하실 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가능) 대출 6,000만원 정도됨

017-808-25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평수 : 45평,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 거리
- 건물 :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 수목장, 등 적지)
- 가액: 6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7376-172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농 가 주 택

- 위치 : 경북 영양읍 근교
- 주택 30평, 부속건물 10평
- 대지 206평, 급수 전기 도로
- 남향, 한적한곳, 반 값
- 가액 : 6,900만원 주인직

010-8899-88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6413-04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음성 감곡면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방3
- 공양간 화장실 2개, 창고 1, 텃밭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없음
- 오랫동안 사용가능
- 주지스님 이주 관계로 급 안내 그리고 내부시설 협의 가능

010-3293-17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 1, 종무소, 공양실 1, 화장실 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재래시장 앞 사거리 코너
- 약 30평, 2층
- 가액 : 2,000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불상 및 후불 신중탱화 저렴하게 주실 분

010-7139-55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50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 가격 상관없이 하실 분 보고 결정

010-8957-8089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 대지 : 382평
- 법당 34평, 삼성각 6평, 요사채 1.2층 1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령 IC에서 5분거리
- 대지 145평, 삼존불, 방 4개, 넓은 마당
- 가액 : 전체 9,500만원
- 몸만 오시면됩니다
- 몽땅 9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914-5789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2채 50평, 방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42-36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성무로 21번길 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천 오백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에서 오래된 사찰 기도 많이 하는 지장도량
- 실평수 약 1,700평
- 시설 : 지장전, 산신각, 노천 지장석불, 요사채 3동 (방)10개
- 가액 : 6억 3천

010-3122-0077

혜 광 선 원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163평, 전답790평, 건평40평1채(준공4년), 12평1채(올해완공), 원두막1채, 각종 과실나무 올해부터 수확
- 경치 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 총 2억4천만원(조정가능)

010-8591-10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2, 친견실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사찰 운영 중, 모든 조건 완비
- 서울 상계 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 등기소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사통팔달 교통 편리, 지하철역 근접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 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500만원

010-4680-93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 가옥 7채
- 총평수 99평
- 법당, 요사채
- 산신, 용왕, 칠성각
- 가액 : 3억(절충가능)

054)857-1960
010-9381-5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 평수 : 60평
-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대구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태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28평
- 1층 방3, 주방, 거실 /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범종, 소불 108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3천, 월세 3천에 월 50만원

010-8611-756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호계시장 입구
- 평수 24평, 5층건물 3층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300) / 방2, 주방, CCTV 4대 설치
- 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 주방집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369-3569
010-3136-88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010-6303-2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임야)나무삽니다

- 위치 :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임야 3,000평 부터
- 도로개설 무료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총평수 750평,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 사찰에서(대진,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새마을금고 대출 5천 5백만원)

010-4747-31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충무동 시장통內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 (바로 입주 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버스 5분거리
- 4층건물중 3층, 4층 각 60평
- 3층 :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4층 : 주택, 방 3칸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130만원 (3, 4층 포함, 분리도 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3664-1387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뇌연구 박사)

〈4〉 본능과 직관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본능 · 직관사이 이성적 정신 '지성'
좌반구에 기반 두고 외부 지식 처리

우반구에 의지하는 '직관'은
내면의 가르침으로 통찰과 앎 제공

사고 몰두하는 지성은 직관의 장애물
최고의 아이디어는 긴장 풀 때 떠올라

그러나 아이디어 세상에 전달하려면
지성 갖춘 좌반구 역할과 함께
강인하고 활동적인 전두엽 지원도 필요

창의 · 직관 · 몰입은 의식 고차원 요소

고차원 의식을 향하여

본능과 직관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자발적이고도 적절한 행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둘이 함께 적절히 작동할 때 당신은 어느 것에도 저항하지 않는 몰입 상태에 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능과 직관 사이에는 당연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본능은 육체의 영역에, 직관은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육체가 즉흥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부르고, 정신이 즉흥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본능이 없으면 당신은 생존할 수 없고, 직관이 없으면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본능은 육체적이며 과거와 관계가 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므로 거의 언제나 올바르고 완벽하다. 본능은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에 자리한다. 뇌간과 시상하부 같은 구조물이 그것으로서 파충류 뇌를 이룬다. 본능은 동물과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생식 및 자기 보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처리한다.

여기에는 심장, 순환계, 호흡, 음식섭취, 성행위 등에 대한 조절이 포함된다.

본능과 직관 사이에 이성적인 정신, 즉 지성이 존재한다. 비교적 최근에 진화된 지성이라는 새로운 능력은 좌반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듯하다. 좌반구가 논리적이자 언어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관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우반구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관을 이성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직관은 본능을 초월하며 지성 역시 초월하는 게 틀림없다. 직관이 지성을 초월한다면 어떻게 지성으로 직관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직관이 무엇인지를 이성의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뇌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직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직관을 훈련하는 법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관은 내면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성이 그 지식을 처리한다. 하지만 직관은 갑작스런 통찰이나 앎이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지성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 지성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반면, 직관은 앎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지식은 타인의 경험에 기초하고, 앎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직관을 경험하는데, 보통 특정 문제에 대한 순간적인 통찰의 형태로 경험한다.

끊임없이 사고에 자주 몰두하는 지성은 직관의 장애물이다. 최고의(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자주 떠오른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샤워를 하거나 산책 중이거나 명상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꿈의 실체〉에서 오쇼는 이렇게 말한다. "직관은 명상을 통해 문을 연다. 명상은 단지 직관의 문을 두드릴 뿐이다."

창의성, 몰입, 직관의 중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정신의 활동이 잦아든다. 정신적 활동은 주로 좌반구에서 일어나고 종종 강박적 사고로 나타난다. 좌반구의 분주한 사고 활동이 우반구 활동을 억압하고, 따라서 직관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우반구는 꿈, 환상, 감정, 이미저리 같은 잠재의식 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우반구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이 직관적일 가능성, 따라서 창의적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모든 창의성은 사실상 직관적이어야 한다. 지성은 창의적일 수 없다. 지성은 논리와 기계론을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관과 창의성에 접근하려면 좌반구가 우반구와 협력해야 한다.

창의적인 과정은 네 단계에 진행된다고 한다.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 영감(illumination), 검증(verification)이 그것이다.

분할뇌 연구자 조셉 보겐은 창의적 과정을 촉진시키는 흥미로운 뇌 기능 이론을 제시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①준비(독서, 가설 수립, 질문 등)는 대체로 좌반구에서 일어나고, ②부화(잠재의식에 있는 자료들의 재구성)는 우반구에서 일어나며 ③영감은 반짝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찾아오는데, 그 아이디어는 뇌량을 통해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전달되고 ④그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하는 일은 좌반구가 맡는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EEG 연구는 직관적인 통찰이 우반구에서 생겨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배빈 세스와 시모네 잔트퀼러, 조이딥 바타차리야는 문제해결 실험에서 피험자가 까다로운 인지문제를 통찰하기 8초 전까지 우측 전두엽에서 빠른 감마파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통찰이 우측 전두엽에서 생겨나서 단지 몇 초 후 뇌량을 통해 좌반구로 전달되면 좌반구는 그것을 '아하! 경험' 이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석하는 듯 하다.

호주 연구진의 2011년도 연구 역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드니 대학의 리처드 치와 앨런 스나이더는 우측 측두엽이 통찰이나 획기적인 해결책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전기 자극을 가해 좌측 측두엽의 활동을 억제할 경우, 선입견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 인지 양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소통: 창의성의 필요조건

창의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량을 통한 좌우반구의 소통 능력이다. 뇌량의 활동은 거의 전부 억제적이다. 하지만 창의적 과정에서는 두 반구가 상대 반구를 억제하거나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

분할뇌 환자의 경우에는 좌우반구가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반구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호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분할뇌 환자들에게서 창의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좌우반구의 소통 중단은 '창의성의 뚜렷한 부족'을 야기하며, 심리검사와 EEG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호페는 말한다.

분할뇌 환자의 경우, 뇌량 절제가 좌우반구 사이의 알파파의 응집성을 감소시킨다. 그들의 좌반구와 우반구에 등장하는 알파파는 더 이상 서로 동조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좌우반구의 알파파가 높은 수준으로 동기화되며 서로 응집한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과 환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감정표현불능증 환자)도 좌우반구의 알파파의 응집성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창의성은 감정표현불능증의 반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클라우스 호페는 결론을 내린다.

위의 연구들은 창의성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뇌량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양측의 정보를 통합하는 좌우 두 반구의 능력을 뇌파 응집성을 토대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과 창의성은 질서와 혼란, 분석과 직관, 의식과 무의식, 좌뇌와 우뇌의 경계에서 등장한다.

몰입의 뇌 과학

직관과 창의성은 몰입 상태와 관계가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활동(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고 심신은 어느 것에도 저항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는 일종의 무아지경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몰입 상태에서 개인은 강렬하게 집중하고 고도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당면 과제에 완전히 몰두해 시공간을 잊고 그 과제와 무관한 자극은 모두 무시한다. 이 상태는 무아지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몰입은 무아지경과 유사하고 고도로 깨어 있는 동시에 고도로 집중한 상태이므로 나는 그것을 의식적인 무아지경이라고 부른다.

이제 몰입 상태에 대한 뇌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그것은 이 책 곳곳에 언급된 각성 상태에 대한 뇌 이론과 관계가 있다. 몰입 상태에서는 두정엽(연합 영역과 사고 영역)이 일부 활동을 멈추는 반면, 전두엽과 우반구가 활성화된다. 전자는 무아지경을 설명하고, 후자는 강렬한 집중과 직관적인 몰입 행동을 설명한다. 따라서 몰입 상태는 고차원 의식과 비슷하다.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당신은 몰입 상태에 있다. 완전히 긴장을 풀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뇌파들의 동기화가 잘 이루어져 진폭이 커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신체 영역에 몰입하고 있을 때 뇌는 알파파를 발산한다. 정신 영역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빠른 베타파와 감마파가 전두엽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동기화를 통해 뇌파의 진폭이 커진다는 말은 뉴런들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뉴런들은 서로 응집하고 협응한다. 초점의 대상을 바꾸거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것에 저항하는 순간, 뉴런들의 이런 응집이 사라지고 뇌파가 비동기화돼 진폭이 더 작고 더 느린 뇌파들이 등장한다.

전두엽 감마파 훈련을 할 때 사람들은 의식적인 무아지경에 자주 들어선다. 그 상태에서는 조금 졸린 듯 하지만 매우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자극에 즉시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습관적인 사고에 빠지는 순간, 감마파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 이유는 전두엽이 비활성화되고 두정엽의 연합 영역이 재활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집중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지 않으며 무의식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피험자가 사고하는 동시에 고도의 감마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들은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듯하다. 원할 때마다 사고하기 시작하고 모든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피험자 가운데 심리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전두엽의 감마파 활성화 수준이 처음부터 높았고 뉴로피드백을 통해 그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까다로운 통계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 그 심리학자는 고민 중인 과학 문제에 강하게 집중했으며 모든 생각을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분명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마파가 고도로 활성화될 때 저의 정신은 크리스털처럼 투명했어요. 시야가 넓어지고 집중이 극대화 됐죠. 그 감마파 상태에서 저는 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보고 이해하고 얻는 능력이 더 커진 걸 실감했어요."

요약하면, 창의성은 모두 직관적이다.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작동하는 우반구에서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한, 좌반구의 기계적인 지성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갖춘 좌반구가 필요하다. 완전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좌우 두 반구의 협력, 즉 지성과 직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에 더해서 강인하고 활동적인 전두엽의 지원도 필요하다. 전두엽은 주의를 지시하고 집중을 유지하므로 창의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창의성은 직관적이고, 직관은 몰입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창의성, 직관, 몰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 새로운 의식의 중요한 일부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에릭 호프만의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갤러리 색즉시공



〃 (삽초)

不二關廣藏法界 (불이관광장법계)
불이(不二) 관문은 넓어 법계를 감추고

入聖出凡無厓 u(입성출성무가애)
범부를 나와 성인에 들어 걸림이 없어라

等閒把住問揷 (등한파주문삽초)
등한히 삽과 가래를 꽂은 뜻을 물으니

底事分明却不會 (저사분명각불회)
그 일은 분명해서 도리어 알지 못함이로다

미술 · 글=선진 스님

나의 주변에 부처님이…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세닢으로 집, 천냥으로 이웃 산다"
장경호 삶 읽고 '포교' 다시생각
작은 공덕 실천이 '부처'로 가는 길

나의 이웃들

옛 말에 '세 닢 주고 집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일 년에 두 번 한꺼번에 양말을 열 켤레쯤 사서 아파트 경비아저씨, 택배를 오시는 분, 우체부 아저씨 등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하루는 동네 구둣가게에서 구두를 닦는데 구둣가게 아저씨가 구두를 닦아주며 한 걱정 했다.

"해마다 전세금이 올라가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살림이 좀처럼 나나지지 않는 게 서민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찡했다.

"아저씨 우리 집 양반이 키가 좀 작으세요. 아저씨와 얼추 같을 것 같은데 옷하고 구두를 좀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아저씨와 나는 친해져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한번은 수선할 구두를 가지고 가니 아들이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내게 아들의 합격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티셔츠라도 사주세요." 하고 축하금을 전했더니 고맙게 받았다. 살아보니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 자유롭고 기뻤던 것 같다. 하나 알면 하나 쥐어주고 하나가 있으면 반절을 그 자리에서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친소, 부모형제, 거리 따지고 나중에 먹을 것, 살 것 생각하고 살면 누구랑 언제 만나 밥을 먹고 사랑을 하겠는가. 남녀 사이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웃과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게 진정한 바라밀이 아니겠는가! 송파에서 가정법회를 시작했던 것도 내 집에서 모이면 좀 더 넉넉히 나눠줄 수 있고 따뜻한 밥도 나눠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친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만나는 순간순간이 내게는 입재였고 헤어질 때 회향이 되게 했다. 방석 위에 앉아 참선을 하거나 불법을 배우려고 밖으로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일,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일에 있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수련이요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줄 때가 온전한 주인공 역할이다.

"마음 닦는 공부만 하세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세요."

해인사 종진 스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지식이 곁에서 조언을 해주셨기에 남을 돕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습관도 실천하고 살았던 것 같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누가 구하러 내 집에 오면 그냥 다 내주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기에 남들이 말하는 노후대책을 해본 일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불교를 알고부터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운명을 운전해왔다. 부를 쫓기보다는 마음공부를 추구해왔고 조건 없이 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살아 왔다.

불교를 알고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한 것인데 드러나는 몇 가지에 집착해 싸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생은 연극과 같고 나는 연극을 무대에 내놓는 연출가다. 내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진다.

장경호 거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어제 저녁 밤새워 동국제강 창업주이셨던 장경호거사님 평전을 다 읽었다. 너무 잘 읽었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다. 책을 읽고 "재가불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어느 재가불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하게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위한 보살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까지 읽는데 가장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분이 울산 근처에 수도원을 만들려고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과감하게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불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장면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만두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다.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큰 삶을 사셨던 분도 '사람'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려는 원력을 가지고 서울 주택가에서 가정법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로서 집을 법당 삼아 공양주 노릇을 하면서 민들레 홀씨가 되어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자아완성을 하고자 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의기투합이 되는 것을 느꼈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느 재가 불자가 포교를 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경호 거사님은 우리나라 민간 철강 제일의 동국제강을 창업해서 사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신 분이다. 토굴에서 안거를 함께 나고는 사람을 만드는 수도원을 만들 것을 함께 계획했던 성수 스님은 묵묵히 수행하던 모습이 마치 저 옛날의 조사 스님을 보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어느 경계에서도 절대 속지 않는 경지에 가 있었다. 수행과 교화에 있어서 근현대를 통틀어 동양 제일의 거사였다."는 말씀은 그분이 얼마나 수행력이 깊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철강업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민족정신을 품었던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에는 선지를 꿰뚫기 위해 일생을 산 매서운 수행자의 모습과 함께 '자아를 발견하여 지상에 낙원을 이룩하라'는 기치 아래 대중불교운동을 펼친 전법자의 모습이 공존했다고 한다. 새벽녘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읽으면서 "아, 대중교화에서 원력이 이리도 깊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수시로 눈물이 나왔다.

평소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살아 숨 쉬는 경전이 대중들에게 읽힐 때 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장경호거사의 사재로 세워진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역경사업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큰 불사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대장경 완간에는 장경호거가의 한국불교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스며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인연이 느껴졌다.

부인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일꾼들의 밥을 직접 지어주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어머니 일하는 아주머니 시키세요" 라고 하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처님들의 밥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며 손수 밥을 지어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이야 말로 진정한 큰 어머니 역할을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 동안 불교방송국에 약간의 후원금을 보냈고, 불교방송국이 창립되면서 주식을 사놓은 일도 있고, 장경호거사님으로 인해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 주최의 대원상도 추천받은 적이 있으니 동국제강과 인연이 깊기는 깊은가 보다.

'부처'로 가는 길

내리사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치기사랑도 있었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치기사랑이다. 부처님께 내놓아보라. 언제든 빈자리를 채워주신다.

그분처럼 정확한 분은 없다. 공덕을 쌓은 만큼 기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생에 내가 베풀지 않았으면 이유 없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걸 안 이상 '주는 것'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덕을 쌓아가고 수행이 쌓여가는 과정이 '부처'가 되어 가는 것이리라.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돈 한 푼 두 푼이 쌓여 통장이 불어나듯 작은 공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부처'에 다가가는 것이다.

상대가 산꼭대기에 있으면 산꼭대기에, 강물 바닥에 있으면 강물바닥에, 얼음구덩이에 있으면 얼음구덩이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가면 부처님은 결코 밀쳐내지 않으신다.

욕심과 사심을 가지고 가면 부처님은 받아들여주시지 않는다. 착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겐 좋은 일이 생기고, 사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겐 사나운 일만 생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요 세상의 섭리다. 내가 원력을 세워 마음을 바칠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여여원 원장〉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의 68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통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앙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싼족싼족 불들고 늘어지지 말고 한생각에 툭 털어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부처님들은 "어이구!" 예전에 선지식의 제자들께서 "나는 아주 시끄럽고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산으로 토굴을 묻고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너 그러면 땅도 딛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하하, 남의 꽃을 보고 좋아하지도 말고 아예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해라. 아이, 토굴을 짓더라도 남의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야 하니까 그것도 남의 거를 왜 갖다가 짓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에 홀연히 깨쳐서 토굴을 묻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이 좋고 이론이 좋고 학식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이러지마는, 그것은 안으로 구겨넣을 건 넣고 바깥으로 내놓을 건 내놓고 할 수 있게, 중용을 할 수 있게끔 50%의 내면 정신세계 그거를 알아야만이 걸림이 없이 돌아갑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의 50%만이 안다면 보이지 않는 데 50%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만 간다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그리고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차를 타면은 내리려고 타고, 내리면 타려고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유통돼서 걸림 없이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타기만 하고 내릴 적에는 '아이고, 왜 타는 거는 알았는데 내리는 게, 그렇게 그 안되는 게 많습니까?' 이러거든요. 되는 것은 됐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되는 건 되는데 왜 안되는 게 있습니까 이러거든. 그건 정상이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깐요.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지 항상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는 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병고에서 애고(哀苦)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 관습에 의해서, 항상 살아오던 습성, 남한테 들은 습성, 본 습성,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한생각이면은 그냥 다 벗고 턱턱 털고 일어나건만도 아이고, 깐족깐족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기 걸어온 발자취를 왜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냥 걸어왔으면 걸어왔을 뿐이지 왜 걸어온 발자취, 걸어온 자체를 쥐고 늘어지느냐 이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하루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삼천 년 전을 바로 일 초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일 초를 삼천 년으로 늘일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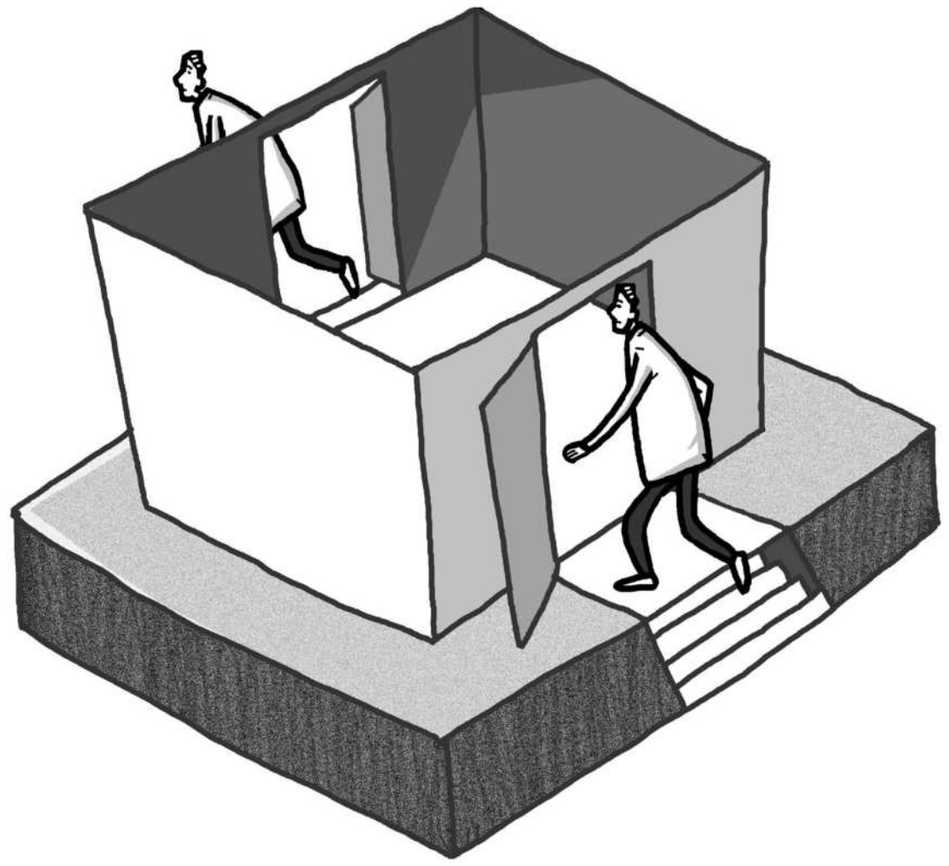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모두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우린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즉 말하자면 보현(普賢)으로 해서 응신(應身)이 돼서 뭇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해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할 줄을 모르는 말이지마는 현재의 우리가 알고 듣고 감지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지만은 그때 용어로 그때 삶의 방편으로 모두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그 용어를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교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처님의 말씀을 다 감지하고 감응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의 용어로다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이 불교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불교라면은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거는 일체 만중생들의 바로 생명의 근본이 불(佛)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의 생명도 곤충의 생명도 전부 불입니다. 불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불이라고 했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말과 말로 통해서 통신으로 통하고 해서, 통해서 (원을 그려 보이시며)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원한 것이며 바로 끝간 데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과학자든지 의학 계통의 의학자든지 공업자든지 정치가든지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완전히 습득한다면 심성천체물리학이 되고 심성의학이 되고, 심성천문학이 되고 심성철학이 되고, 모두가 일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되는 까닭에 하나도 가질 게 없이 되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아주 참,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말로는 수요를 말할 수 없는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평등공법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 연결이 돼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뜻의 그릇을 말하고, 한 찰나에 만났다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찰나에 붙으면 바로 부(父)가 되고 한 찰나에 떨어지면 자(子)가 되듯이 한 찰나에 붙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성철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한데 공(空)한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은 법대로 있고 바로 행은 행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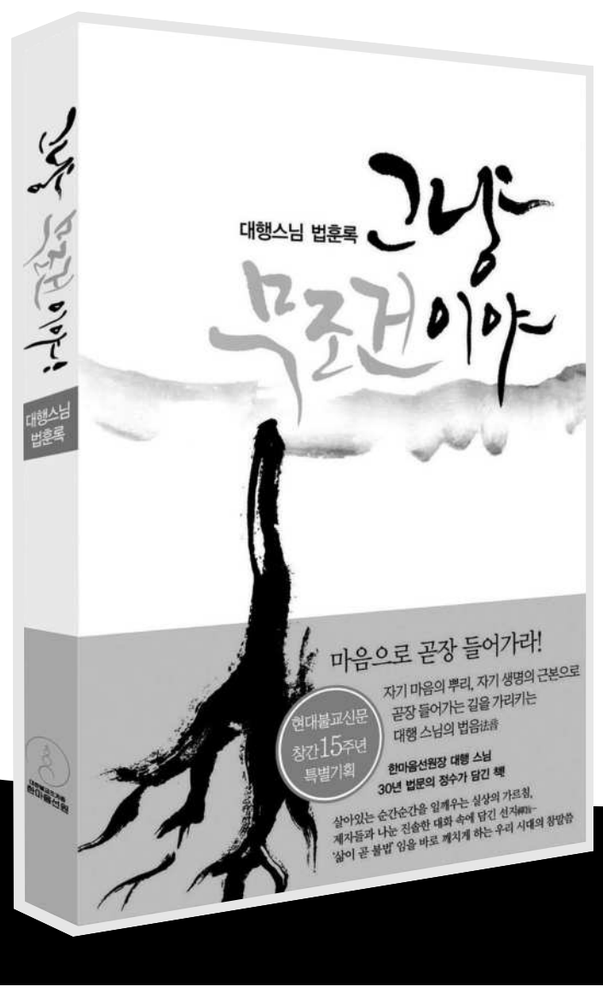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그러니까 찰나에 붙었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보!" 하고 부르면 "그래!" 그러곤 대답을 하고 한 찰나에 그 마음이, 소켓이 딱 끼어지니까 둘이 아니게 불이 일어나서 마음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소켓이 싹 빠져서, 딱 떨어져서 또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한 사람하고 딱 붙으면, '아버지' 하고 붙으면 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서 딱 붙어서 또 소켓이 싹 들어가서 "아버지, 뭐 어쩌구…." "응, 응…." 이러곤 한데 붙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수없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만사가.

그러는 것을 어떻게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아이고, 잘했다.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모두 깨쳐지고 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낫게 해주고 내가 말을 해줘서 여러분이 깨쳤단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듯이 또는 내 몸도 공(空)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고 그저 자유스럽게 살 수만 있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그 오신통(五神通)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신통도 벗어나야 하니깐요. 벗어나서 정말 자유스런 자유인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세세생생에 남의 모든 마음을 집어넣어서 굴려내도 손색이 없고 굴려서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가 혼자 한테 없으니 내세울것도 없는것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경(究竟)에 이르고 열반(涅槃)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다스리시리라고 믿고 질문 있걸랑은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관(觀)의 정의를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되고 안되고를 맡겨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이 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하고 꽃은 꽃같이 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세간법으로 정치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민의에 따라 해야지 억지로 하면 언젠가는 불만이 터지게 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읽는 것이 관이라고 하면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인연 따라 행하는 것이 무심(無心)으로, 업식에 따르지 않는 좌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단이 생기는 것은 스님께서 안될 때는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내라고 하시고 간혹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내다 보면 무심관(無心觀)에서 일보 후퇴하는 일심관(一心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며 억지로 익힌 감과 저절로 익은 감의 맛이 다르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 마음을, 즉 말하자면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상봉을 해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 관찰을 하는 거 다르고, 지금 무지에서 관찰하는 게 다릅니다. 무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겉면만 보고 나쁘다 좋다 하는 거고, 바로 상봉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안팎이 다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요약이 여러분의…,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 둘 아닌 관찰이라면 자기가 봐서 둘 아닌 관찰이니까, 봐서 딱 한생각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바로 손 없는 손이 눈 없는 눈이, 귀 없는 귀가 바로 한 찰나에, 찰나에 왕림이 되니깐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행해진다. 그건 즉 말하자면 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거죠.

질문자1(남): 스님의 가르침대로 무심 수행을 하노라면 권속이, 식구가 살림살이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심을 했었나?' 하고 생각을 하면 번뇌가 찾아들어 무심을 흘어버립니다. 스님의 표현 방법을 빌리자면 무심은 눈을 뜨고 푹 쉬는 것이라면 방심은 눈을 감고 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 감고 쉬면 길잡이 야단을 듣고 눈 뜨고 쉬면 권속이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꽉 막힌 곳에 방귀씨 털 먹이는 도리가 있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여여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한 푼이고 두 푼이고 열 푼이고 이거고 저거고 따지게 되면 아주 산란합니다. 더 갖고자 해서 산란하고 덜 가지면 못 가져서 산란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양면을 다 놓으십시오. 다 놓고….

왜 놔라 이러느냐 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건데, 자는 걸 버릴 수도 없고 깨는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그냥 다 놓고 '으응, 너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다 놓아버리세요. 그런다면은 '너는 네가 다, 네가 하는 건데, 먹이는 것도, 네 시자를 먹이는 것도 네가 먹일 거고, 끌고다니는 것도 네가 끌고다닐 거고, 다 굶어죽이는 것도 네가 할 거고 살리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뛰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겁니다.

> 차도 타고 내리는 게 있듯이
>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지
> 항상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는 병으로 삼는다면
> 우리는 항상 병고에서, 애고(哀苦)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화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교라고 생각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선방에서는 '이 뭣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선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있음' 이라고 했습니다. 또 큰스님께서는 '아빠' 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화두 중에 내면에 잡히는 것이 있고 잡히지 않는 것이 있는 걸 볼 때 이는 자기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치신 분들마다 화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때 이는 무슨 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표어가 다른 것은 시대나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점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 이름의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 그대로 믿고 (정면을 찔러 보이시며)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이게 뭣고?' 하는 건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는다면 바로 영원히 먹일 씨도 나오고 또는 맛도 알고 그럴 테니까 '잘라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을 다, 그 많은 이름을, 그 많은 공안을 다 놓고, 그냥 못 믿지 말고 믿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상대성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부처가 있는 줄도 알았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무효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 먹어봐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 하면은 전체 한데 합쳐진 주인공입니다.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나 외부로나 모든 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전체 뿌리를, '나무는 전체 뿌리를 믿어라. 네 나무는 전체 뿌리에서만이 너 나무가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살 수 있다. 너만이, 네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성돼서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믿고 무조건 놓아라. 무조건 믿고 거기에 맡겨놓아라 이런 겁니다. 맡겨 굴려라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뭣고?' (손수건과 컵받침을 함께 들어 보이시고) 하고서 굴리다 보면은 십 년이 가도 그만, 이십 년이 가도 그만, 삼십 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안 그렇습니까? (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주 법회 때 스스로 마음으로 정한 보시금을 바쁜 곳에 대용해 쓰고 다음에 보시하겠다는 것은 즉, 돈에 돈 섞기니까 급한 곳에 먼저 쓰고 형편 되면 다음에 보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은, 물건값을 주고 그 돈을 다시 뺏어오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도리로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를 저질렀을 때 되돌려놓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큰스님: 물론 둘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여여하게 다스리고 참, 구족(具足)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허나 지금 배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도 우리가 이건 참 감사하니깐 시주를 해야겠다 이러고 떼놓지 않습니까? 떼놓고 있다가 그 이튿날이고 언제고 이거 돈이 급해서 그냥 뭐 쩔쩔매다가 어이구, 어디 가서 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꾸어 쓴다 이런 생각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건을 산 값입니다. 이 돈을 시주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 산 겁니다. 그럼 물건은 가져오고 이게 물건값은 도로 빼앗아 온다면 그건 그 물건 사왔던 걸 도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예 내 가정이나 내 삶,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또 부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아서 정성껏 새 돈으로 바꿔서, 이건 정성이니까 이렇게 떼어놔라 이래야지 무턱대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도로 갖다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일러주느냐 하면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여기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에 사는 사람인데 공업을 새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저 요만한 하꼬방처럼 해놓고서 그거를 지금 사글세로 들어서 있으면서 먹고 살 양으로 뭐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 그 물건이 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이그, 그냥 시주를 부처님 앞에 해봐야겠다.' 그러곤 시주를 그때에 오만 원인가?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그래서 시주를 하려고 그거를 이불 갈피 속에다 넣어놓고는 턱 나왔는데 아, 그 물건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다가 그걸 도로 갖다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물건을 되찾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돈 낸 것 그냥 다 줘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곤 와가지고는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시주는 했다 도로 빼앗아 갔어?" 하하하. 이랬더니 "아이고, 애들 학교에 뭘 내는데 그걸 낼 게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 물건도 하는데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또 넣어놓으려고 그랬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절대로. 이거는 부처님 법 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법이지 절대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이유가 거기 붙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경험을 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질문자1(남): 그럼 일단 법이니까 한번 당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큰스님: 네?

질문자1(남): 일단 법이니까 법은 법이니까 자기가 그걸 되돌려받는 방법은 결국 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큰스님: 그런데 이 둘 아닌 관찰을 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즉, 혜향(慧香), 마음의 혜향이라면 해탈향(解脫香)도 할 수 있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게 마음 그대로인데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았더라면…. 이거 해가지고 사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깐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줬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무명 속에서 벗어날 줄 안다면 결국은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 도리를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테죠? 또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고요.

질문자1(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겨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우분투(Ubuntu)" 이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코사족과 줄루족 등 수 백 개의 부족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어느 카페에서 공개한 말인데 이에 얽힌 사연이 감동적이어서 여기 소개해 본다.

서양의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마을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뛰어 가서 거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이라고 외쳤다. 음식을 놓고 아이들에게 경쟁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가 기대한 것처럼 서로 뛰어가면서 경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서 그 음식을 나무에서 내려다 함께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중 한명이 먼저 가면 그 먼저 간 사람이 음식을 다 차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두 같이 갔지?" 라고 묻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 할 수 있나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분투' 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 "함께 있어 내가 있다(I am because we are)"라는 뜻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뜻이 깊고 우주의 철리(哲理)를 담고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모두 서로가 한 뿌리로 얽히고 맞대어 있어 존재 할 수 있음이다.

아프리카에서 '우분투' , 이 말을 쓰는 많은 부족들은 언제나 서로 만날 때면 인사말로 이를 쓴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은 나 한사람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용인 하지 않는다. 위의 아이들 예에서 보듯이 적더라도 다 같이 고른 행복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에 음식을 걸어 놓고,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보자. 과연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로 먼저 독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쳐가며 피나는 경쟁을 벌일 것이고, 마침내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을 독식하려 들것이다. 바로 어른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에게 불행을 초래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사회다.

韓사회, 함께사는 공생의식 희박
일체만물은 연기상생의 존재
상생정신 담긴 '우분투' 배우자

무한경쟁의 현대사회는 정말로 불행의 사회다. 우분투는 공생의식(共生意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공생의식은 우리가 다 같이 연기(緣起)의 존재임을 깨우칠 때,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연기란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연생기(因緣生起)' 의 준말로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이 없어진다(此滅故彼滅)"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약해 말하면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자연이 있어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어 자연이 있다' 와 같은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그물의 망(網)처럼 서로 붙어서 떨어져 있지 않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는 바로 이처럼 너와 내가 둘 아닌(不二) 존재임을 깨우친다. 우리도 '우분투(Ubuntu)' 운동을 일으켜 보자.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쳐

뼈를 깎는 참회로 중앙종회 이끌어야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원을 구성하기 위한 첫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제 16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출발하였다. 온갖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성찰과 참회보다는 편법과 탈이 더 많았던 종회의원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종단 고위급도 지적한 바, 조계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단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정비하며 각각의 시스템이 활발히 기능하도록 그 환경을 여법하게 만드는데 있다. 종회의원은 종단운영의 틀을 만드는 책임의 주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살펴보건대, 한국불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동안 이웃종교들은 조직화, 대중화, 현대화를 세련되게 추진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에 확장의 폭을 넓혀서 이미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일대 유신을 단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중앙종회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불교광장' 의 책임이 무겁다. 선거전에 종책자료집 '대중공의' 를 내놓았는데,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삼화도량' 은 심기일전하여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목소리에 바짝 귀 기울이고 기대에 부응하기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소수를 넘어서 불교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중앙종회법 제17조에는 '중앙종회의원은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한다' 는 내용의 종회의원 선서가 실려 있다.

이 같은 선서에 맞춰 개원한 제16대 중앙종회는 뼈를 깎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절박함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러한 후에 누적된 종단의 온갖 폐단을 일소하겠다는 큰 각오가 종회의원 모두의 가슴에 자리매김 된다면 조계종과 한국불교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단상

낮고 어려운 곳에서 울리는 목탁소리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넘었다. 그 사이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됐고, 관련 해경과 유병언 일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 됐으며 실종자 가족이 세월호 수색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족들은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4월 16일. 대한민국의 시간은 세월호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나 뿐일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알맹이 빠진 특별법만 제정되고, 세월호 유사 사건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교훈, 반성, 안전이 정지된 대한민국호가 되어버렸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말하지만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논하듯 불교 역시 세월호를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

돌아가신 이의 영혼과 극락왕생만 빌어주는 불교에서 잘못된 구조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탄에 빠진 분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불교로 바뀌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꾸짖고 바로잡으려하는 살아 있는 불교로 거듭날 것이며, 약자를 누르는 제도와 힘에 대해 종교적 신앙에 근거해 맞설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자본주의를 빼닮아가는 불교,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미래가 없다.

수행과 포교는 따로 있지 않다. 신자 없는 수행, 포교도 있을 수 없다. 불교는 이제라도 대중의 고해 덩어리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울고 삶의 고단함을 들어주는 동사섭 포교를 펼쳐야 한다.

스님들의 목탁소리는 산속에서도 들려야하지만 세월호 광장,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 농성장,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빈곤의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들려야 한다.

선방의 죽비 소리 역시 가난하기에 속절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뭇 민초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질 때, 그때야말로 떠났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릴 것이다.

社說

인력 양성 없이 템플스테이 발전 없다

템플스테이는 21세기 한국불교가 보여준 문화 콘텐츠 중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아이템이다.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도법사 스님들의 노력도 많지만 실무를 보며 진행하는 전문 인력의 노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무 전문 인력들의 근무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불교학연구〉 제40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일선 실무 인력의 이직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2012 템플스테이 환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112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특히 6개월 미만 근무 인력이 32%(35명)에 달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넉넉지 못한 사찰 살림과 열악한 근무 조건이 이직 이유의 1순위일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외로 대상자들은 '인간관계' 를 이직의 이유로 꼽았다.

조 교수와의 설문을 진행한 인력은 "사찰 특성상 스님들과 일할 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재가자들이 무조건 참아야 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재가 종무원들의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복리후생이 좋은 것도 아니다. "주로 템플스테이가 주말에 있으니까 주중에 쉬게 되는데 주중에도 사중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 전문 인력의 토로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흔히 사찰에서 일하는 재가자들에게는 신심과 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신심과 봉사 정신이 바탕돼야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은 내외국인들을 상대하는 특화된 전문 인력들이다. 인력 양성 없는 템플스테이의 불교의 발전은 없다.

한중일 불교, 평화 실천의 중심되길

도라산 전망대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다. 송악산 OP(Observation Post; 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이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1987년 1월부터이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악산 · 금암골(협동농장) · 장단역 · 북한선전마을 기정동 · 김일성 동상 등이 바라다 보인다. 이 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으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파주시의 'DMZ 안보연계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린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중일 불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중 메인 행사는 19일이다.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 을 주제로 서울 그랜드호텔서 세미나를 연 뒤 파주 도라산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를 개최한다. 오전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각 국 역사 속에 담긴 평화사상과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오후에는 도라산전망대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열고 있다. 이 나라들은 아시아 아니 세계 불교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단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얻어낸 결실인 공동선언문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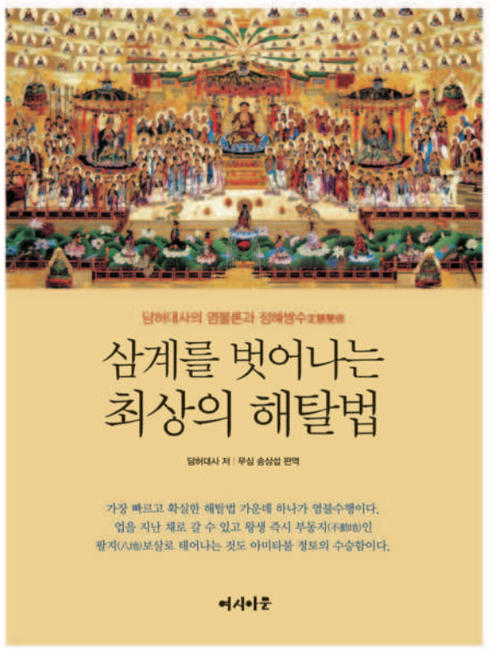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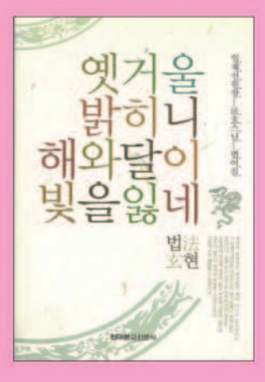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